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02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9월 7일)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5분 선명상’ 광화문 광장을 장엄하다

조계종 ‘2024 국제선명상대회’ 개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국제선명상대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해외 명상전문가들이 ‘5분 선명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불자 3만 5천명 운집…장관 연출
진우 스님 5분 선명상 선포하며
마음 · 세계평화 한마음으로 기원

상생공동체 위한 ‘국민오계’ 약속
“계 지키는 것 고통 벗어나는 길”
佛法僧 삼보께 지극한 공양 올려
“상호 존중 상생공동체 만들겠다”

특별취재팀=신중일 · 노덕현 · 임은호 · 김가령 · 김민재 기자

‘2024 국제선명상대회’에 참석한 3만 5000여 불자들이 선명상을 경험하며 서울 한복판 광화문광장을 환희롭게 장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하루 5분 명상’을 선보이며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길을 안내했다. 참석 대중들은 마음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향한 간절한 바람을 온 우주 생명들과 함께 마음 깊이 되새겼다.

‘2024 국제선명상대회’가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예정된 시간이 가까워오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들이 광화문에 마련된 자리뿐 아니라 서울 시청까지 거리를 가득 메우며 장관을 연출했다. 불자들뿐 아니라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역시 걸음을 멈추고 광화문 앞에 설치된 무대에 시선을 집중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직접 단상에 올라 선명상에 대한 PT를 진행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OECD 자살율 1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불명예 별칭을 얻은 이곳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까요?”

먼저 질문을 던진 진우 스님은 “이제는 산업혁명을 넘어 정신혁명의 시대로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발전과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마음의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면서 “정신혁명의 시대, 우리가 마음 평안을 찾아가는 그 길은 선명상이다. 한국불교 정통 수행인 간화선을 바탕으로 선명상을 열어갈 것”을 말했다.

진우 스님은 이 자리에서 선명상 시대를 향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간화선을 비롯한 여러 선명상 연구·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양성·시스템 구축 △선명상 센터 설립·전국 100여 개 선원 및 사찰 템플스테이서 선명상 활성화 △세계 확산 위한 선명상 문화적 흐름 창조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인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실천인 ‘하루 5분 선명상’을 제안했다. ‘하루 5분 선명상’의 실행을 위해 △선명상 길라잡이 △선명상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체계적인 실천법을 제공할 것도 약속했다.

다양한 선명상 방법도 공개됐다. 매순간 ‘5초 우선멈춤 선명상’, 매일 수시로 ‘5분 무시로 선명상’, 어려움을 느낄 때 ‘지나가리라 쉘패스 선명상’, 지나친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는 ‘방하착, 놓음 선명상’, 모든 일은 나에게서 나온다는 ‘그림자 선명상’, 지나친 쾌락이나 고통에 휘둘릴 때 ‘고락사 삼수야 가라 선명상’, 점이 연결돼 선이 되듯이 ‘바로 지금 이순간(Right noe at this moment) 화두 선명상’으로 마음을 깨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하루 5분’ 마음의 여행을 떠나볼 것을 제안했다. 진우 스님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그 해답은 내 언제나 내 안에 있다”면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여정을 떠나보자”고 말했다.

선명상의 마음가짐과 자세, 호흡을 안내하는 준비 영상 이후 선명상 실참이 이어졌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일수 스님, 금강 스님, 불산 스님을 비롯해 로시 조안 할리팩스, 툽텐 진파, 차드 멩 탄, 팝루 스님, 직메 린포체가 함께 무대에 올라 마음 평안에 이르는 여정을 시작했다. 선명상 침묵 영상이 송출되며 광화문 일대가 고요로 물들었다. 마음의 평온을 찾은 동참자들로 선한 에너지가 주변을 휘감았다.

명상 후 3만 5000여 동참 대중 모두가 한 목소리로 ‘세상을 향한 평화의 기도’를 낭독하며 국제선명상대회의 막이 내렸다. 대중은 발원문에서 “모든 생명과 자연이 서로 연결돼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의 원인은 결국 나로부터 비롯됨을 깊이 자각하겠다”면서 “지구촌의 폭력과 전쟁,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이해와 존중, 자비와 지혜가 가득한 세상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꽃 스티커를 가슴 한쪽에 붙이고 마음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국제선명상대회에 앞서 국민오계 수계법회와 승보공양법회도 열렸다. 수계법회는 불자들이 지켜야 할 오계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 공동체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불자들은 국민오계를 받은 공덕을 온 법계 모든 중생들에게 골고루 베풀어 마음평화와 국민행복을 이끌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수계법사로,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와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를 증명으로 한 수계법회는 장궤합장과 큰 절 등 전통의식으로 진행돼 여법함과 장엄함을 더했다.

국민오계는 생명존중과 상생의 가치를 믿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좋은 습관을 들여 나와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한 약속으로 마련됐다. △불살생계(不殺生戒)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자 △불투도계(不偷盜戒)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나눔을 생활화 하자 △불사음계(不邪婬戒) 신의를 지키며 심신을 맑게 하자 △불망어계(不妄語戒) 나와 남을 속이지 말자 △불음주계(不飮酒戒) 내 정신과 몸에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자 등 다섯 가지 덕목이다.

진우 스님은 법어에서 국민오계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설했다. “계는 그릇과도 같다”고 말한 진우 스님은 “그릇이 깨져 있거나 금이 가 있으면 물을 부을 수도 없을 뿐 더러 새거나 오염될 수밖에 없다”면서 “계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의 도탄에서 벗어나게 하는 최고의 행동,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된 오계는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지켜나가자는 국민오계”라고 설명하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계를 지켜나갈 때, 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 세계 최고의 국민, 최강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수계법사스님들이 연비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3만 여 불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연비를 해줘, 감동을 선사했다. 200여 법사스님들은 좌식한 대중들에게는 전통향연비를, 3만 5000여 대중들에게는 삼보륜 모양의 도장을 정성껏 찍어줬다.

의식을 마친 수계대중들은 무대 단상 위 증명단의 스님들을 향해 합장하고 석가모니불 정근을 이어갔다. 이후 발원문을 통해 나 자신의 마음 평안과 모두의 평화를 위해 다함께 국민오계를 잘 받들어 지킬 것을 다짐했다.

수계법회에 이어 봉행된 승보공양법회는 우리 사회가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서원하는 자리였다.

법계를 깨끗이 하는 ‘정법계진언’을 염송한 뒤 본격적인 승보공양이 이뤄졌다. 이날 승보에게 올린 공양물은 스님들이 출가하고, 수행하며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흙으로 곱게 빚어 만든 화발우와 수행자의 상징인 가사가 준비됐다. 공양을 받은 승가는 승보를 올린 대중들을 축복하는 축원을 전했다.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는 〈축복경〉 중 일부를 낭독하며 대중들을 축원했다.

법회는 우리 사회가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공동체를 기원하며 “서로 존중합니다. 서로 존경합니다. 서로 공경합니다”를 합송하며 마무리됐다.

한편 국제선명상대회는 9월 30일까지 지역·계층별 선명상 축제로 이어졌다.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봉은사 봉은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국제컨퍼런스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A3면〉

2024 불교도대회 특집섹션 B1~7면

육조정맥선원
www.zenparadise.com

생사해탈을 위한 ‘3년결사안거’ 모집

생사해탈한다는 특달한 각오로
3년 동안 입출퇴를 하지 않고
농선 대원선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면
반드시 3년 안에 내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입방각서 : 3년결사안거 중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의와 불만을 절대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그 어떠한 벌칙도 감수하겠습니다.



1000명 앞에서 좌탈입망하신
전강 전법 대선사

지금 불교계에 스승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선 대원선사는 현재 90의 연세로, 64년 전인 26살 때부터 120세까지 수명을 정해놓고 사시면서, 간절히 깨닫기를 서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직접 죽비를 잡고 내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기 위하여 ‘3년결사안거’를 단행하고자 하십니다.

농선 대원선사의 법사이신 전강선사는 1000여 명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법상에 올라 법문하신 후, 앉은 자리에서 열반에 드셨고, 은사이신 해인사 인곡선사도 나고 죽음을 자재하셨으며, 농선 대원선사님 지도하에 공부한 제자 소진추, 전대각월 불자님도 좌탈입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생에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 생사해탈한다는 특달한 각오로 3년 동안 입출퇴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농선 대원선사의 지도를 따른다면, 누구라도 승속과 종파를 초월해 입방하여 반드시 마음이 내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만 끊어지면 내 부모 처자식은 그만두고 내 몸마저도 한 점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나이겠습니까?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뜻을 지닌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입방요건 : 나이 (30~60대 남 · 녀) / 정신적, 신체적 건강한 분 / 제출서류 (입방각서, 건강진단서) / 접수기간 2024. 09. 01 ~ 2025. 12. 31 / 문의 010-8670-1445

해인총림 제10대 방장 후보에 대원 대종사

9월 30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한 몸으로 돌아가자" 화합 당부
오는 11월 중앙종회서 추대 예정

신중일 기자 ·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인총림 해인사 제10대 방장 후보로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학산 대원 대종사〈사진〉가 추대됐다.

해인총림은 9월 30일 경내 보경당에서 개최한 '해인총림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대원 대종사를 차기 방장 후보로 추대했다.

총림을 대표하며 지도감독권을 갖는 방장은 산중총회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추대한다. 산중총회에선 산중 고유의 방식으로 방장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방장은 선·교·율을 겸비한 법계 대종사급, 승랍 40년 이상의 본분종사 자격이 필요하다. 임기는 10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원 대종사의 방장 추대는 11월 5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232회 정기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원 대종사는 만장일치 추천 이후 첫 일성으로 '총림 화합'을 강조했다. 대원 대종사는 "해인총림 추대 문제로 조금은 소란스러웠다. 그럼에도 대중스님들의 노력으로 방장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으로 짐이 무겁다"고 소회를 밝힌 대원 대종사는 "(총림대중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마음으로 해인총림이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가자의 본분인 수행을 철저히 할 때 화합은 저절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수행을 근본으로 새겨 해인총림이 빛나도록 모든 총림대중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산중 총회 직후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대원 스님 방장 후보 추대를 알리며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동참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여법하게 마무리 되어 새로운 방장을 모시게 되었다"며 대중스님들과 함께 삼배를 올렸다.

해산 후 해인사 대중스님들은 용탑선원에 모여 하례하며 축하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 모인 스님들은 "앞으로 선수행을 통해 해인사의 수행



가풍 위상을 드높여야 한다"며 "방장의 위상이 해인사의 위상"이라고 말했다.

학성 스님은 "그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선교를 바로 세우자고 결의했었다. 이제 태양과 같은 대원 선사를 모셨으니 해인사가 빛이 나고 한국불교에도 밝은 영향력을 선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혜만 스님은 "해인사 문도를 하나로 모으는데 힘이 들었지만 오늘은 축제의 날이다"며 "조계종 선종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수행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해인총림의 납자들을 제접할 대원 대종사는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평생을 걸쳐 노력해 온 대표적 선지식이다. 1942년 상주에서 태어난 대원 대종사는 1956년 상주 남장사에서 고암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1958년 사미계를, 1962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6년 일대시교를 이수한 뒤 혼해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은 대원 대종사는 이후 21년간 제방선원을 다니며 효봉, 동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구산 스님 등 여러 선지식들의 회상에서 용맹정진했다. 1972년 해인총림 방장실에서 고암 대종사께 참문하고 공부를 점검받다가 깨달아 오도송을 지어 받치고 인가를 받았으며, 1986년 전법게와 부촉을 받았다.

대원 대종사는 1986년 제석사 옛터에 학림사를 창건하고, 1995년 오등선원을 개원했다. 2001년 오등시민선원을 개원한 대원 대종사는 간화선법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진력해왔다.

2010년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에 추대됐으며, 2013년 해인총림 서당 수좌와 조계종 원로의원에 위촉됐다. 2014년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2022년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본각 스님·법해 스님 표창…"불교문화 보존 계승 기여"

총무원장 진우 스님, 9월 30일 수여
"승가 안정 기여 비구니스님 치하"



본각 스님이 종정스님 공로패, 법해 스님이 총무원장 표창패를 받은 가운데 수여식에 전국비구니회 임원스님들이 함께해 축하했다.

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고양 금륜사 주지 본각 스님이 종정스님 공로패를, 서울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이 총무원장 표창패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로패와 표창패를 수여했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승가의 화합과 증진을 이끌어낸 점, 특히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며 스님들의 역할과 위상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진우 스님은 "본각 스님은 비구니 회장 소임을 맡으며 비구니 스님들의 소통과 정진을 위해 힘썼고, 2023년 18차 샤카디타 대회를 원만히 성료했다"면서 "불교역사 바로세우기, 기후위기, 환경 보호 매진 등 한국불교 미래의 기반을 조성한 공로가 크다. 앞으로도 비구니 승가는 물론 종단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보태달라"고 격려했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 전체가 하는 일을 종단으로부터 인정받아 기쁘다"고 감사를 표하며 "선명상 보급 등 종단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법해 스님은 진관사에서 사찰음식 보존 및 홍보에 힘쓰고 있고, 세계불교 여성들의 행사인 '샤카디타'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진우 스님은 "진관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소임을 잘 수행하고 회주 계호 스님과 함께 진관사를 세계인들이 찾는 한국의 명소로 성장시켰다"면서 "불교홍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법해 스님은 "종단 어른스님들이 중심을 잡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선명상 대회가 매우 감동적이었다. 앞으로 종단 일에 마음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형형색색 가을향연…국화향 가득 조계사

서울 조계사가 국화화엄축제
11월 14일까지 11개 테마로

서울 조계사에 형형색색의 가을 향연을 알리는 국화로 가득찼다.

10월 3일 개최된 '제14회 국화화엄축제' 개막식에서 주지 원명 스님은 도량 곳곳의 국화 장엄물에 생명을 불어놓고 건강한 생장을 발원하며 정병의 청정수를 뿌리는 의식을 진행했다.

참석 대중은 "국화 한 송이도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모여 피어난 것처럼 축제도 여러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모여 어우러진 귀한 인연임을 잊지 않겠다"면서 "지역사회에 공덕 회향과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퍼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발원했다.

이번 국화화엄축제는 11월 14일까지 11개 테마로 진행된다. 불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대표적인 서원 11개를 선정, 장엄물과 연결해 기도할 수 있게 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개막식에서 국화 장엄물에 청정수를 뿌리며 건강한 생장을 발원했다.

"개산조 태허 조사 가르침 깊이 새기자"

관음종, 태허 조사 탄신 120주년 다례재 봉행

종도들 "조사 유훈 되새기자" 다짐
내년 창종 60주년 맞아 학술행사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이 개산조 태허 조사 탄신 120주년 다례재와 내년 창종 6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종단이 나아갈 방향을 살폈다.〈사진〉

관음종은 9월 27일 총본산 낙산 묘각사 원통보전에서 '개산조 태허 조사 탄신 120주년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종정 홍파 스님은 추모법어를 통해 "개산조 태허 조사께서는 거리 설법과 전국 순회 법회를 통해 바른 불교의 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셨다. 조사의 전법행은 1979년 낙산 묘각사에서 열반에 들기 전까지 쉬지 않았다"며 "오늘날 혼탁한 세상에서 부처님의 정법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태허 조사 스님이 관음종을 창종하고 전법을 행했던 유훈을 잊지 말고 실천토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다례재 이후에는 '관음종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이 대불보전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허남결 동국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관음종의 종헌과 역사, 사회실천사업 등을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1904년 경성에서 태어난 태허 조사는 1929년 조계산 선암사로 출가해 조선불교선교양종 교정 경운 선사에게 득도했다.

태허 조사는 1965년 12월 관음종의 전신인 대한불교불입종을 창종해 이듬해 초대종정에 올랐으며, 낙산 묘각사에서 전법포교에 매진하다가 1979년 6월 24일 법랍 50년, 세납 75세로 열반에 들었다.

신중일 기자

국가유산수리기능
목조각 제 1728호
소 목 제 5972호
www.dongbangart.co.kr

동방예술원

사찰 내부불사 _ 수미단, 닫집, 목창호, 인등장, 현판, 주련

인도 분황사 대웅보전 닫집 및 수미단



세종 광제사 대웅보전 닫집 및 수미단



동방조형예술원 489-30-01174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1로 612-18 010-7581-1010

국제선명상대회 회향…“하루 5분 선명상을”

선명상컨퍼런스 10월 1일 개최
컨퍼런스 참가자들 결의문 발표
‘하루 5분 선명상’ 운동 제안도
진우스님 “선명상 보급에 최선”


‘2024국제선명상대회, 선명상 국제 컨퍼런스’가 10월 1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특별취재팀=신중일 · 임은호 · 김가령 · 김민재 기자

선명상 대중화와 한국불교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열린 ‘2024 국제선명상대회’가 10월 1일 선명상국제컨퍼런스를 끝으로 회향했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하루 5분 선명상 운동과 UN세계명상의날 지정을 제안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평온, 이 시대의 도전을 품은 선명상’ 선명상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진우 스님은 ‘불이중도의 지혜:디지털 시대의 선명상과 자비 실천’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지혜인 불이중도가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선명상과 자비 실천을 통해 어떻게 개인과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설했다.

진우 스님은 혼란스러운 시기,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 나아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스님은 “연기적 현상에 대한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자비 실천으로 이어진다”며 “보살도의 실천과 사회적 참여불교가 우리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다. 모든 존재와 연결돼 있다는 깨달음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에서는 진우 스님의 꿈(미션)과 대원(비전)이 공개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불이중도의 지혜와 자비 실천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하고 인간과 기술, 자연과 문명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하고자한다”면서 대원으로 △선명상과 자비 실천을 통해 개인의 내적 평화와 사회의 조화 동시 실현 △불이중도적 관점에서 AI 기술과 인문학적 상호성 인식, 조화로운 발전 통해 인류 문명의 균형있는 진보 추구 △불이중도 사상과 보살도 실천 바탕으로 글로벌 갈등해서와 평화 구축 기여 △한국 선명상과 자비실천 전통을 세계적인 정신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새로운 정신문화 한류 창출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해외 명상 전문가들의 주제 발제와 대담 이후 진행된 폐회식에서 진우 스님은 선명상 보급과 대중화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스님은 “세계적으로 명상붐이 일고 있지만, 한국의 전통선인 간화선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상 수행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현대인의 정서와 언어에 맞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세계인이 선명상을 통해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소통해 인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발전시켜 나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 폐회와 함께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하루 5분 선명상’ 운동 △전국 각지에 선명상센터 운영 △‘UN세계명상의날’ 지정을 제안했다.

참가대중들은 “하루 5분 선명상은 국민행복 프로젝트의 출발점이다. 걸을 때, 서 있을 때, 앉을 때, 누울 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5분 선명상을 함께 하자”면서 “명상은 기성 종교의 벽을 넘어선 평화운동이다. 명상의 확산에 UN이 앞장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이 탄광 입구 발견…유해발굴 청신호

9월 25일 우베시 수몰사고 현장
입구 가로폭 220cm, 나무로 제작
관음종 “개방 촉구집회 참여할 것”


조세아 탄광 입구 추정 장소.

일제강점기였던 1942년 2월 3일, 일본 우베시 탄전의 해저탄광이었던 조세이 탄광에 바닷물이 유입돼 수몰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 일본인 노동자 47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고 발생 이후 8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외면으로 진상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던 중, 한국불교계와 일본 시민단체의 원력으로 유해 발굴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과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하 새기는 회)’은 9월 25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저탄광 수몰사고 현장 부근에서 탄광 입구(갱구)로 추정되는 장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새기는 회’는 갱구로 추정되는 부근을 굴삭기로 5m가량 파내던 중 소나무 판자를 발견했다. 이것을 제거하자 내부 구조물과 함께 물길이 확인됐다.

10월 1일 발굴조사로 확인된 갱구의 크기는 가로폭 220cm로 지붕과 지지대 모두 나무로 이뤄졌다. ‘새기는 회’는 발굴조사를 이어 갱구에 잠수부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10월 말 잠수부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해 발굴조사에 속도가 붙을 경우 수몰사고로 희생된 한국인 136명의 유해 수습과 국내 반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관음종은 2017년부터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현장을 방문해 위령재를 열어왔다. 올해 7월에는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 수습을 위해 갱구를 여는 비용 100만엔, 한화 약 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가령 기자

대각회 제19대 이사장 장산 스님 취임

10월 3일 목동 법안정사서 취임법회 봉행



대각회 제19대 이사장에 부산 세존사 회주 장산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대각회는 10월 3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 큰법당에서 ‘제19대 이사장 장산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장산 스님은 취임법문에서 용성 조사의 생애를 되짚고 유훈을 실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용성 조사는 스님이 500년 간 발도 못 디밀던 시절 시름을 달래며 보내고 1911년 종로 한복판에 대각성전을 세웠다. 이후 불교 도래 1600년 만에 우리 글자로 부처님 말씀을 종이에 새겼다”고 기렸다.

이어 “용성 조사의 문손들은 조사의 사상을 이어가며 조계종단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대각회는 용성 조사의 유훈과 종단의 종지를 받들고 수행정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각회 이사장 장산 스님은 1967년 해인총림에서 자운 스님에게 구족계를, 1970년 고암 스님에게 전법게를 받았다.

1985~1990년까지 호주 시드니 불광사에서 포교활동에 전념했다. 조계종 초심 호계위원, 법규위원, 역경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3년 부산 세존사를 창건해 현재로 회주로 주석하며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높이 8m 대형 한지에 나툰 삼신부처님을 만나다

불교중앙박물관 · 봉선사, 특별전
10월 20일까지 총무원서 공개


‘비로자나삼신괘불’은 세로 8.77m 규모다.

한지에 조성된 괘불 가운데 크기가 가장 크고 시기도 앞선 보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이 특별 공개됐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은 10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비로자나삼신괘불’ 봉안식을 봉행했다. 이번 괘불 공개는 불교중앙박물관 2024 특별전 ‘큰 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본찰 봉선사’와 연계한 것으로, 10월 20일까지 전시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괘불을 통해 봉선사에 모였던 백성들의 간절하고 오랜 염원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던 선지식들의 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 나투신 장엄한 삼심부처님을 친견함으로써 탁월한 문화유산적 가치는 물론, 교종본찰 봉선사와 경기북부 지역의 불교문화를 감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봉선사 괘불은 최근 국보승격을 위한 지정조사를 진행하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불교중앙박물관은 이번 봉안식을 계기로 봉선사 괘불의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고 차후 국보까지 지정되는 결실을 보도록 봉선사와 협력을 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은 숙종 후궁 영빈 김씨가 사망한 1735년, 영빈 김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왕실에서 후원해 수화승 각총 스님의 주도로 조성한 불화다. 가로 5칸, 세로 6줄로 총 30장의 장지를 연결해 가로 4.63m, 세로 8.77m 규모의 한지 위에 부처님을 그렸다. 괘불 가운데 한지에 조성된 것은 봉선사 외 수타사와 계림사 총 3점이며, 이 중 봉선사 괘불이 크기도 가장 크고, 시기가 가장 앞선다.

양볼과 귀에 홍조 표현이 된 세 분의 부처님 머리와 보관을 따라 화염불꽃 모양의 광배가 비대칭으로 드러나는데, 괘불 중 이 같은 표현은 봉선사가 유일하다. 김내영 기자

템플스테이
선명상과 함께하는 휴식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템플스테이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Korean Temple Food Center

지역	사찰명	프로그램명	진행 일자	주요 프로그램
서울	국제선센터	1. 내 마음에 선함 2. K-명상 K-템플스테이 3. K-meditation K-templestay	프로그램 별 상이	선명상 (주식은, 그리고 일상수행을 위한 마음 다루는법)
	봉은사	상월선원 템플스테이	매월 넷째주 / 금~일	9시간 참선 정진
	석불사	나, 지금 여기 내 마음 비라보기_선명상	매월 1회	아침 명상, 한강 명상
	화계사	'선명상 템플스테이' _'일상생활속의 마음챙김'	매월 2회	선명상 이론 및 실습
	금강정사	마음챙김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월 둘째주, 넷째주 / 토~일	차 한잔 오감명상, 별보기 명상
	대광사(성남)	내 마음 주인되기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주 토~일	고구려북 선명상, 풋음처유 선명상
	법룡사	선명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별 상이	붓다볼 명상, 바디스캔 명상
	봉녕사	'마음놀이 숨바꼭질'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주 토~일	와선명상, 붓다볼 명상
	봉선사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주 토~일 (체험형)	비밀의 숲 명상, 108배 명상
경기	봉인사	1. 연달을 향상하는 선명상 템플 스테이 2. 나를 사랑하는 자비 명상 집중 템플 스테이 3. 몸건강을 위한 디톡스 요법 참한공 치크라 요가 4. 힐링의 숲에서 선명상 템플 스테이 5. 스님과의 상담이 있는 명상 템플스테이	매주 토~일	몸과 마음 알아차리기 선명상
	용주사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월 셋째주 / 금~토	돌레길 숲명상, 호흡명상체조
	연주암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내 안의 나에게 주는 '쉼표' 셋 '선명상 체험'	매월 둘째주, 넷째주 / 토~일	선명상
	육지장사(양주)	선명상을 통해 나를 알아차리는 시간: 禪·차 템플스테이	매주 금~일	108배 명상, 보행명상
	흥국사(고양)	선명상스테이	매주 토~일	숲치유 오감명상, 힐링터치
인천	연등국제선원	"마음의 문고리를 잡다" 선명상 템플스테이	상시 운영	인도 출신 주지 스님의 선명상 지도
	전등사	내안에 나를 마주하다- 전등사 "맞-선" 템플스테이	매주 토~일	좌선명상, 하타요가
강원	낙산사	[선명상 템플스테이] 적멸을 위하여	9/14~9/15	파도명상, 소리명상 또는 걷기명상
	백담사	백담사 마음하나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월 1회 (토~일)	별빛달빛참선, 숲명상
	삼화사	무릉계곡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월 1회 (금~일)	무릉계곡 트래킹 명상, 해돋이 명상
	용연사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월 중순 1회	걷기명상
	월정사	[선 명상] 템플스테이: 오롯이 바라보기	매주 토~일	상잉볼 명상, 숲 명상
제주도	약천사	참나를 찾아가는 선 명상(숨비명상)	매주 일~화	숲걷기명상, 호흡관찰 명상

지역	사찰명	프로그램명	진행 일자	주요 프로그램
충남	지장정사	내 마음 바로보기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월 2회 / 토~일	알아차림 명상, 감결을 명상, 차 명상
	학림사	생각을 쉬어가는 절 나는 무엇인가?	상시 운영	선방 좌선, 소참법문, 찬심법요 보설 강설
	한국문화연수원	선명상 템플스테이 -십승지 명당 기운을 얻어	상시 운영 (단체)	단다라 명상, 힐링 호흡 명상
충북	법주사	행복을 찾아가는 선명상	매주 토~일	상잉볼 소리 명상, 천년의 숲 걷기 명상
	용화사(청주)	차와 함께하는 선명상스테이	매주 금~일	기초 차명상, 차담 명상
	석종사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월 둘째주, 넷째주 / 화~수	참석 체험, 문답 시간
전남	대흥사(해남)	선선선(善.茶.禪) 템플스테이: 지금 당장 행복하자!	매월 셋째주 / 토	행선/참선/다선 명상
	백양사	참사람 선명상 템플스테이(단일형)	9/21 마인드 와이킨, 백양사 둘길 걷기 명상	
	불갑사	참 나를 찾아 가는 길 -마음사용설명서	매월 넷째주 / 토~일	
	송광사 (순천)	매월 한 번 참선스테이	매월 셋째주 / 토~일	소리명상, 자애관 명상
	쌍봉사	輝명상 - 수행과 마음의 평화	매월 2회 (단체 접수)	자비 명상, 꽃 명상
	용흥사(담양)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매주 토~일	선명상
	무위사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이	9/13 ~ 9/19	선명상
전북	선운사	1. 도솔제 걷기명상 2. 차발 걷기명상	매월 첫째주, 셋째주 / 토~일	아침 걷기 명상, 상잉볼 명상
경남	문수암	비분(비라보기)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주 수~목	선명상 이론 및 실습
	대원사(산청)	깊은숨 깊은쉼 선명상	매월 첫째주 / 토~일	선방좌선, 차명상
경북	심원사(성주)	선명상 템플스테이 - 쉬어가는 마음으름	상시 운영	가야산 숲길 명상, 해돋이 명상
	자비선사	1. 내마음 보기 자비수선명상, 2. 자비경선 걷기선명상, 3. 참마음을 찾아서 자비선명상	매주 토~일	자비선명상 이론 및 실습
	장육사	지금 이순간! - 선명상스테이	매월 셋째주 / 토~일	선명상
	직지사	내 마음 깊이 살펴보기 [선 禪]-명상체험형	매주 금~일	호흡 명상, 선무도
	축서사	쉬고 쉬고 또 쉬고 (7일 참선 집중 수행)	매월 첫째주, 셋째주 / 일~토	선방좌선, 큰스님 친견
대구	동화사	'일심'이! 선명상 특별 템플스테이	매월 둘째주 / 금~일	좌선 명상, 선무도
부산	범어사	선명상 템플스테이	매주 토~일	선명상
	홍법사	선명상 - 나는 누구인가?	매월 첫째주 / 월~화	호흡명상, 화두명상

* 일정 및 프로그램은 각 사찰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각 사찰에 문의 바랍니다.

정원주 회장 취임…“종도 자긍심 키워낼 것”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7 · 28대 회장 이취임법회

10월 2일 조계사 대웅전서
제28대 임원진 함께 소개
“선명상과 불교 세계화로
종도 자긍심 갖게 할 것”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정원주 중앙신도회 신임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10월 2일 서울 조계사에서 제27 · 28대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앞으로 중앙신도회는 선명상 확산을 이끌어가며 신도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신도 개개인의 포교역량 강화를 통해 종도로서의 자긍심을 키워내겠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10월 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7·28대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제28대 중앙신도회장으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정원주 제28대 중앙신도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신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중앙신도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내년이 중앙신도회 70주년이 된다. 선배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신도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임원들과 많은 회의를 거쳤다”“앞으로 불교를 세계 만방에 떨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같이 가는 중앙신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계종 종정 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옛 소나무 비바람 마음으로 서서, 맑은 거문고 흰 문의 음률을 연주하네. 가장 좋기는 가을 하늘의 달이요. 빛과 어울려 잎잎이 깊도다”고 전했다. 또한 ‘천재설소 만복운흥(千災雪消 萬福雲興)’가 적힌 휘호를 내리며 축하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오늘 취임하는 정원주 회장은 그동안 지역과 우리 사회에서 큰 리더쉽과 깊은 신심을 보여줬다”며 “종단 신도를 대표하는 중앙신도회장으로서 종단과 불교부흥에 선도할 수 있도록 중앙신도회를 잘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도 격려사를 통해 “‘열암곡 부처님 바로모시기’와 ‘선명상 대중화’ 등 종단 원력 사업들을 중앙신도회가 선도하며 종단외호와 포교역량 강화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재가자 대표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과 홍철호 대통령불자회장은 축사를 통해 정원주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종단을 외호하고 중앙신도회를 여법하게 이끌어가길 발원했다.

제28대 임원진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정원주 회장은 △선임직 부회장 △감사 △교구신도회장 △신도단체 대표자 △특별자문 △자문위원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며 제28대 집행부 출범을 알렸다.

정원주 회장은 법회에 앞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임명장을 받았다. 진우 스님은 “중앙신도회가 지금보다 활성화되어 종단의 신도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게 해달라”며 “화합된 신도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국가유산청 내 불교문화유산 전담 부서 신설을”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서
불교문화유산 보존 세미나
주경 스님, 기조발제서 제언



“현재 지정문화유산 중 불교문화유산은 35%에 이른다. 그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국보와 보물의 경우는 55% 이상이 불교문화유산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불교유산 보존·전승을 위해 국가유산청에 불교문화유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사진〉은 9월 30일 불교중앙박물관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간사들이 공동주최한 ‘불교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 시행 10주년을 맞아 다량소장처의 변화와 성과를 조명하고, 불교유산 보존·관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주경 스님은 불교유산의 대표성, 고유성, 공공성, 현재성에 집중해 역사성과 그 가치를 역설했다. 스님은 “다수의 불교유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탁월한 가치의 유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지정 불교문화유산은 사찰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며 “불교유산은 그 질과 양에 있어 한국 문화를 대표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 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아직도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유산 보유 사찰의 지원은 원형 보존에 한정돼 있어, 활용과 전승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경 스님은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함이 마땅하지만 나아가 불교유산을 향유할 수 있고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확대돼야 한다”며 “국가유산의 고귀한 유산적 가치가 일만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향유돼 국민 삶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정책이 변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유산 다량소장처인 본·말사 성보박물관 현황도 진단했다. 주경 스님에 따르면 성보박물관은 1987년 통도사 성보박물관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건립됐다. 2000년대에는 전국 주요 본사급 사찰로 확대됐고, 주요 사찰과 문중에서도 보장각, 유물관 등으로 불리는 수장 중심의 시설을 구축했다. 사찰과 문중에서 설립한 성보박물관(55개소)과 수장고(6개소)는 통칭해 ‘다량소장처’로 알려져 있고, 현재 총 6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주경 스님은 성보박물관의 발전 방향으로 △성보박물관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본사 성보박물관의 거점 수장 시설을 확충해 말사 등 주변 지역 사찰 권역의 불교유산까지 보존·관리하는 체계 구축 △20여 년이 지난 성보박물관은 정밀진단으로 개보수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국민 문화 향유를 위한 공공적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주경 스님 “최근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보박물관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며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로 공공적 활용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비구니 어산의 삶과 업적…100년 돌아보다

10월 20일까지 한문화체험관 3층
최초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
범패 기록·소장품 등 자료 선봬

관습적으로 굳어진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어산’ 발전에 이바지한 비구니 어장들. 여성 수행자이자 예술인으로 한 시대를 이끌었던 비구니 어산의 100년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전시회가 마련됐다.

조계종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와 청량사(주지 도법 스님)는 10월 1일 진관사 한문화체험관 지하 공연장에서 기획 특별전 ‘비구니 어산 백년을 회고하다-자비의 꽃비 내리고 감로가 베풀어지다’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은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진관사 한문화체험관 3층 아름다움에서 대중에 공개되며, ‘어산 장엄세계의 수행자’ ‘부처님의 환희로운 법의 말씀에 하늘과 땅이 여섯 가지로 진동한다-여섯 가지 법의 악기’ ‘자비 대도량의 장엄기물’을 주제로 비구니 어산의 삶과 업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다수 전시된다. 특히 최초의 조계종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의 범패 음성기록과 전승 계보, 냄비뚜껑 바라·15세 전후로 수했던 착복가사·오불관 등 귀중한 소장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전시에서는 동희 스님의 스승인 송암 스님의 유물과 불교의례에 사용되는 청량사 어산 남채백 스님의 가사, 형엄 스님이 쓴 ‘요집’, 석용 스님의 나발·법라, 하씨 상궁 발원 청도기 등이 선보여져 의미를 더했다.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은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비구니 염불승이라면 좋지 못한 시선을 받았다. 비구니로서 법음, 범패를 이어가는 것은 참 어려웠다. 그럼에도 용기와 가르침을 준 스승님의 한 말씀 한 말씀 덕분에 굳건히 이겨낼 수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후학들이 범음, 범패의 뿌리를 이어가고 정진해 나가는 데 큰 인연이 되길 바란다. 후학과 도제 양성에 전념하라는 뜻으로 알고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이 전시장을 돌며 범패 기록 및 소장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진흥원, ‘간헐적 몰입’ 화요강좌

10월 15일 다보빌딩 다보원서
조우석 책추남 TV 대표 초청

진흥원이 ‘간헐적 몰입’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가 10월 15일 오후 7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BBS) 3층 다보원에서 조우석 책추남(책 추천해 주는 남자) TV 대표를 초청해 ‘간헐적 몰입, 왜 중요한가’를 주제로 화요열린강좌를 연다. 조 대표는 교재 〈간헐적 몰입〉을 통해 현대인에게 필요한, 몸과 마음, 정신이 조화로운 몰입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강사로 나선 조우석 대표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석사, 하버드 케네디 스쿨 공공행정학 석사 MPA를 마쳤다. 1만 권이 넘는 독서량을 바탕으로 책을 추천하는 유튜브 채널 ‘책추남TV-책추천해 주는 남자TV’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하버드 케네디스쿨 입학사정위원 △굿윌 인더스트리스의 전략 컨설턴트 △구루 데이비드 아커 교수의 글로벌 파트너사의 총괄 부사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강의는 무료이며, BBS-TV와 유튜브 ‘헬로붓다tv’에서도 강의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강의 문의 및 참가 신청은 전화(02-719-2606)에 연락하거나, 네이버 카페(화요 열린 강좌, http://cafe.naver.com/dharin.cafe)을 참고하면 된다. 김민재 기자

탄소비움 자비채움 ‘그린붓다데이’

비구니회, 10월 19일 환경대축제
다양한 체험 부스 · 환경콘서트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10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환경대축제 ‘그린붓다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사회적 의미의 지구환경운동과 전법의 의미를 담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문제 등 환경에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재식에서는 울산 불교환경연대 대표 천도 스님이 ‘불교와 자연, 생명’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비빔밥으로 준비된 점심공양 후 오후 2시부터는 환경콘서트가 시작된다.

전국비구니회 블루로터스의 식전 연주회를 시작으로 △일체 생명을 위한 울림, 불교 사물과 소리 공연 △모두가 곧 하나인 인연(법룡사 나라연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바람의 빛깔) △우리 자신을 위한 춤사위(별빛 사리 송우주, 송승현) △활기찬 생명력 그리고 새명의 에너지(어쏘티드) △그린붓다의 자애심과 베푸는 기쁨(정율 스님)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공연 후에는 울림과 발원을 주제로 5분 명상이 진행된다.

온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인생네컷 선물권 부스 △바다 유리 키링 만들기 △재미있는 분리배출 △환경수수께끼 도전하기 △멸종위기종 가면 만들기 △사찰음식 요리 체험하기 △자연이 담긴 보이차 시연 △EM 만들기 체험 등 2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된다. 대체육과 와플 등 특별한 간식 코너도 준비됐다.

12시 관내 메따 공연장을 찾으면 애니메이션 영화 〈윌-E〉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임은호 기자

연예인전법단, ‘전국사찰노래자랑’ 연다

10월 19일 화계사 특설무대서
“사찰 신도 화합 및 인재 양성”

사찰 신도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화합의 장을 이끌 ‘전국사찰노래자랑’이 열린다.

조계종 연예인전법단(단장 우봉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이 10월 2일 서울 연예인전법단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화계사를 시작으로 사찰 신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사찰노래자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찰 재정 부담 절감을 위해 임혁 연예인전법단 회장을 비롯한 연예인전법단 회원들이 ‘재능보시’를 결심해 눈길을 끈다. 이한규 사무총장과 조한국 기획이사 등이 연출을 맡고 MC로는 불자 개그맨 김주철 씨와 BBS불교방송 백팔가요 진행자 목비 씨가 나선다. 아울러 임혁 회장, 김국환·진미령 부회장이 심사위원 및 초대 가수로서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임혁 회장은 “전법단에 소속된 불자 연예인으로서 재능보시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로 대중과 친해지고 신도들이 화합해 대중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예인 전법단장 우봉 스님은 “현재 전국사찰노래자랑 예선에 3명의 대학생을 포함해 50여 명이 접수했다”면서 “이번 행사로 참신한 젊은 세대 불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사찰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도들이 모여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불자 연예인들에게도 좋은 기회다. 사찰 행사에 꾸준히 출연하며 불자들에게 불자 연예인·가수임을 홍보해 스스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대불청 회장에 이길수 씨 단독 입후보

대불청 선거관리위원회
9월 23일 확정 공고 발표



대한불교청년회 제33대 중앙회장 후보로 조계사 청년회 이길수 씨〈사진〉가 단독 입후보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하재길)가 9월 23일 제33대 중앙회장 선거 단독 입후보자로 이길수 씨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길수 후보는 현재 건축사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으며, 조계사 청년회장, 대한불교청년회 부회장, 대한불교청년회 만해백일장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조계사청년회 소리마루 합창단, 불화반 동아리 등을 창단하기도 했다.

이길수 후보는 소신서를 통해 “대한불교청년회는 100년이 넘은 역사를 지닌 전국을 대표하는 단체”라며 “지회와 지구, 지구와 중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불청 조직화’를 1번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각 지구 및 지회청년회 지속적 방문(최소 1년에 2회) △지역사찰 지구·지화장과 동행방문 및 매월 합동 법회 개최 △신규청년회 방문 및 조직화 △주요 위원회 조직화 확대가 그것이다. 이외에도 불교문화 컨텐츠 개발 및 미디어 홍보를 공약했다.

한편, 대한불교청년회 제33대 중앙회장은 10월 20일 제81차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임기는 2년이다. 김민재 기자

“초발심에서 禪 정각까지”…성파 대종사 ‘禪藝’를 만나다

성파 선예(禪藝) 특별전, COSMOS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옻회화 · 금니사경 등 120점

“작품이 아닌 생활 속 기록”

연계 학술세미나 · 다도체험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생활 속 기록’으로서 40여 년의 예술가 활동을 이어왔다. 11월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대종사의 예술세계를 한 자리에서 조망하는 자리다.

김가령 · 김민재 기자

“이번 전시는 밭을 갈구고 예불하는 틈틈이 만든 것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작품’보다 ‘생활 속 기록’에 가깝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느낀 것들을 나만의 언어로 만들었고, 이것이 100년 후 사람에게도 닿아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40여 년에 걸친 예술세계를 총망라한 전시 ‘성파 선예(禪藝) 특별전- 코스모스(COSMOS)’ 개막을 하루 앞둔 9월 27일, 서울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파 대종사는 이와 같이 밝혔다.

성황리에 개최중인 ‘성파 선예(禪藝) 특별전- 코스모스(COSMOS)’는 성파 대종사의 ‘예술인’적 면모에 중점을 둔 전시다. 금니사경, 옻 회화, 설치작품, 칠기도자 등 대종사의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다방면의 예술작품 120점을 한 데 모아 조망한다.

성파 대종사는 전시를 통해 대중들이 대화의 방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를 갖길 기원했다. 대종사는 “우리가 ‘대화’라고 함은 말로, 문자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통하는 것은 바로 ‘예술’”이라며 “시대의 많은 이야기들을 작품에 담아 남기고자 노력했다. 내가 옛날 선연들이 남긴 글과 그림 등을 보고 소통하며 작품 활동한 것처럼, 후대 사람들도 내 작품을 통해 나와 대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같이 대화의 주제와 방법, 어느 하나 같은 것 없는 시대에 여러 주제의식과 의미가 담긴 작품을 보며 대중들은 예술과 대화의 방법 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발원했다.

전시를 기획한 이소연 큐레이터는 준비 과정에서 대종사가 “이래서 되겠나”라고 끊임없이 던진 화두가 기획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큐레이터는 “성파 대종사가 ‘자연이 그리고 바람이, 그리고 물이 그렸다’고 표현하시는 추상적 작품들이 대거 선보여진다”며 “대종사의 작품 세계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신작이 나올지 기대하게 만드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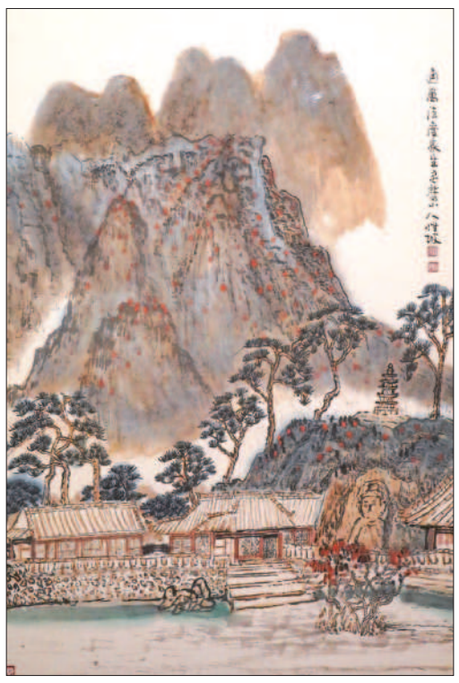
〈조물造物〉, 도자에 옻칠.

같은 날,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불교계와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파 대종사 특별전 개막을 축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축사에서 “내면세계를 작품으로 드러내고자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정진하신 종정 예하의 특별전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종정 예하의 작품이 걸린 예술의전당 전체가 선방이 됐다. 이 전시회를 통해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삶의 본질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성파 스님은 한국 전통 재료인 옻을 활용한 창작기법으로 불교미술·서예·한국화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다”며 “성파 스님의 아름다운 예술 세계가 담긴 이번 특별전을 통해 관객들 마음에 깊은 위로를 선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 등 정관계 인사도 단상에 올라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성파 스님의 특별전 개막식에 함께하게 돼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전시회가 일상에 지친 우리 국민께 희망과 안식이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통만법도중생, 선지에 수묵채색.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진정한 예술의 힘은 저 같은 범인(凡人)도 깨우침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이번 대한민국의 가을이 종정 예하의 예술로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인사를 전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는 너무나 커서, 하나로 담지 못하니 선의 예술, 선예(禪藝)로 표현한 것 같다”며 “‘마음은 세간을 그리는 화가’라고 했다. 스님의 예술세계는 스님 마음으로 그려낸 세간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스님의 세간이 전부 펼쳐져 있으니 각자 담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속의 달〉, 옻판에 옻칠.

선예를 아우른 COSMOS

성파 대종사의 선예에 있어 ‘재료에 대한 연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대종사는 전통한지 제작부터 안료와 염료의 재배 및 가공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물감과 바탕이 되는 재료들을 직접 다뤘다.

전체 작품을 통틀어 주목되는 재료는 ‘옻’이다. 옻칠을 덧입혀 만든 도자기, 옻을 섞어 그린 그림 등은 옻을 바라보는 대종사의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다. 대종사는 “옻이라는 물질은 수천 년 동안 부패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유지되는 물질”이라며 “변함없는 속성을 가질 물질이었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시는 총 6개의 섹션으로 △태초(太初) △유동(流動) △꿈(夢) △조물(造物) △궤적(軌跡) △물속의 달 등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섹션인 ‘태초’에서는 우주의 시작을 상징하는 암흑물질과 태초의 에너지를 표현한 작품으로 전시의 시작을 알린다. 칠흑 같이 어두운 공간에 배치된 크고 작은 검은 기둥들은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상징적 오브제로, 초월적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시각화했다.

두 번째 섹션 ‘유동’에서는 ‘결과 움직임’의 향연이 펼쳐진다. 옻칠로 물과 바람 등의 유동성을 형상화한 작품들은 물질 너머의 에너지와 기운을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동양의 오색(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을 섞어 나타난 우연한 색으로 그려낸 작품들은 서양의 마블링 기법과는 다른 유려한 미를 보여준다.

세 번째 섹션 ‘꿈’에서는 대종사의 초현실세계와 마주한다. 화면에 드러난 묵직한 형태들은 무의식에서 펼쳐지는 꿈의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추상과 구상이 혼재된 인간, 동물, 기하학 형태들은 무의식을 자극해 관람자가 작품과 교감하게 한다.

‘조물’ 섹션에서는 성파 대종사가 도자와 옻칠을 결합하고 공예와 미술을 넘나들며 ‘칠예도자’ 장르를 개척한 과정을 보여준다. 대종사는 저마다 다른 빛깔을 가진 도자들이 ‘초발심에서 선(禪) 정각까지’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흙은 중생인 상태로 수비, 성형, 소성 등의 수행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도자,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게 대종사의 설명이다.

‘궤적’은 성파 대종사의 생애와 예술적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섹션으로, 대종사가 걸어온 예술적 궤적을 시기별로 나누어 조망한다. 유교의 시서화를 시작으로 불교의 사경과 도자, 그리고 추상적인 옻칠 예술로 확장되는 예술 여정을 만날 수 있다. 벽면의 시구들은 대종사가 생애에서 느낀 바를 기록한 것으로, 작품과 연결시켜 읽는다면 새로운 작품해석이 가능하다고 이동국 경기도박물관장이 설명했다.

마지막 섹션인 ‘물속의 달’에서는 물질과 정신, 실재와 비실재의 경계를 초월하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상(相)에 대한 집착을 떠나 옻의 물성이 성파 대종사의 수행과 철학을 만나 조형 언어로 승화되는 과정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와 연계되는 프로그램들도 눈길을 끈다.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4층 컨퍼런스홀에서 ‘성파의 예술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심은록(미술평론가), 이동국(경기도박물관장), 이영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인범(미술평론가), 정종미(한국화가, 전 고려대학교 교수), 마엘 벨렉(세르누치미술관 큐레이터), 버지니아 문(LA 카운티미술관 큐레이터) 등이 참여해 다각도의 시선에서 성파 대종사의 예술관을 논한다.



제12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세주 묘엄 명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24년 10월 10일(목) ~ 10월 31일(목)

시상내역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수상한 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이고,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 되어야 한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 우편 및 온라인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http://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20, 3층 화인빌딩 법무법인 천우
- 문 의 : 사무직원 윤선웅 yoon1910@nate.com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 상 식 : 2024년 12월 7일(토)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 대법당 세주 묘엄 스님 제13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명대사 유묵, 400년 만에 오대산 돌아왔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선승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승병을 조직해 활약했던 승병장이자 외교관이던 사명 대사 유정(1544-1610)의 친필 유묵이 400년 만에 사명대사가 주석했던 오대산에 모습을 드러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관장 해운 스님)은 10월 4일부터 관내 1층 특별전시실에서 '불심종조달마원각대사(佛心宗祖達麼圓覺大師)'라고 쓰여진 사명 대사 유정의 친필 유묵(遺墨)을 첫 공개했다.

사명 대사는 임진왜란 이전인 오대산사고(영감난야)에서 5년 여간 주석했다. 전쟁이 끝난 뒤 설치된 오대산 사고의 입지선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만큼, 스승인 서산 대사와 함께 오대산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유묵은 가로 30cm, 세로 120cm 가량의 반 가리개 족자 병풍 정도 크기로, 사명 대사가 1605년 임란 직후 대일(對日) 강화 사절로 일본 교토에 파견됐을 때, 일본 현지 스님에게 써준 글로 추정된다. 해서(楷書·한자 서체의 하나)와 행서(行書)로 쓰여져 각기 날카로우면서도 거침없이 쓴 필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명 대사 유묵은 불교계 명필로 '이난(二難)'으로 칭해지기도 했다. 일본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올해 5월 한 독지가의 기증으로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소장하게 됐다.

유묵 중심에 쓰인 '불심종(佛心宗)'은 선종을 가리키며, 조(祖)는 조사(祖師)를 의미한다. 원각 대사(圓覺大師)는 당나라 대종(代宗)이 달마 대사에게 올린 추존시호(推尊諡號)를 뜻한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으로 귀환
10월 4일부터 국내 첫 공개
교토 파견 당시 쓴 것 추정
같은 날 기념 학술대회 열려

글 오른쪽 부분에는 "만력(1605년) 을사년 봄에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남쪽 일본에 와 있을 때 해서 글씨로 '불심종조달마원각대사'를 써 달라고 요구하기에, 사양할 수 없어 감히 쓴다(萬曆乙巳春 以普濟 南遊日本, 以是求楷寫, 不得辭, 敢以書之)"고 쓰여있다.


'불심종조달마원각대사(佛心宗祖達麼圓覺大師)' 라고 쓰여진 사명 대사 유정의 친필 유묵.

왼쪽엔 '달마의 37대 손 사명사문 송운(徑山 三十七代孫 泗溟沙門 松雲云云)'이라고 이름과 지위를 적고, 낙관을 새겼다.

사명 대사 친필 유묵 귀한을 기념해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부설 (사)화엄선연구소(소장 향산 스님)는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오대산과 사명유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의 환영사로 시작된 학술대회에서는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사명 대사 송운 유묵 고찰-사명 대사 송운의 유묵 400년 만에 오대산 월정사로 귀환'을 주제로 유묵 소개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월정사와 사명유정'을, 김풍기 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시승에서 선승으로'를, 월정사 만월선원 지인 스님이 '사명당의 행적과 일본사행길'을,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사명 유정과 오대산 사고'를 발제했다. 이철헌 전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곽뢰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문연구원, 원영상 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 양혜원 서울대 규장각 책임연구원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함께하고 싶은 복지 파트너' 비전 선포

부산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9월 27일 개관 15주년 기념식

"함께하고 싶은 복지 파트너!"

사회복지법인 공덕향(대표이사 정창효)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9월 27일 복지관 앞 마당에서 개관 1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봉행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복지 파트너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기념식은 본행사에 앞서 지역민이 동참하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난타, 오카리나, 우쿠렐레, 주보 핸드벨 등) 발표와 국수잔치로 흥겨움을 더했다. 이어 노래자랑 및 트롯가수 초청 공연이 진행됐다. 본행사에서는 개회, 내빈소개, 시상식, 개회사, 축하인사, 미션 및 비젼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또 경품 추천을 통해 기념품 쌀과 목공시계 등을 참가자에게 전달하며 축하나눔으로 마무리했다.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9월 27일 복지관 앞 마당에서 개관 1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봉행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복지 파트너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정창효 공덕향 대표이사 및 이장호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박신자, 이혜정, 박선희 공덕향 이사를 비롯해 박성훈 국회의원, 오태원 북구청장, 이종진 시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으며, 기관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이 동참해 축하했다.

정창효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15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오늘 행사를 열게 되었다"며 "1만 6000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의 짐을 나눠 가지고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 다짐했다.

사회복지법인 공덕향은 2000년 11월 설립되어 부산 북구 지역민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부산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북구 복지지역 1만 6000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직업재활에 앞장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모델 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마하사, 자연과 함께 한 산사 음악회

9월 26일, 마하사 경내



부산 천년고찰 마하사(주지 정산 스님)가 부산 최초로 오직 자연의 소리로 진행하는 음악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마하사는 9월 26일 경내에서 '미끈한 음악회-늘'을 개최했다. 음악회는 음향, 조명 등 일체의 기계 장비 없이 진행되어 오직 자연과 하나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사진〉

행사는 △행사 소개 △스님 인사말 △마하사합창단 공연 △첼로연주 △정가(正歌) △피아노 클래식 △첼로 클래식 △그레고리안 성가 △정가 △피아노 첼로 협연 순으로 이어졌다.

정산 스님은 "우리는 공연을 보고 들을 때 기계의 힘을 빌어 나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원래의 풍성한 원음의 맛을 알 수 없다. 오늘 이 행사는 조명 마이크 등 일체의 기계 장비 없이 진행되는 음악회로 고요하게 자연과 하나되고 우주와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음악회다"며 "부산에서 최초로 자연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어 자랑스럽고 아울러 자신 내면의 소리도 함께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聯, 사명 대사 414주기 추모대재

9월 28일, 사명호국광장서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9월 28일 부산 어린이대공원내 사명호국광장에서 사명 대사 열반 제414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추모대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마나 스님, 현장 정사, 신뇨엔 정경 국원 및 부산불교연합회 스님들과 이윤희 불교신도연합회장, 하정선 불교TV염불공양회장,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장 등 내외빈이 함께 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은 "사명 성사님은 왜적의 칼에 죽어가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진에 나아가 백성을 구한 보살마하살이시다"며 "불제자로서 사명 성사님의 동체대비를 실천하여 이 나라와 인류가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대재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부산여성불자회는 이상훈 작가의 책 〈칼을 품고 슬퍼하다〉을 참가 대중에게 법공양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세상을 향기롭게, '우리쌀' 나눔 자비

9월 26일, 범어사서 전달식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이사장 정여 스님)와 NH저축은행(대표이사 오세윤)이 9월 26일 범어사 경내에서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사진〉

이번 자비의 쌀 나눔은 NH저축은행의 청소년 아침밥먹기 및 우리쌀 소비촉진으로 농민과 전국민 건강돌보기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한 쌀은 총 2000kg이다.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는 "좋은 인연의 결과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잘 성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협의 중요 활동과 저희의 나눔이 연결돼 좋은 결실을 맺은게 의미있다. 앞으로도 저희 기관은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단법인 세계불교교황청 World Buddhism Monarchy Corporation

본 세계불교교황청은 전국 시도별 지회본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회본부로 등록되면 사단법인 단체로 법원등기번호가 부여되며 인감 및 등기등본 사용도 가능해져서 사단법인 단체로 독립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세계불교교황청은 세계적인 단체로 세계 각국 불교단체와의 교류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부처님탄생지 룸비니 마하라니사찰을 세계불교교황청본부로 두고 세계불교승가연합재단과 룸비니불교협의회와 매년 세계불교고승대법회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는 미국불교협의회 초청으로 미국 백악관내에서 세계불교도대회를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괌 정부 승인된 캘리포니아 국제대학교와 자매결연으로 경영자과정과 명예박사를 추천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제승가대학을 개설하여 종도들의 자질향상과 교학을 위주로 강론을 하며 범패작법을 시연하여 유익한 공부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회본부 등록시 문의바람. 지회등록 신청서 1매(교황청비치). 종도등록시 문의바람. 입종신청서1매(교황청비치)

사단법인 세계불교교황청

대 법 황	향덕존자님		
교 황 청 장	석능인대승통		
승가회 총재	운붕대종사	회 장	대봉대종사
상 임 고 문	혜암대종사	고 문	영운 청암 효천 혜광 예전
상 임 이 사	국내 가입단체 30개 종단대표		
국외가입단체	네팔 인도 스리랑카 일본 티벳 베트남 대만		
법 인 이 사	석능인 원산 혜현 청명 운봉 대원 정법		
특 임 이 사	인연 도법 봉화 호법 지산 도연 법성 범해		
룸비니평화대사	원산 봉화	룸비니삼장법사	법성
총 괄 본 부 장	청명	대위원	108명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 정 예 하	석능인대승통	사 정 원 장	인연스님	울산종무원장	인연스님
원 로 의 장	성법스님	호 계 원 장	혜현스님	경기종무원장	호산스님
중앙종회의장	무아스님	문 화 원 장	봉화스님	부산종무원장	두현스님
원 로 의 원	범아스님 법장스님	비 구 니 원 장	범해스님	총 무 부 장	도연스님
	효천스님 석담스님	국제승가대학장	법흥법사	재 무 부 장	법혜스님
	법화스님	경북종무원원장	여산스님	포 교 부 장	법성스님
총 무 원 장	원산스님	대구종무원장	도연스님	사 회 부 장	곡담스님
중앙선원장	혜광스님	충청종무원원장	청명스님	호 법 부 장	청명스님
교 육 원 장	상호스님	강원종무원장	지산스님	현 종도 128명	
포 교 원 장	도법스님	경남종무원장	혜현스님		

●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305. 3층 사단법인세계불교교황청 ● 청장실 053)321-5008 ● 팩스 053)321-6008. 010-9619-3900
● 종무실 053)325-0400 ● 팩스 053)325-4848 ●이메일 : buddhasangha@naver.com ● 웹사이트 : www.monarchywbc.com

성주사, 템플스테이체험관 '해행당' 개관

9월 26일 경내에 체험관 개관
"지역주민 힐링소로 거듭나길"

성낙두 경남지사장


성주사 템플스테이체험관 '해행당' 개관식에서 참석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 스님)가 템플스테이체험관 '해행당'의 불사를 마쳐 9월 26일 경내서 개관식을 열었다.

성주사 템플스테이체험관 해행당은 총면적 연건평 492.91㎡(약 150평) 규모로 1층은 약 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대방 1개와 다실, 사무실, 방사 2개, 기타 서비스실이 있으며 전통한옥인 2층은 숙박동으로 특별실 2개, 일반객실 3개, 기타 사무실, 화장실과 서비스실로 구성됐다.

해행당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한국불교 전통 사찰과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수행하는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산사에서 한국문화의 진면목을 느끼고 창원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한다.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문화사업단, 문체부, 경남도, 창원시 등 해행당 건립에 힘써주신 관계기관들에 감사드린다"며 "성주사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여기 와서 마음을 열어놓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열린 도량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사무국장 대우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성주사 템플스테이체험관 개관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1700여 년 한국불교의 참된 가치를 느끼고 지친 심신을 치유함으로써 행복의 길을 걷는 계기를 갖길 바란다"며 "성주사가 템플스테이의 대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사찰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김영주 경제부지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성주사 템플스테이체험관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아픈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소중한 안식처를 제공하게 돼 매우 기쁘다" 며 "앞으로 경남도는 전통 사찰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도 축사에서 "성주사 템플스테이체험관의 개관은 우리 불교와 일반 대중과의 사이를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힐링이 필요한 현대인들과 창원시민들, 경남도민들을 위한 공공재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스님은 템플스테이체험관 시공사인 김용탁 ㈜소요 대표와 ㈜미추홀 건축사 사무소에 감사패를 각각 전달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대우 스님, 불곡사 주지 도홍 스님, 태고종경남종무부원장 성욱 스님, 범어사 총무국장 대방 스님, 은하사 전주지 혜진 스님, 서해문도 원측 스님, 한가람문화재단 원정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김명주 경남 경제부지사,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의장, 홍순영 성산구청장, 이상연 창원불교연합신도회장, 김이순 성주사 신도회장 및 불자들이 참석했다.

가을 오대산, 문화로 물든다

월정사, 10월 11~13일
'2024 오대산문화축전'
강원도 대표 축제 정착

신중일 기자

올 가을 강원도 오대산이 문화로 장엄된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퇴우 정념 스님)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잡은 '2024 오대산문화축전'이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오대산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연결된 온 세상을 위한 기원'을 주제로 기획된 이번 축전은 전통 불교문화와 현대 예술이 공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10월 11일 개막식과 더불어 진행되는 개막공연 '지구를 위한 기도(Prayer for our Earth)'에는 서도밴드와 가수 이은미가 참여해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11일에 펼쳐질 '기원의 탑돌이'는 인류의 평화와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발전, 미래세대를 기원하는 의미 깊은 행사로서 참가자들에게 희망과 힐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대산 승시에서는 전통 먹거리 장터와 플리 마켓, 버스킹 공연 등이 열리며,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축전은 단순한 문화행사에 그치지 않고,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강원트리엔날레 특별전시에서는 생명과 환경을 주제로 한 국내외 작가들의 설치작품을 선보이며, 김부오 작가의 오대산 월정사 20년 사진 특별전도 열려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를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오대산문화축전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행사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그린버스 무료 셔틀을 운행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린다. 셔틀버스는 축전 기간 동안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오대산을 오갈 수 있도록 제공되며, 이와 함께 축전 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적인 운영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축전은 지역 소상공인과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정사는 "이번 축전은 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에게 오대산의 전통문화와 기원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광사, 제20회 금강산림대법회 입재식

9월 29일 경내 사자루서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금강경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은 9월 29일 경내 사자루에서 '제20회 금강산림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는 매년 가을 전국의 대덕스님들을 초청해 금강경에 대한 강좌를 여는 법회다. 올해는 송광사 수좌 현묵 스님 강의를 시작으로 전 율원장 도일 스님(10월 6일),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10월 13일), 송광사 회주 영진 스님(10월 20일), 홍법사 주지 법미 스님(10월 27일), 웅석사 주지 원통 스님(11월 3일),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11월 10일),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11월 17일)이 나서 강의한다.

무자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 여름 더위 속에서도 송광사 대중들은 어렵게 제방에서 정진했다"며 "금강산림대법회 회향 때까지 참석해 불퇴전의 마음으로 정진하자"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동국사, 불·보살 조성불사 회향법회

10월 1일, 경내 대웅전서
3년 걸친 대작불사 회향



국내 유일 일본양식으로 조성된 사찰인 군산 동국사가 3년 여에 걸친 불·보살 조성 대작불사를 회향하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군산 동국사(주지 재안 스님)는 10월 1일 경내 대웅전 아미타불·약사불·관세음보살·문수보살상 봉안식을 비롯해 아미타불·약사불·신중·관세음보살·지장보살 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조계종 어산종장 덕림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점안법회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증명법사로, 신중작법, 삼화상청, 점안의식, 권공, 청법가, 법문, 화엄시식의 불교전통의식으로 진행됐다.

동국사 주지 재안 스님은 인사말에서 "석가여래삼존상 개금 및 감로탱화 점안법회를 시작으로 한 3년 여 간의 불사를 회향하게 됐다"며 "동국사 주지 소임을 맡겨주고 배려해주신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불사에 동참해준 불자, 신도들의 원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법문에서 "처음 불사에 동참할 때의 간절함과 신심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지혜를 얻는 것이 스님들과 불자들이 지녀야할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우 스님은 "점안은 불보살상과 탱화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부처님의 자비공덕이 온 세상에 두루하길 바라는 것"이라며 "새로 모신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동국사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발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해 동림선원, 불모산 가을음악회

9월 28일 경내 특설무대서
"행복한 추억 많이 담아가길"



김해 동림선원(주지 신공 스님)이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제3회 동림 불모산 가을음악회'를 9월 28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사진〉

장지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김종락 기타리스트의 '한자락의 기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참석내빈들의 인사말과 싱어송 라이터 디안, 4인조 밴드 BLSG 밴드 분리수거, 포크가수 안치환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음악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불모산 자락을 배경삼아 아름다운 풍경과 흥겨운 음악을 벗 삼아 단풍이 물들어가는 이 계절에 따뜻한 가을날의 추억을 담았다.

동림선원 주지 신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음악회는 '추억'이라는 주제로 내가 살아온 그림자를 되돌아보고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했다" 며 "많은 분들이 음악회에서 행복한 추억을 많이 담아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70회 백제문화제'서 영산재 봉행

공주시사암 · 공주시불자연
9월 30일 금강 신관공원서



제70회를 맞은 백제문화제에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영가를 천도하는 '영산재'가 봉행됐다.〈사진〉

공주시사암연합회(회장 천산 스님, 갑사 주지)와 공주시불자연합회(회장 이종직)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재'를 9월 30일 공주 신관공원 내 특설무대에서 설행했다. 이번 행사는 '제70회 백제문화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천산 스님은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설법하시던 모습을 상징화해 부처님의 높은 덕을 찬탄하는 의식이자 종합예술"이라며 "이번 영산재를 계기로 모든 것들을 내 몸같이 여기면서 상생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광주불교聯, 성거사지 5층석탑 다례재

9월 26일, 영산재 · 차 공양 등



빛고을 광주를 1000년간 비호한 성거사지5층석탑의 공덕을 찬탄하고 지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다례재가 개최됐다.〈사진〉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9월 26일 광주공원의 성거사지5층석탑에서 '제4회 성거사지5층석탑 다례재 및 광주평안 기원대제'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광주불고연합회장 소운 스님, 남구불교협의회장 동진 스님을 비롯한 지역 사암스님들과 김병내 남구청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성거사지5층석탑이 100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기에 광주의 평안과 행복,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이런 탑이 우리 광주에 있음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직지 역해한 '마음의 노래' 울려퍼지다

9월 24일 청주 고인쇄박물관서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이 음악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왔다.

직지사상연구회(회장 덕산 스님 〈사진〉, 청주 혜은사 주지)가 9월 24일 흥덕사지 일원 청주 고인쇄박물관 마당에서 '직지 마음의 노래, 정신문화 꽃으로 피우다' 음악회를 개최했다.

공연에는 신이나, 현당, 서주경 등 11명의 가수가 직지에 담긴 노래를 부르며 직지의 우수성을 알렸다.

직지 마음의 노래는 △직등 지 △직지는 인류의 꽃 △미움도 성냄도 벗어놓고 △직지 아리랑 등 13곡을 USB에 담아 일반에 공개됐다.

덕산 스님은 "12년간 직지를 강의하며 문자로 알리고 싶었다. 방편으로 직지의 사상을 담아 노래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수진사,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일환



남양주 천마산 수진사는 2024년 12월까지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사진〉 이번 사업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218호 〈조상경〉을 중심으로 불교전통을 대중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또 지역문화 활성화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행복한 꿈을 바라-바라무' '불교 전통무용 공연' '향기로운 불상 조상기' 등이 있다. 이중 '행복한 꿈을 바라-바라무' 프로그램은 불교 전통무용인 바라무를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불교 전통무용 공연은 천수바라무 등 불교전통 의식 공연을 통해 불교문화의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관람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031-591-3364

노덕현 기자

무봉사, '밀양읍성 호국 산사음악회'

밀양출신 의열단 호국충정 기려



밀양 무봉사(주지 천주 스님)는 사명대상의 기일인 9월 28일 밀양읍성 영남루 마당에서 올해로 2회를 맞은 '밀양읍성 호국산사음악회'를 개최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충혼을 기렸다.〈사진〉

무봉사 주지 천주 스님은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병을 이끌어 왜군과 싸우면서 외교관의 역할도 수행했다"며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했던 의열단 13명 중 5명이 밀양출신으로 밀양이 충혼의 고장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중동서 꽃피는 불교, 튀르키예 1세대 불자들

80년대 선불교 전파부터 시작
재가신자 중심 불교승가 구성
명상 중심 활동, 단기 안거 등
"문화에 맞게 각색 · 전파 활동"

박영빈 객원기자


단기 안거를 마친 튀르키예 불교승가 회원들. 사진출처=트리싸이클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인 튀르키예.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온 튀르키예가 불교의 매력에 빠지고 있다. 해외 불교전문 매체 '트리사이클(Tricycle)'은 튀르키예의 1세대 불교도라고 불리는 이들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 문화가 혼합된 튀르키예에 본격적으로 불교가 알려진 것은 80년대부터다. 저명한 작가이자 번역가 귄괴렌(Gungoren)이 선불교에 대한 책을 소개하고 요가, 태극권과 같은 동아시아 정신수련법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귄괴렌의 제자이자 현재 튀르키예 불교승가를 이끄는 켐 센(Cam Sen)은 "불교가 전해지지 않은 모든 나라에서 겪는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튀르키예에 불교는 새로운 사상이기에 앞장설 이가 필요하다"며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튀르키예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센이 이끄는 튀르키예 불교승가는 재가신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3년의 기본교육과정을 거친다. 좌선수행이 중심인 이 단체는 팔리어 경전의 영어 번역본을 터키어로 번역한 초기경전으로 불교를 공부한다. 센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상세히 접근한다"며 "그래서 '깨닫는다' 대신 '마음을 정화한다'는 말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외부 종교에 배타적이고 세속주의 정책이 엄격한 튀르키예 문화 특성상 현재 튀르키예 불교승가는 공식적인 센터나 사찰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기 안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교육과정에 따라 안거의 강도와 시간이 달라진다.

이스탄불에서 불교명상센터를 운영하는 센기즈 외즈칸(Cengiz Özcan) 역시 튀르키예 불교는 재가신자들을 중심으로 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1년 전 이스탄불과 불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튀르키예에 명상센터를 건립했다. 당시 명상 강좌에 참여하는 사람은 불과 한두 명에 그쳤다"고 회상했다. 또한 "튀르키예 사람들은 종교 외에도 일상에서 이슬람의 많은 측면을 마주하면서 불교를 또 다른 종교로 간주하고 공개적인 불자 되기를 꺼린다"며 "불교를 직접 내세우기 보다는 명상에 더욱 집중하는 방식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불자라고 소개한 튀르키예 남성은 "우리는 1세대 튀르키예 불교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튀르키예에 불교를 직접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에 맞게 부처님 가르침을 각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이나 승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승가가 꾸려지고 불법을 배우며 많은 이들이 직접 소통하는 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자부했다.

泰 교육봉사 위장 타종교 선교행위 '물의'

학인스님 대상 영어 교육서
수업 폐강, 태국불교청 보고


강사의 지도에 따라 찬양 자세를 취하는 학인스님들. 사진출처=카오속뉴스

태국의 한 사찰에서 진행한 무료 원어민 영어 강의가 사실은 타종교 선교를 위한 자리였음이 밝혀져 논란이다. 지난 9월 23일 태국 '카오속뉴스(KhaosokNews)'가 공개한 한 사진에서는 스님들이 두 손을 올리며 찬양하는 듯 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카오속뉴스는 사진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다.

태국 앙통 주, 포통지구의 왓 타클롱 사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포통지구 불교지도자 프라 마하토놋 칸타포 스님의 공개 비판으로 알려졌다. 마하토놋 스님은 "왓 타클롱 사원이 운영하는 프라 파리얏티담 학교의 일반교육과정에서 타종교의 선교행위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한 외국인 남성이 영어로 이야기하고 여성이 태국어로 통역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찰의 학인스님들로 구성된 수강생들은 두 사람의 지도에 따라 두 손을 높이 들어 영어로 예수를 찬양하고 있었다.

마하토놋 스님은 "이 사건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스님들의 순수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겉보기에는 학생과 영어초보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돕는 무료 영어교육처럼 보여 학인스님들은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프라 팔랏수라웃 스님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사원 내 학교에서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하겠다고 연락해왔다"고 밝혔다. 사원은 학생과 학인스님들이 원어민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 제안을 수락하고 강좌를 개설했다.

해당 수업을 들은 한 참가자는 "강사라고 자칭하는 외국인과 통역사가 영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학인스님들에게 영어 회화 연습이라며 영어 문장들을 따라 읽게 했다"며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참가자들은 의심 없이 따라 읽었고 그것이 기독교 찬양임은 사건이 일어난 후 알았다"고 증언했다. 수업시간에는 기독교 선교책자도 배포됐다. 참가자는 "위장강사들은 책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언제든 원어민 강사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왓 타클롱 사원은 강좌를 즉시 폐강하고 강사진에게 강의로 위장한 선교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건에 관련된 기관과 태국불교청에 이를 보고했다.

마하토놋 스님은 "이번 사건은 전대미문으로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외부 강사와 교육기관에 대해 불교계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왓 타클롯 사원은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절이 라면 맛집? 日사찰 채식 라면 인기

불교경전 관리비 위해 판매
채식 라면으로 '핫플' 등극


호조인 사원에서 판매 중인 채식 라면. 사진출처=SCMP

350년 된 일본 불교사찰이 '라면 맛집'으로 거듭나 인기를 끌고 있다.

홍콩의 영자매체 'SCMP(South China Morning Post)'는 지난 9월 27일 교토현 동남쪽 호조인이 채식 라면 판매에 나섰음을 알렸다. 1669년 창건된 이 사찰은 최근 6만여 개 경판의 관리·유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호조인의 경판은 일본 고전문헌과 불교경전을 기록한 문화유산이다. 현재 사찰에는 약 6만 여 개의 경판이 보관돼 있고, 그 중 4만1000여개가 일본 정부에 의해 '중요 문화재'로 지정됐다. 경판들은 일본불교의 역사와 철학, 문화 이해의 중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경판들은 60년 넘은 보관실에 쌓여있고, 냉난방 시스템이 없어 곰팡이와 벌레 등 병충해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판 보존 및 유지 비용은 최소 5억엔(한화 약 46억원)부터 최대 10억엔(한화 약 9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호조인의 주지스님은 '요미우리TV(YomiuriTV)'와의 인터뷰에서 "경판의 유지 관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 채단 라면 판매와 같은 창의적 방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문화유산 소유자는 관리 책임이 있다"며 "사찰은 이 고전들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찰은 앞선 2022년 10월부터 매주 목·금·토요일 채식 라면을 판매중이다. 가격은 600엔(한화 약 5500원)으로, 매일 30인분 한정 판매된다. 맛이 훌륭해 조기 소진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교토시 주민 후쿠코(79) 씨는 "내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듯한 라면은 처음이다"고 극찬했다.

주지스님은 "채식 라면 판매가 사찰 운영과 경판 보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불교고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었다"고 기쁨을 전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美 내슈빌 사원 보시금 강도당해

스님 폭행, 보시금 강탈
현지서 강도 5명 수배중


사원 강도의 용의차량 모습. 사진출처=폭스28

미국 내슈빌(Nashville) 지역 경찰이 스님을 폭행하고 내슈빌 사원을 강탈한 강도 5명을 수색중이다.

미국 현지매체 '폭스28(FOX28)'은 10월 1일 보도를 통해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 주의 왓 라오 불교사원에 5명의 강도가 침입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원에서 수행하는 놈 렝사바스 스님은 당일 오전 9시 침입한 강도들이 사원의 보시금을 훔쳤고 스님은 그들에 의해 폭행당했다고 증언했다.

현지경찰은 테네시 주 놀란스빌의 배틀 리지 레인에 버려진 용의 차량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 5명의 강도에게 현상금이 걸려 수배중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송광사 소장 희귀 전적들, 디지털로 만난다

동국대 한국불교문화포털, 9월 30일 일반에 공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송광사 성보박물관, 자료 제공
삼성문화재단서 디지털 촬영해
고려 교장 등 희귀 자료들 확인
韓불교 인쇄문화 연구 중요자료



승보종찰 송광사의 희귀 전적들을 아카이브한 동국대 한국불교문화포털 메인화면.

승보종찰 송광사가 소장한 중요 전적들을 디지털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은 "전남 순천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가 삼성문화재단(이사장 김황식)의 후원을 받아 촬영한 조선시대 간행 목판과 중요 복장전적을 9월 30일 한국불교문화포털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이브 사업은 지난 5월 원적에 든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 당 현봉 대종사의 원력으로 시작했다.

송광사 성보박물관은 △조선시대 목판 70종 △2015년 인출된 인경본 60종 △중요 전적 30점을 제공했고, 삼성문화재단은 1만 7500여 컷에 이르는 고해상도 디지털 촬영을 진행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삼성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해당 자료들의 서지와 해제 작업을 진행했으며, 해당 디지털 촬영 이미지들은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공개됐다.

송광사 목판은 주로 16세기에서 17세기에 판각된 불서로 70종 3900여 판이 전해진다. 내용별로는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의 저술 △간화선 관련 선(禪) 전적 △강원 이력과목과 한자학습 등 승려 교육 전적 △정토·관음·지장 신앙서 및 불교의례서 △부휴선수(1543~1615)를 비롯한 부휴계 적전(嫡傳)의 시문집 등이 있으며, 이는 조선 후기 불서 간행의 특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이 중 1529년에 제작된 〈인천안목〉을 포함해, 6종 2491판은 2016년 보물로 지정됐다.

송광사 중요 전적 30점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주도한 고려 교장(敎藏) 전래본 5점을 비롯한 복장전적들로, 이들 역시 대부분 보물로 지정됐다. 특히 조선 전기 간경도감에서 중수(重修)한 고려 교장본과 전라도 광주목에서 고려 교장을 새로 판각한 조조본(雕造本) 등이 주목된다. 이 같은 자료는 국내외 유일본 및 희귀판본으로, 서지학적 가치는 물론 동아시아 고승들의 문헌과 사상을 연구할 수 있는 불교학 자료로써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송광사는 16세기 말 정유재란, 1842년 대화재, 1950년대 전후 여순 항쟁과 한국전쟁으로 여러 차례 전소됐으나, 조선시대 전래 불서와 목판 대부분 온전히 남아 있다. 이번 송광사 기록유산 아카이브 구축은 고려 재조대장경, 고려 교장, 조선 전기 간경도감 중수본 및 조조본, 조선 후기 사찰 목판 등 한국불교 출판 인쇄 문화의 전통을 면밀히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국내 사찰과 기관이 소장한 불교 고문헌을 조사 및 촬영하는 사업을 진행해 이를 아카이브 서비스로 제공해왔다"면서 "이번 송광사 사업을 통해 조선시대 사찰에서 간행한 불서 목판을 처음으로 아카이브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목판 이미지를 반전해 제공함으로써 경전의 원문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인경한 촬영 이미지를 함께 서비스로 제공해 목판과 비교해 볼 수 있게 했다"며 "이번 아카이브를 통해 조선시대 사찰의 목판 인쇄술을 더욱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이번에 공개하는 송광사 자료를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kabc.dongguk.edu)에도 공개했다.

은해사 원터 고려·조선 사찰 전각지 확인

불교문화유산硏 · 국가유산청
舊址 시굴 현장설명회 개최해
건물지 및 '湧庵'명 기와 출토


영천 은해사 구지에서 확인된 고려~조선 건물지 전경.

영천 은해사 원터로 추정되는 곳에서 고려~조선시대 사찰 건물지와 암자의 이름이 쓰인 명문기와가 발견됐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소장 호암 스님)는 "지난 8월 16일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영천 은해사 구지(舊址) 조사 성과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천 은해사 구지는 신라 헌덕왕 원년(809년) 혜철 국사가 '해안평(海眼坪)'에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은해사의 전신 '해안사(海眼寺)' 터로 알려진 곳이다. '팔공산은해사사적비'에는 1546년 천교화상이 해안평에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 은해사(銀海寺)로 개명하였다고 전해진다.

국가유산청과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2015년 전국 폐사지 현황조사 사업을 통해 이곳에서 다량의 유물과 석축을 확인해 해당 지역에 대규모 산지가람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고, '2024년 중요폐사지에 선정해 올해 7월부터 시굴조사를 실시했다.

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조선시대로 편년되는 건물지와 석축 등이 확인됐으며, 범자문 막새편, 평기와편, 분청사기편, 도기편 등이 출토됐다. 특히, 출토유물 중에는 조선 세종 29년(1447년) 현재 조사지역에 '용암(湧庵)'이라는 암자가 존재하였음을 알려주는 '正統十二年戊辰三月日公山下湧庵' 명 명문기와가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향후 유적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돼 영천 지역과 은해사의 새로운 역사·학술적 자료가 축적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부처님 뒷모습서 진정한 '나'와 마주하다

이해기 작가 '스스로 빛이 되어'展
10월 14일까지 토포하우스 서울서


Looking Myself, 147cm×125cm, 비단에 금, 2019.

부처님 뒷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관객과 소통해온 이해기 작가가 개인전 '스스로 빛이 되어'를 개최한다. 2017년 이후 7년 만의 개인전으로, 2019년 갑작스럽게 닥친 뇌졸중을 이기고 재활 후 새롭게 시작하는 전시하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전시는 서울 토포하우스 제3전시실에서 10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서울 전시를 마친 뒤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는 토포하우스 대구 제1, 2전시실에서 전시를 이어간다.

전시에서는 2007년부터의 작품 일부와 2023년·2024년 신작을 포함해 'Looking myself(나를 만나다)' '노승과 동자' '쿠시나가라 가는 길' 등 25점이 공개된다.

비단에 먹과 금으로 그린 부처님 뒷모습은 종교의 범주를 넘어 각자의 내면의 깊이를 성찰해주도록 돕는다. 특히 그의 작품은 정신세계와 영혼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라는 주체를 참다운 모습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해기 작가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멈춤의 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내가 뒷모습에 집중하는 이유"라며 "부처의 뒷모습에서 앞모습은 상상의 영역이다.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현실적인 시간을 멈추고 다양한 물음표를 던지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 앞모습을 완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베트남 고판화 특별전 개최

개관 21주년 맞아 12월 30일까지
아미타래영도 판목 등 100점 전시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이 개관 21주년을 맞아 베트남 불화·민화를 총망라하는 대표 고판화를 선보인다.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오는 12월 30일까지 관내 전시실에서 '판화로 보는 베트남 불화 그리고 민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물관이 소장한 베트남 불교판화와 민화 판화 400여 점 가운데 100여 점을 엄선해 공개한다.

한선학 관장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불화를 목판화로 많이 찍어 현재까지도 많은 판목이 사찰에 남아 있다. 이에 고판화박물관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베트남 고판화 답사를 진행했다. 하노우 북부, 하노이 후에, 호이안, 호치민 등을 찾아 유명한 목판을 소장한 15개 사찰에서 인경작업을 실시했고, 하노이 수이사 목판연구소와 광남성 화풍사 목판연구소와는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 같은 목판 교류 사업으로 서로가 가진 판목을 활용, 인경한 작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고판화 수집에 박차를 가했다.


천덕사 관음보살도 판화.

전시 1부에는 민중과 함께하는 베트남 불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불화판화를 만나볼 수 있다. 높이 1m의 대형 '아미타래영도 판목'과 천무사 '지장보살 판화', 천덕사 대형 관음보살도 판화 등 다양한 판화를 감상할 수 있다. 불경 그림책인 축성사 '관세음보살 보문품'과 부처님 일대기인 '석씨원류 여래응현도' 베트남 버전도 전시된다.

2부에서는 베트남 민화판화 작품이 펼쳐진다. 베트남 민화판화는 동호, 향쫑, 김황, 낭심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명절을 기념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 종교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민중 속에 자리하며 베트남 전통을 드러내고 있다. 전시에는 50여 점이 소개되며 축복판화, 일상생활 판화, 이야기 판화, 종교판화, 문자 판화, 채색 판화 등 주제를 구분해 전시될 예정이다.

한선학 관장은 "'베트남 불화·민화 특별전'에서는 북방 대승불교의 보편성 속에서 각국으로 발전된 독창성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에서 사라진 불교판화를 베트남 불교 판화에서 찾아내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는 미래 동양 문화 시대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아카이브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10/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6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2	화:마음의불꽃을식히는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7	숫타니파타:불멸의언어(양장)선물용경전	석지현 옮김	민족사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중론:산스끄리뜨게송의문법해설을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4	불멸(1)영원한지금의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9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5	구루빠드마쌈바와기원문(연꽃에서화생한불사의화신불)	중암선혜 역저	금빛소리	10	우리는늘바라는대로이루고있다(선지식의크신사랑)양장본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책세상

방대한 경전 '불경'으로 엮어내다

〈佛經〉



불경(佛經)
중각 이중표 편역
불광출판사/ 7만원

율장, 4부 니까야 등 경전 내용
핵심만을 선별해 정리한 대작
이중표 교수 50년 서원 담겨져
"불교의 중심 불상서 불경으로"



중각 이중표 명예교수는…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정년 후 동 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위촉됐다.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소장, 범한철학회 회장,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 신행 단체인 '붓다나라'를 설립하여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인간 붓다〉〈정선 디가 니까야〉〈담마빠따〉〈근본불교〉〈현대와 불교사상〉 등이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기독교에 성경, 이슬람교에 코란이 있다면 불교에는 '불경(佛經)'이 있습니다."

9월 30일 만난 중각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는 한권으로 묶어낸 〈불경(佛經)〉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초기불교 석학 이중표 교수가 평생의 불교 공부를 집약해 세계 최초로 한글 불경을 번역해 엮어냈다. 불교에는 수많은 경전이 존재하지만, 모든 불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단 하나'의 성전(聖典)은 없었다. 조계종 포교원 등이 간행한 〈불교성전〉이 있지만, 대승경전의 좋은 말씀만을 발췌해 엮다보니 이를 보고 불교의 요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는 게 이중표 명예교수의 설명이다.

이중표 명예교수가 〈불경〉 간행의 원력을 세운 것은 2007년 교환교수로 미국에 방문하면서 부터다. 미국인들이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을 목도했는데, 대부분 달라이 라마나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있었다. 불교경전을 통한 불교 공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본 이중표 교수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귀국과 동시에 실행에 올렸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정선 니까야' 시리즈와 〈인간 붓다〉 등이다. 이중표 교수는 "결국 〈불경〉 한 권을 위해 16년 동안 모든 저작들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1448페이지, 총 7부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율장〉에 근거해 석가모니 붓다가 성불하고, 전법하고, 계율을 제정하고, 교단을 형성한 과정과 붓다 사후 이뤄진 결집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소개한다. 이어서 〈디가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상윳따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 〈숫따니빠따〉 〈담마빠다〉에 담긴 붓다 가르침의 정수를 펼쳐 보인다.

방대한 양의 경전을 한 권으로 압축하는 일만 해도 쉬운 작업이 아니지만,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바로 직관적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불교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봐야 할 책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 봐도 '그렇구나' 하고 완벽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래 붓다의 가르침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실용적이다. 다만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경전을 번역하고 풀이하다 보니 말과 글이 점차 어려워진 것이다.

어찌 보면 〈불경〉은 10대에 불교를 접한 이후 불교 지성인으로 살았던 이중표 명예교수의 발원공력이 한데 담긴 것이기도 하다.

기자간담회에 나온 이중표 명예교수는 삭발염의를 한 상태였다. '중각'이란 법명도 썼다. 젊은 시절 이중표 교수는 조계종으로 출가해 스님으로서 삶을 살았다. 대학 졸업 후 불교학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었지만, 은사스님은 사찰로 돌아와 소임을 볼 것을 권했다. 결국, 이중표 교수는 환속을 선택하고 불교학 연구자이자 교육자로 살았다.

정년퇴임 이후 대중 강연 등을 통해 불교 포교에 힘써오던 중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태고종의 수진 스님에게 출가를 권유받았다. 고민 끝에 수진 스님 문하로 다시 출가했다. 종단에서 진행하는 수계산림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중표 명예교수는 〈불경〉을 활용한 법회·신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용 〈불경〉도 펴낼 계획이다. 노장은 한껏 기대감을 표하며 말했다.

"이제 불교의 중심을 불상(佛像)에서 불경(佛經)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태고종 발행 월간 '불교' '100주년 기념호' 나왔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발행하는 월간지 월간 〈불교〉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아 기념호를 간행했다.

태고종의 월간 〈불교〉는 1924년 일제강점기에 창간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교양종을 표방하며 문서포교를 선도하는 불교 잡지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창간 이후 월간 〈불교〉는 맹목적이고 구태의연한 신앙 행태에 변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잡지에 게재된 교리, 사상, 문학, 어학 등의 내용은 불자들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길잡이가 됐다.

월간 〈불교〉는 일제강점기와 근대 시기에 폭넓은 세계관을 제시해 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세계를 향해 열린 불교 지식인들의 세계관과 해외 유학 경험은 국내의 대중들과 공유됨으로써 한국불교의 수준을 월등하게 성장시키는 역할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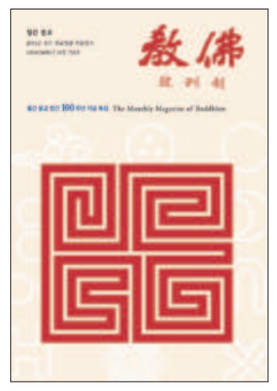
월간 〈불교〉의 창간은 구태에 젖은 불교계를 변화시키고 불교개혁을 염원하던 불자 대중의 갈망을 수용한 결과였다.

월간 〈불교〉의 시대사상과 핵심 가치는 지면에 담긴 시대인식과 한국불교의 동향과 내용이 오늘의 불자 대중과 사회가 바라보는 불교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0주년 기념호(755호)를 발간하면서 권두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월간 〈불교〉는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사상, 교와 선사상, 보살사상에 입각하여 선각자들에 의해 한국불교계와 승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여법한 분석과 통찰에 의해 기획·간행되었습니다. 월간〈불교〉과거 100년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전통성을 간직하며, 미래 100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일심(一心)으로 한국불교와 승가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하여 간행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100주년 특집호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휘호를 비롯한 각계의 축하 메시지와 월간 〈불교〉의 역사성과 가치를 주제로 김종진(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김경집(동국대불교학술원 연구교수), 김성연(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연구초빙교수)의 특집 원고를 싣고 있다.



월간〈불교〉100주년 기념호 표지

1924년 창간, 현재까지 간행
한국불교 시대정신 선도해 와
상진스님 "미래 백년 이을 것"

김종진 교수는 특집 원고에서 〈불교〉지 100년의 성과를, 과거·현재·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는 결호를 온전히 하여 잡지의 보존상태를 보완할 것과 DB구축을 통하여 AI시대의 불교문화 대장경으로서의 자격을 완성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집 교수는 월간 〈불교〉가 100년 동안 걸어온 길은 대중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역할이었음과 대중들이 월간 〈불교〉를 통해 신앙적 방향과 불교문화의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점은 한국 근현대불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성연 교수는 월간 〈불교〉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만해 한용운과 그의 사상의 계승과 대중화를 통해 〈불교〉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만해 정신을 기억할 것을 주장했다.

100주년 기념호의 표지는 창간 100년의 역사를 기리는 의미로 1924년 창간호의 표지를 그대로 인용했다.

태고종은 "월간 〈불교〉100주년 기념호는 월간 〈불교〉가 지난 100년 동안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걸음을 멈추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의 100년도 그 사명을 다할 것을 내외에 천명하는 지난 100년의 결산"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축의 시대』 & 『신의 역사』 저자
세계적인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이 제안하는
'인류 회복 프로젝트'!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의 신자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좋은 인간으로 머무는 것이다."
- 달라이 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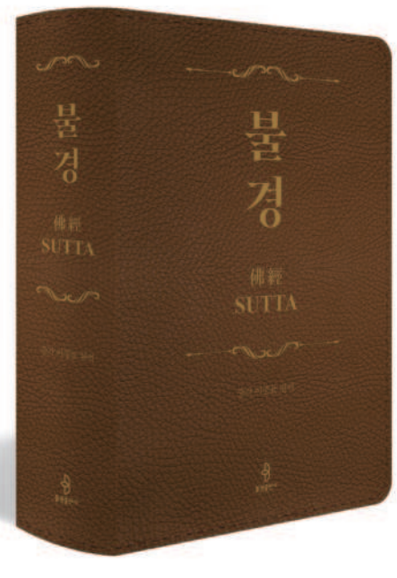
우리의 선한 본성을 일깨워
상처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열두 단계 실천법

상처 주지 않을 결심
이기적 본능을 넘어서는 공감의 힘
카렌 암스트롱 지음 | 권혁 옮김
264쪽 | 20,000원

"기독교에 성경, 이슬람교에 코란이 있다면
불교에는 불경(佛經)이 있다"

붓다의 가르침을 집약한 세계 최초의 한글 불경(佛經)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석학
이중표 교수의 50년 염원이 깃든 역작
'불상(佛像)에서 불경으로',
불교 공부와 수행의 전환을 선언하다!



불경 佛經
중각 이중표 편역
1,448쪽 | 70,000원 | 가죽 양장

출간즉시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종교분야 베스트셀러!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주희 신유학 뿌리엔 '불교' 있었다



주희 철학사상의 불교적 뿌리
존 메이컴 엮음 / 정환희 옮김
운주사 /3만원

주희 철학체계 구축에 끼친 불교 연구
저자 5명의 글 5개 장에 나누어 소개
주희 철학적 성취에 대한 새로운 관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석굴암 본존불. 사진제공=국가유산청

중국 철학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주희는 불교를 맹렬하게 배척하고 비판했다. 그런 주희는 불교의 어떤 점을 비판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단지 '비판'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불교사상을 전유·변용했던 것일까.

신간 〈주희 철학사상의 불교적 뿌리〉는 동아시아 국가와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신유학, 특히 주희의 사상이 상당 부분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힌 획기적인 연구로서 대한불교진흥원이 발간하고 있는 대원불교학술총서 19권이다.

불교나 유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신유학에 미친 불교의 영향'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하지만 이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불교와 유교 두 방면의 방대한 자료들을 연구해야 한다. 따라서 주희가 자신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에 있어 불교의 사상과 철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제대로 탐구되지 않았다.

이 책은 주희가 자신의 철학적 사상에 포함시킨 매우 광범위한 지적 자원들을 조명함으로써, 불교에서 파생된 모델들이 그의 철학적 레퍼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책은 저자 5명의 글을 5개 장에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주희의 철학적 레퍼토리가 명백히 불교적 기원으로 특징지어지는 개념적 구조와 문제들을 포함한다면, 이 사실은 주희의 철학적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 어떠한 함의를 갖는 것일까. 이 책의 저자들은 논문 투고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 질문들을 숙고해야 했다. 이 책의 다섯 가지 연구들은 주희의 철학사상의 불교적 뿌리에 대한 복잡하면서도 풍부한 묘사를 제공한다. 종합적으로 이 책의 저자들은 주희가 자신의 철학사상에 반영한 매우 광범위한 지적 자원들을 조명하며 그 작업을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주희가 철학자로서 성취한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제1장은 주희와 선불교의 여래장에 대한 탐구가 중심이다. 저자 존 위르겐센은 주희와 선불교의 마음론이 동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르겐센은 방대한 전거들을 제공하면서 주희를 유교적 '북종선'이라고 주장한다.

제2장에서 저스틴 티왈드는 주희의 불교 비판에 주목한다. 많은 연구들이 주희의 불교 비판이 피상적이고 부정확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대로라면 불교와 주희 간의 대화는 기껏 허구적이고 표면적인 이해 방식에 매개되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티왈드는 이기심, 구원, 자기수양의 측면에 있어 불교와 주희의 입장 사이에 어떤 근원적인 차이가 존재했는지를 구명한다.

제3장에서 스티븐 앵글은 주희의 지각 인식론과 불교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앵글은 불교가 중국문화에 깊게 뿌리 내렸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희가 사용하는 불교 용어들이 실제로는 유교, 불교, 도교 간의 깊은 상호작용에서 영향을 받은 '공유된 담론'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제4장에서 브룩 지포린은 화엄, 천태, 주희 간의 체용론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장을 통해 독자들은 중국불교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지포린의 탁월한 철학적 논증 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불교와 주희의 일원론과 무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 장에서 존 메이컴은 주희의 일원론 체계가 불교의 일원론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메이컴은 주희의 리-기 개념이 중국불교의 리-사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주희 철학에 있어 불교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몇몇 지점에서 저자들 사이의 균열을 감지할 수 있듯이, 저자들의 입장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개념과 구절을 두고서도 저자들마다 해석이 다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와 균열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번역했다. 그럼으로써 대중은 주희 철학사상에 끼친 불교적 영향을 바라보는 복수의 시각을 경험할 수 있다.

'건강한 관계' 위한 지혜 쌓이면 행복해져



관계에 능숙해지는 법
릭 핸슨 지음 / 김윤종 옮김
불광출판사 / 2만천원

"우리의 기쁨과 슬픔은 대부분 다른 이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완벽한 혼자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관계'란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인간의 기쁨과 슬픔이 비롯된다. 신간 〈관계에 능숙해지는 법〉은 인간관계가 야기하는 고통을 서술하고 이를 극복하는 지혜를 소개한다. 그 고통 역시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수천 건의 과학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메시지를 전한다. 인간관계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는 인간에게는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책은 교활한 직장 동료, 최악의 룸메이트, 멀어지는 연인 등 어렵고 고통스러운 관계를 마주한 대중이 그 관계를 극복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이야기한다. 특히 불교 등의 고전적 지혜와 최근의 과학적 연구, 그리고 저자 자신의 임상 경험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관계에 신선한 생명을 불어넣는 강력하고도 실천 가능한 '연습'을 매 주제마다 소개한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혜가 쌓일수록 대중은 행복해질 수 있다.

책은 먼저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를 일러준다. 이는 타인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갖기 위한 필수 작업으로 '자기 자신을 지지하고, 스스로에게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타인과의 분쟁을 다루는 법'을 소개한다. 인생의 어느 때라도 나타날 수 있는 '도발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 '나 자신을 보호하며, 상대방을 공정하게 받아들이는 방법'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소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할말은 다하고, 들은 말은 충분이 다 듣는 법에 대해 조언한다.

독자는 책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는 자기 내면을 통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된다.

책은 혼자 읽을 수도,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누군가와 함께 읽을 수도 있다. 다만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건 치료 요법이 아니며,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다루기 위한 전문가적 처방을 대체할 수도 없다.

박재완 기자

'가사체 금강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정본 우리말 금강경 -가사체 금강경 해설
조현춘 · 천희완 공저
운주사 / 2만5천원

구마라집본, 한문 5본 범어 2본 등과 비교 · 검토해 〈정본 한문 금강경〉 완성
〈정본 한문 금강경〉을 4 · 4조 가사체로 가사체 만들어진 과정 설명한 해설서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종의 소의경전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부대중이 찾는 한국불교의 대표 경전이다. 그런 만큼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대중은 구마라집본을 가장 많이 애독해 왔다. 하지만 문맥상이나 의미상에서 볼 때, 구마라집본의 한자나 어휘에 의문이 있는 부분이 다수 있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다른 본과의 교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구마라집 한문본 〈금강경〉을 다른 한문 5본(유지본, 진제본, 급다본, 현장본, 의정본), 산스크리트어(범어) 2본, 티베트어본, 몽골어본 등과 비교·검토해 〈정본 한문 금강경〉이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가사체 금강경〉이 쓰여졌다.

한편 〈정본 한문 금강경〉은 구마라집본과 조계종 표준본에서 500여 자를 수정 보완 것으로, 〈금강경〉의 논리 구조와 문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하고 보완했다. 여기에 〈금강경〉 공부와 독송을 수십 년 동안 해온 조현춘 교수와 설명이 필요 없는 대강백 무비 스님이 현대어로 번역하고, 이를 누구나 함께 독송하기 쉽도록 4·4조의 한글 가사체로 다듬어 만들어 낸 것이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가사체 금강경〉이다.

이번 책 〈정본 우리말 금강경-가사체 금강경 해설〉은 이 〈가사체 금강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는지를 소개한다. 즉 9종의 판본을 비교해 완성한 〈정본 한문 금강경〉을 토대로 언어학과 논리학에 맞게 번역하고, 이를 다시 의미가 명확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그리고 다시 독송하기 편한 가사체로 만들어진 과정을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각 단락마다 조계종의 〈표준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번역을 나란히 배치,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어느 번역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부록으로 〈정본 우리말 반야심경〉을 수록했는데, 이 역시 〈정본 우리말 금강경〉과 같이 한문 교감을 통한 정본화, 이를 언어학 논리학에 맞게 번역한 뒤 다시 독송하기 편하게 가사체로 다듬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책은 제1부 '정본화의 과정', 제2부 '우리말 정본화의 구체적 과정', 제3부 '금강경의 기본 논리'를 표시한 가사체 금강경으로 이뤄졌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올바른 번역과 이해하기 쉬운 표현, 독송하기 편한 4·4조 가사체 등이 어우러진 이 책은 불자들의 신행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자

꼭꼭 묻어둔 이야기, 나의 스승 일엽스님

당대 스캔들 메이커 '김일엽'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선사禪師 '일엽'으로!

一葉

1세대 신여성 김일엽.
최초 동아일보 여성 기자, 최초 여성잡지 〈신여자〉 창간, 그리고 자유연애.
스승 만공스님 만나 27년간의 절필과 선수행을 통해 최초 비구니 선사가 된 일엽스님.

승복을 입고 다닌 동국대 최초의 비구니인 월송스님이 밝히는 일엽스님의 비화.
세간의 오해에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스승에 대한 소문 속 진실.
반세기가 지나서야 꼭꼭 묻어둔 이야기를 세상에 꺼낸다.



구술 월송스님, 글 조민기 | 263쪽 | 18,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다름 인정하고 공존하는 지혜 찾아라”

멕시코 유스 프로그램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국의 공식 초청으로 멕시코 누에보 레온주 몬테레이시에서 열리는 ‘제19회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인 멕시코’에 참여한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이 멕시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퇴우 정념 스님은 행사 일환으로 지난 9월 18일(현지시간)에 열린 유스 프로그램에서 ‘마음의 평화(peace of mind)’를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이날 법문의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리=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이 9월 18일 멕시코 누에보 레온주 몬테레이시에서 열린 유스 프로그램에 초청돼 ‘마음의 평화(peace of mind)’를 주제로 법문을 설하고 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오대산 월정사의 퇴우 정념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한국의 오대산 월정사라는 곳은 깊은 산이 있고, 맑은 계곡이 흐르며 곧게 뻗은 전나무 숲길이 자리한 한국 전통의 사찰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서 20세기에 태어난 제가 21세기에 태어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세계의 청년들을 만나는 것은 저와 같은 수행자에게는 매우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역할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의 씨앗(원인)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이라는 열매(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저의 당부는, 함께 마음에 지니고 실천해 나아가야 할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성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다르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환경이 변하고, 세상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대규모 전쟁의 시대는 저물었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요소인 의식주는 더없이 풍부해 보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세계 안에서 우리를 매우 가깝게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입을 것과 살 집이 풍부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인류 모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 국지적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을 피해 자신이 살던 나라를 떠나온 난민들은 새로이 정착한 나라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이름의 ‘증오’를 재생산하는 기폭제가 되어버린 슬픈 현실입니다. 서로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인류애의 가치는 점차 사라져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생태계 역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극곰은 녹아버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며 소중한 생물들이 기후변화로 멸종되고 있습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몇몇 나라들에서는 전통과 질서라는 명분아래 폭력의 관습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야기되는 ‘디지털 소외’의 문제입니다. 스마트 폰이 주는 일상의 편리함은 매우 크지만, 인터넷 보급이 저조한 나라들이나 전쟁 중인 국가의 경우 동일한 정보나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정보와 교육은 곧 경제적 생산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인구로 활동하는 시기에 이러한 정보의 편차에 따르는 소외현상은 경제력 격차로 이어집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풍부해 보이는 의식주가 온 인류에게 좋은 방식으로 분배되지 못하는 사회적 구조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여기 더하여 이 모든 과정들은 나와 내 주변의 가까운 관계의 소수를 제외한 다른 이들을 경쟁자로 의식하게 합니다. 자본주의 세계 안에서 ‘함께 공존’하기 위한 가치관은 생겨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의 생존과 안녕이 다른 누군가의 패배이거나 착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구조는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연대의식의 끈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혜택을 누리는 여러분들 역시 포장된 이미지들과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어,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불어 ‘진정한 관계’가 아닌 디지털 관계[온라인 만남]에 편향되는 관계를 맺기 쉽습니다. ‘우정’과 ‘신뢰’ 그리고 ‘협력’이라는 감정은 디지털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지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의 바람을 타려면,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식(spirit of mutual coexistence)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주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기의 질서 속에서 상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겠습니다.

> “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 나를 구하고, 친구를 구하고,
> 세상을 구할 수 있는 힘이
> 생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이는 불교서 말하는 자비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우주적 관계의 회복’은 마음의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간적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 가능해진다면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갈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할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적 관계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단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지요. 자아의식이 굳건한 사람은 평화로운 마음을 바탕으로 나 자신의 평화를 세계로 확장시켜 나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구의 앞날을 지키고, 인류 공동체를 지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통한 마음의 평화를 다지는 것입니다. 불교 전통의 가르침에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비심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자리이타(Benefit oneself and others, Altruistic Self-intere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소중한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정의 내릴 수 없는 여러분 각자가 지닌 고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SNS 안에 보이는 타인의 화려한 모습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의식을 가지기 쉬운 나이입니다. 수많은 상업광고들과 TV시리즈들 역시 자아의식을 위협하는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소중한 자신을 포장된 이미지들과 비교하는 것은 건강한 자아상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친구들이나 가족 같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의하는 내가 아닌,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언제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려는 의지와 힘은 내 주변 그리고 함께하는 삶에 대한 상생의식의 토대가 되어 줍니다. 마음의 평화는 ‘나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나를 구하고, 친구를 구하고, 세상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입니다. 이러한 자비심, 곧 선한 마음만이 21세기를 이끌어 갈 여러분과 20세기의 우리 장년들이 함께 평화롭게 지구별에 공존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월정사에서는 화엄선이라는 사상을 연구하고 있는데, 화엄선 사상의 근간이 되는 화엄경이라는 경전의 입법계품에는 자비심에 대한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초기의 경전인 〈법구경(Dhammapada)〉에는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안락하라.”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평화의 상생의식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마음의 속성은 홀로 방안에 우두커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감싸고도 남을 만큼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의식이 없는 마음의 평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속한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불교 전통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려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더욱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지금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말이지요. 살아 숨 쉬는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친구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자비의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디딤돌로 삼아 나를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우리(We, Human)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신과 종교적 가르침을 믿거나 피부색이 다르다 해도 괜찮습니다. 같은 집단 안에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생김새가 다른 동료가 있다 해도 함께 밥을 먹고, 업무를 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이슬람교·유대교·불교 등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우리는 공통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자’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함께 지구별을 살기 좋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인 자비심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모이신 소중한 여러분은 세상의 일부이자 전부입니다. 모두 함께 우리 자신과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마음의 힘을 길러 나아가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한 등불이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쉽고 재미있게, 염불명상 A에서 Z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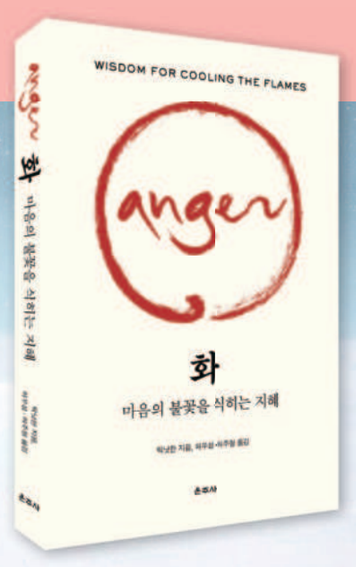
염불명상이란 무엇인가? 염불명상을 왜 하는가? 염불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염불명상의 개념, 원리와 종류, 실천방법, 그리고 다양한 활용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 입문서 겸 실천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192쪽/값 20,000원

틱낫한 스님의 『화』, 20여년 만에 온전하게 번역되다!

원서에 충실한 정확한 번역으로 비로소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접하게 되었다!

『화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anger



화, 절망, 좌절감 등에서 벗어나 나와 상대가 행복해지는 가르침!

‘화’의 본성을 이해하고 ‘화’에서 자유로워져야 행복할 수 있다.
‘화’는 우리가 내쳐야 할 대상도,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도 아니다.
‘화’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돌보아야 할 대상이다.

우리의 고통과 불행의 주요 원인은 외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화의 씨앗’이다. 그러므로 화를 발산할 것이 아니라, 마음챙김 수행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안아주고 미소를 보내면 된다.

틱낫한 지음, 허우성 · 허주형 옮김/국판변형/252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조선시대 불사, '화주' 비구니스님이 이끌다

주목! 이 논문

조선시대 불화 화기에 나타난 비구니 명단과 활동


공주 마곡사 전경. 불화 화기에 기재된 니승(尼僧) 명단 DB을 살펴본 결과 마곡사에서 활동한 비구니스님이 가장 많았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 불화 화기에 기재된 니승(尼僧) 명단 DB를 토대로 전국에 분포한 비구니사찰을 분석한 연구이다.

조선 비구니사찰의 분포와 비구니의 활동은 오늘날 한국 비구니승가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조선시대 비구니 연구는 불교사, 미술사, 문학사, 여성사 영역에서 수십년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왕실 출신 비구니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 그쳤고, 일반 비구니 연구는 매우 단편적으로 진행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조선시대 비구니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사지에 실린 비구니 명단을 토대로 한 연구들이 일부 발표되었다.

본고에서 니승 명단을 수집하기 위해 참조한 자료는 〈한국의 불화 화기집〉〈한국의 사찰문화재〉〈조선시대 기록문화재 자료집〉〈강화 사찰 문헌자료의 조사연구〉 등이다.

화기상의 니승 분포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1392~1945)에 제작된 불화 화기에 기재된 니승의 법명은 총 1507건이다. 그 중 조선시대에 활동한 니승의 명단은 총 758건이고, 일제강점기는 732건, 조선~근대에 제작된 것은 확실하나 정확한 제작 연대가 불분명한 것은 17건이다. 조선시대 불화 가운데 니승의 명단이 기재된 불화는 총 211점이다. 조선시대 니승 758명 중 사미니(沙彌尼)는 21명, 행녀(行女)는 2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구니(比丘尼, 比邱尼) 또는 니(尼), 니승(尼僧)으로 표기되었다. 758명 가운데 중복명을 제외하면 총 619명의 니승 활동이 확인되었다.

15세기 불화에서는 니승의 명단이 1건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16세기는 4명, 17세기는 0명, 18세기 43명, 19세기 472명, 20세기 초(~1910)는 239명으로 조사되었다. 16세기의 니승 명단은 모두 일본에 소장된 불화에서 확인되었다. 일본 지은원(知恩院), 청산문고(青山文庫), 여래사(如來寺)등에 소장된 이 불화들은 모두 조선 왕실의 후원으로 제작된 것이다. 청산문고에 소장된 '서방구품용선접인회도(西方九品龍船接引會圖)'에는 혜원(慧圓)과 혜월(慧月) 두 비구니의 법명이 기재돼 있는데, 이 중 혜원은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의 부인 신씨가 출가한 후 받은 법명이다. 신씨는 비구니가 된 이후에도 외명부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특정 사찰이 아닌 광평대군방에서 살았으며, 광평대군묘 부근에 있는 암자를 오가며 수행 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광평대군 부인을 포함해 16세기 비구니들은 모두 소속 사찰이 기재되지 않은 채 법명만 기재되어 정확한 활동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 조선 전기 내·외명부에 소속된 왕실여성들은 출가한 이후 사찰로 들어가는 대신 자신들의 궁을 불당으로 개조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소속 사찰을 특정하기 힘들다.

국내에 남아있는 불화에서는 18세기 이전에 활동한 니승의 명단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국내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불화가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18세기의 니승 명단은 경북, 경남, 전남, 충남, 충북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확인되지만 그 수는 43명에 불과하다. 이 시기에 제작된 불화 중에도 현전하는 것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니승 명단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집중돼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274명, 충청도 242명, 경상도 176명, 전라도 45명, 강원도 7명, 함경도 1명, 미상 13명으로 조사됐다. 서울 경기 중에서는 한양 도성 근방, 충청도 지역에서는 태화산과 계룡산 인근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구니들의 활동이 확인되었다.

화기에 나타난 비구니 사찰 특징

불화의 화기에 나타난 비구니들의 활동은 시기적으로는 19세기,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 충청도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는 화기가 갖고 있는 사료적 한계 때문인데, 불화는 화재 등의 외부 요인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전란의 피해가 극심했던 시대나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로 인해 전통적인 비구니 수행처로 전해지는 금강산과 오대산, 보개산 지역의 비구니 활동은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불화는 종이나 비단에 그려져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세가 계속 유지되어야 불화가 제대로 보전될 수 있고, 불화가 도난 될 경우 화기 부분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제작 연대가 높은 불화들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화기상 비구니들의 활동은 18세기 이후에서야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조선 불화 화기 니승 명단 분석
확인되는 니승 명단 총 1507건
대부분 19~20세기 초에 집중돼
화기 살펴보니 '화주' 역할 맡아

화기 상에 나타나는 비구니사찰 또는 암자는 서울·경기와 충청도 지역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서는 도성 밖 4승방으로 불리던 청량사, 청룡사, 보문동 미타사, 보문사, 옥수동 미타사 등이 오늘날까지 비구니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경기에서는 강화도 지역에서 비구니 활동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충청도에서는 특히 마곡사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구니들의 활동이 확인되었고, 경상도에서는 해인사에서 가장 많은 비구니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사찰별로 살펴보면 마곡사에서 활동한 니승이 1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옥수동 미타사가 109명, 합천 해인사 63명, 청주 안심사 28명, 강화 청련사 23명, 정수사 23명, 보은 법주사 21명, 강화 원통사 19명, 공주 동학사 18명, 문경 대승사 17명 순으로 나타났다.

화기상에서 큰 규모의 비구니승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찰들의 공통점은 전란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곡사와 해인사는 6·25한국전쟁 당시에 큰 피해를 입지 않은 대표적인 사찰이다. 그로 인해 다수의 성보문화재가 보전되었고 불화의 화기 또한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었다.

전국 31개 비구니 사암 분포

조선시대 불화 화기상 비구니의 활동이 확인되는 사찰은 총 79곳이고, 비구니의 독립 사암 또는 비구니의 상주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암은 31곳이다.

화기를 비롯한 조선시대 사료상에 드러나는 비구니의 거주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비구니들만 거주하는 사찰에서 주지부터 말단 소임까지 모두 비구니가 맡는 독립사찰인 경우가 있고, 비구 중심의 사찰에서 산내암자 내지 말사의 형태로 비구니의 독립공간이 운영되는 경우이다. 비구니 독립사찰은 주로 대도시 주변에서 확인된다. 조선시대 도성밖 4승방으로 알려져 있는 청룡사, 청량사, 옥수동 미타사, 보문동 미타사, 보문사 등은 모두 비구니의 독립사찰로 운영되었다. 지방의 사찰들은 대부분 큰 사찰의 산내암자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삼남 지방에서도 가장 많은 비구니들이 확인된 사찰은 공주 마곡사, 합천 해인사인데 마곡사 청련암과 해인사 약수암에 소속된 비구니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즉 도심과 가까울수록 비구니들이 독립사찰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지방에서도 심산유곡에 위치한 사찰일수록 비구니와 비구가 공동 거주를 하거나 산내암자에서 독립 공간을 마련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 화기상에서 비구니들의 독립암자 혹은 독립사찰로 확인된 곳은 오늘날까지도 대부분 비구니사암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비구니승가의 전통이 단절되지 않고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비구니들의 적극적인 성보문화재 보호 및 관리로 인해 이들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화주 역할이 크게 부각

화기에 실린 니승들의 직책은 공사(供司) 12명, 공양주(供養主) 2명, 다각(茶角) 7명, 도감(都監) 29명, 별좌(別座) 24명, 별공(別供) 40명, 봉다(奉茶) 2명, 삼강(三綱) 1명, 인권(引勸) 8명, 정통(淨桶) 3명, 종두(鐘頭) 2명, 지전(持殿) 3명, 화주(化主) 167명이고 나머지는 시주로 참여하였다.

니승들이 맡은 소임 중 시주를 제외하고는 화주가 가장 많았고, 비구 사찰에서 비구니 1명이 화주를 단독으로 맡거나 혹은 2명이 도맡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조선시대 사찰 경제에 있어서 비구니 화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내용은 불화의 화기뿐만 아니라 중창기 등의 여타 사료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는데, 불사를 진행할 때 일반민 특히 여성신자들에게 불사 동참을 청하는 인권(引勸)으로서 비구니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려준다.

공사나 도감의 역할을 비구니가 맡는 경우는 대부분 비구니 독립사찰에 한정되었다. 도감은 불사 비용의 출입 관리뿐만 아니라 불사에 소요되는 건축자재, 노동력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체로 비구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서울 근교나 강화도에 위치한 사찰에서는 비구니들이 자급자족을 하거나 불사의 주요 소임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사나 지전, 도감 같은 실무직까지 모두 니승들이 담당했다.

비구니들은 소속 사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폭넓게 화주 또는 시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주사, 동학사 등에서 활동하던 비구니 경기 남부 지역(안성)이나 경북 서부 지역(예천)의 불사에 참여하였고, 서울 지역 비구니들은 서울의 대형 불사뿐만 아니라 금강산의 불사에 대거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강화도 지역의 비구니들은 강화도 내에서 전등사와 같은 대찰의 불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그 지역의 대화주 혹은 대시주로 꼽히던 비구니들이 인근 지역의 불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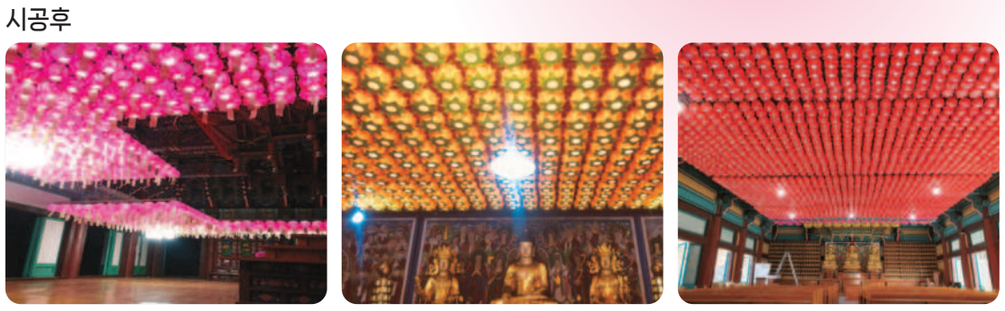


탁효정
순천대 학술연구교수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설치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비연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칼라연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⑲ 전북 고창 선운산 지장도량 삼사 순례

▶한줄 요약
지장보살은 지옥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함께하는 보살이다. 삶에 지장이 있을 때 지장보살을 찾으시라. 물론 그전에 지난 잘못을 반성하는 참회가 우선이다.



미륵불 오시기 전 중생제도하는 지장보살



참당암 지장전 석조지장보살좌상.



참당암 전경. 참당암은 지장보살을 모신 법당이 둘이다.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 금동지장보살좌상.

삼사 순례는 세 곳의 사찰을 순례하며 신심과 공덕을 키우는, 사찰의 중요한 행사다. 100일 기도, 49일 기도 등을 끝내고 마무리하는 행사로 삼사 순례를 진행하거나, 주제를 정하여 삼사 순례 자체를 하나의 큰 행사로 진행하거나 한다. 만일 지장(地藏) 신앙과 관련하여 삼사 순례를 하고자 한다면, 전북 고창 선운산(도솔산)에 자리한 도량인 선운사, 참당암, 도솔암을 연결하는 삼사 순례를 권하고 싶다. 세 곳 모두 대형 버스로도 갈 수 있으며, 도보로는 선운사에서 출발하여 다시 선운사로 돌아오기까지 걷는 시간만 대략 3시간 내외다.

선운사 지장보궁의 금동지장보살, 참당암 지장전의 석조지장보살,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의 금동지장보살은 선운산 지장 삼장(三藏)이라 불린다. 삼장은 천장(天藏)보살, 지지(持地)보살, 지장(地藏)보살이다. 천지인(天地人) 사상에 의거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신앙이라 한다.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에는 하늘 중생을 교화하는 천장보살, 참당암 지장전에는 지상세계를 보살피는 지지보살, 선운사 지장보궁에는 전생의 잘못을 참회하여 지옥의 고통을 면하게 도움을 주는 지장보살을 모셨다.

현재 세 보살상 모두 보물로 지정되었다. 대부분 보살상은 보관을 쓰고 있다. 그런데 지장보살상은 삭발한 모습이거나 두건을 두른 모습이다. 이 세 곳의 지장보살은 모두 두건을 두르고 있다. 두건을 쓴 지장보살은 고창 선운사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지장 신앙을 잘 전해준다. 특히 그림이 아닌 불상으로 안치된 점이 매우 특징인 점에서 지장 도상(圖像) 연구에 귀중한 사례다. 지장보살이 삭발한 모습은 〈지장경〉에 의거하며, 두건을 쓴 모습은 중국 〈환혼기(還魂記)〉에 있는 이야기 때문이다.

옛날 중국에 도명 스님이 있었다. 그런데 동명이인이 있어 저승사자의 착오로 명부에 갔다가 다시 세상에 살아 내려왔다. 이 스님이 저승에 가서 지장보살의 모습을 보니, 지장보살은 두건을 쓰고 영락을 두르고 석장(錫杖)(지팡이)을 들고 보배 연꽃을 밟고 사자를 데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후 법당에 두건을 쓴 지장보살이 등장하였다.

한편 세 사찰의 지장보살이 계신 법당 현판은 제각각이다. 보통 지장보살을 모신 전각은 명부전 또는 지장전이다. 그런데 지난 선운사 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운사는 부처님 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처럼 전(殿)보다 격을 높인 지장보궁이다. 그리고 참당암은 지장전이고, 도솔암은 도솔천 내원궁이다. 그 사연은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지장보살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보살

참당암(懺堂庵)은 선운사와 도솔암의 유명세에 밀려 그렇게 순례자의 발길이 많지는 않다. 세 곳 모두 순례하려니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한번 발길을 하면 다시 가보게 되는 사찰이 바로 참당암이다. 선운사에서 도솔암 가는 길 중간쯤 오른쪽으로 난 길을 올라가면, 선운산 깊은 곳에 넉넉한 터가 나타난다. 황량하게 넓지도 않고, 그렇다고 답답하게 좁지도 않다. 참으로 넉넉한 터다. 그 터에 여러 전각이 있다. 대웅전, 응진전·명부전, 지장전, 산신당, 요사채 등이다.

참당암은 지장보살을 모신 법당이 둘이다. 각각 지장전, 명부전 현판이 걸려 있다.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시왕이 있고, 명부전 뒤 별도의 지장전에는 석조지장보살이 있다. 지장전은 한때 약사전, 석조지장보살은 약사여래였다. 병을 낫게 해준다는 소문이 많이 났다. 약사여래처럼 손에 약함을 들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전에 따르면, 지장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부처님으로도 나타나니, 잘못 보았다고 할 것도 없다. 여하튼 이 석조불상은 1973년 '선운사 약사여래불상'이라는 명칭으로 전북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다가 2019년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보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약사전은 지장전이 되었다. 참당암에 명부전과 지장전이 각각 있는 이유다.

선운사 · 참당암 · 도솔암
두건 두른 지장보살 눈길
모든 중생 제도 발원 올려

참당암은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닌 암자다. 본래 이름은 참당사 또는 대참사(大懺寺)였다. 선운사 암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다. 그래서 창건 이야기를 선운사와 공유하기도 한다. 그 창건 이야기가 재미있다. 지금 선운산은 저 너머에 논밭이 펼쳐져 있어 내륙에 속하는 편이지만, 그 당시에는 산 너머 아래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산 아래의 포구에 범음을 울리며 돌배가 다가왔다. 사람들이 끌어올리려 했으나 배는 자꾸 바다 쪽으로 떠나갔다. 의운 선사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바닷가로 가니 배가 저절로 다가왔다. 배 안에는 금인(金人)이 나타나 여러 불상과 경전 등을 전해주었다. 스님은 금인과 함께 절을 세울 곳을 찾았으나 적당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날 밤 스님 꿈에 우전국(인도) 왕이 나타났다. "저는 불경과 불상을 모신 성지를 찾기 위하여 해동의 여러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이곳 선운산에 대참(大懺)의 기가 있고 절을 세울 신령스러운 서기가 하늘에 뻗쳐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곳에 절을 지어 불경과 불상을 모셔 주시길 바랍니다." 대사는 마침내 산 가운데 터를 잡고 절을 창건하였다.

이 이야기는 조금씩 각색되어 선운사 창건 이야기로 전해지기도 한다. 이때에는 의운 선사가 아니라 검단 선사가 등장하고, 꿈이 아니라 금인에게 받은 편지로 된다. "이 배는 우전국(인도)에서 왔으며 배 안의 부처님을 인연 있는 곳에 모시면 길이 중생을 제도 이익케 하리라." 전해지기를, 선운사는 검단 선사가 577년(백제 위덕왕 24년)에 창건하였고, 참당암은 의운 선사가 581년(위덕왕 28년) 창건하였다.

미륵불 오시기 전까지 중생 제도하는 지장보살

도솔암은 선운사와 함께 창건되었다. 도솔암이라는 이름은 미륵 신앙과 관련이 있다. 미래에 오실 미륵부처님은 현재 미륵보살로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설법하고 있다. 불교에는 여러 하늘이 있다.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등이며, 각각에 또 여러 하늘이 있다. 도솔천은 욕계 6천(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낙변화천, 타화자재천) 가운데 네 번째 하늘이다. 그 도솔천 가운데 내원궁이 있다.

도솔암에는 '도솔천 내원궁'이라는 현판이 걸린 법당이 있다. 그런데 그곳에 미륵보살이 아닌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다. 왜 도솔암의 도솔천 내원궁에는 지장보살을 모셨을까? 한때 미륵보살을 모셨다가 폐허가 된 후, 불사를 다시 하여 지장보살을 모셨는데, 이름은 그대로 '도솔천 내원궁'으로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지장경〉에 그 나름의 근거가 있다. 〈지장경〉에 의하면, 석가모니부처님은 지장보살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미륵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까지 그대가 중생들을 제도하도록 하라." 이에 지장보살은 발원하였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미륵보살이 성불할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케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에는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지장보살을 '지옥 중생이 한 중생이라도 남아 있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발원한 보살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장경〉에 의하면, 지옥 중생만이 아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발원하였다. 또 〈지장경〉에 있는 저승과 지옥, 망자를 위한 기도 등의 내용으로 내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또한 그것만이 아니다. 지장보살은 석가모니부처님이 입멸하신 뒤 미륵부처님이 출현하실 때까지 이 땅의 중생을 제도할 보살이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부처님 공백기' 동안의 부처님 권한 대행이다. 혹은 담임이 잠시 없는 학급의 임시 담임이랄까.

따라서 지장보살은 지옥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함께하는 보살이다. 삶에 지장이 있을 때 지장보살을 찾으시라. 물론 그전에 지난 잘못을 반성하는 참회가 우선이다. 혹 지장보살을 친견하였다면 빨리 소원 서류를 작성하고 지장보살의 지장을 받으시라. 워낙 바쁜 분이라 혹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불교학자〉

1994~2024 창간 30주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불교언론발전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2024년 10월 15일 창간 30주년을 맞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4년 10월 16일 창간 특집호를 준비하오니 두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충청지사	010-8341-0560	유재상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02호 | A15 | 전면광고

선지식의 말을 떠나지 마라.
선지식은 그대를 인도하여 험난하지 않고
편안한 곳에 이르게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 대지 110평
- 법당 : 25평 요사 60. 주차가
- 매가 : 10억

- 위치 : 서울 대지 : 200평
- 법당 : 60평 외 요사 : 60평 외
- 매가 : 35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 채무채권 상담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멋진사찰(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1억 9000만원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확 낮춰서 올립니다.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동김해ic서 5분 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대출 8000만원 끼고 6억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1000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포교당(급) 안내

- 위치:경북 청도군 소재
- 대구 1시간, 경산 팔공산 갓바위 30분 거리
- 경치좋고 물좋은 곳으로 고찰이 많은 불자동네
- 5분 거리내 대형마트 3곳
- 법당 · 주방 · 방2 · 화장실2 실평수 약 45평
- 비품시설:1500만원, 보증금 500/40
- 사주 방편으로 포교 하실 분

010-7942-9015

사찰(급)안내

- 동해안 (영덕)
- 임법당, 손 볼곳없는 깔끔한 도량
- 올대지 326평, 건물 40평 두채, 등기있음
- 법당 15평, 공양간 20평, 방사 5개 큰창고 2개, 목욕탕 3개, 야외화장실 2
- 노천 지장입불, 산신노천석불, 용궁
- 즉시법회 가능
- 1억 4500만원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치: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도심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1동 678-3 동진상가 반지하
- 규모 : 60평 이상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 삼존불 탱화 등 불구, 집기 일체
- 시설비 절충

010-6274-0828

사찰 전세

- 위치:부산
- 사찰대지 250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 연수익금 7000만원, 주차시설 10대
- 전세금 2억원

010-4561-6368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 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 위치:가야산 아래 백운동 60평
- 1가구 2주택 해당 안되는 공기가 매우청정한 토굴
- 거실, 방2, 화1 군불넣는 잘지어진 황토방1
- 가액:6900만원

010-4894-5827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찰(급)안내

- 위치: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포 교 원 안 내

- 지역:부산 구포재래시장 신협옆
- 상가:2층건물50평 옥상포함(단독)
- 법당:삼존불, 지장, 신중, 칠성, 영단, 장엄불상200불, 법당범종, 좌대법고
- 시설:친견실, 편백객실, 공양간, 수련장
- 주차:1층(포함) 유료 주차장운영
- 전세:2천/50 시설:3천5백 (1.2층포함)

납자 10년째 수행 중이나 사고로 인해 부득이 양도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도심 속 산사에서 법다운 법 전하는 수행납자를 기다립니다.

010-4535-2568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5분
- 법당 약 23평, 단청필
- 요사체, 친견실, 산신각 각 1동
- 주차장:넓음
- 가액:3억

010-5550-9725
010-4001-8476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1,700평(법당,산신각,요사채,화장실,주차장 등)
- 가 액: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74-9301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사천시 새고개2길 47 (삼천포)
- 대지:265평 (법당20평 정동향)
- 요사:30평 (방3, 화장실2, 정남향)
- 특징:70년샘물, 진주남강수도 겸용 대형e마트 도보3분 위치 30대주차가능. 마당까지 진입
- 가액:2억4천(地價만 계산했음)

010-8868-7017

사 찰 안 내

- 위치:익산 황등 장원사
- 규모:법당 20평, 요사채 50평, 방4 거실2, 산신각 5평
- 외부:5층탑, 미륵불, 약사불, 용탑
- 대지:종교부지 300평, 전700평 (캠코) 총1000평
- 가액:1억 5000만원

010-9288-6889

사 찰 안 내

사찰 최적 한옥

- 위치:합천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해인사ic서 15분 거리
- 대지:158평(실평수 훨씬 많음)
- 건물:한옥(목조) 25평+황토방 별도 5평
- 가액:협의 후 결정

뒤에 산이며 마을 끝부분으로 조용하고 사찰지로서 최적지

010-3824-0846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국내외 자비봉사단. 육법공양단. 불교 합창단

생활불교 실천에 잠시의 여유를 갖고 그늘진 곳 중생들에게
힘이되어줄 인간방생 중생구제에 앞장 설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을 모십니다.

02-733-5665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차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shy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스님! 나이가 들어가면 염불이
조금씩 힘이 들지요! ..... 이제 2m 떨어져서 작은 염불 소리에도

법당을 감돌고 휘도는 소리가 스님의 귀에 울려 퍼짐으로 염불이 신명 넘치는 마이크를 지금 소개합니다.

방문 마이크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 이태리 성악전문 수입품(Schoeps Martin)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79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79만원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502호 | A16 | 전면광고

명상에서 지혜가 생긴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워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교의식(행사대행)

49재, 천도재, 예수재, 점안식 (법문, 바라, 나비무, 법고무)

초대해 주시면 불사 행사 성취에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암당 덕평
010-6219-4757

기문둔갑 수강 모집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 운세를 알 수 있는 것. 첫째 학생 진로 결정시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판검사, 의사, 사업가 등의 사주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문제, 부부관계, 병고 향방을 알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스님 및 일반인 수강 가능
스님이 직접 강의합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010-3544-9777



개인들운명은 99% 정해져있다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함께 하실 공양주 모십니다

함께 일할 거사님 모십니다

함께 수행할 행자님 모십니다

부산 만덕사

051-334-3009
010-3840-4355

수행하며 오래도록 절에 계실 분 공양주를 모십니다

경북 예천 용화사

010-6529-200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비구 ·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위치 : 경북 성주군

010-6263-2425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건강선물로 좋습니다

『산사품』 명품 토종꿀

『산사품』 토종꿀은 충북 괴산의 낙영산과 보개산의 사찰주변 청정산중에서 채밀.
『산사품』 토종꿀은 1년에 1회 채밀합니다.
『산사품』은 『산사 품은 명품꿀』이라는 뜻으로 『산사품 한봉원』의 브랜드입니다.



산사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사찰불사 및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사에만 전액 사용됩니다.

산사품 드시고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속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전국무료배송
- 2024년 8월 26일부터 배송가능합니다. 선착순 사전 예약 받습니다.
- 주 문 : 043) 297-2514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길 74

"영가장애(빙의) · 신기운 장애로 고통 받는 모든 분들이 신심, 발심하여 좋은 인연 맺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여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여 행복해 지시길 간절히 발원드립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 해결법] 전화상담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① 빙의, 신기운 체크
일단 몸 안에 어떤 기운이 악영향을 미치는지 체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② 그 기운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지? 노력하도록 방법을 일러드리고 스스로 노력해보고 도저히 안되었을 때 개입하여 문제해결로 접근함.

③ 문제해결 방법은 몸속에 영향 미치는 기운 확인, 체크후 환자로부터 몸 밖으로 분리, 차단하여 천도시킴.

※ 대부분 효과가 없는 것은 환자로부터 분리, 차단 하지않고/ 몸 밖에서만 굿이나, 천도재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리 없음.

④ 빙의,신기운에 가장 효과적인 '금강경'을 독송하게 하거나, 듣게하고, 효과적인 '기도문'을 실행 하도록하여, 스스로 방어함과 힘을 기르게 하고 원격으로 빙의 기운을 체크, 차단시켜 드림.(최고 전문가만 가능)

⑤ 천도재 법사스님이 정법(正法)에 대한 큰 법력(法力)을 갖추어야 빙의, 신기운을 천도, 다스릴 수 있으며, 빙의, 신기운도 법사스님께나, 환자당사자, 가족에게도 감사해하고 고마워해야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 퇴마가 아닙니다. 강제적 퇴마는 좋은 방법이 아니며 또 다른 원결이됩니다!

⑥ 많은 천도 경험으로 알게된 것은 과거, 전생에 자신이 지은 악업(주로 살생업), 선대조상들께서 지은 업연(業緣), 악연(惡緣)이 그 빚갚음, 앙갚음을 위해서,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냥 오는 것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에 따라 오는것이니, 달게 받아들이고 참회하고, 금강경독송하고, 천도정성의 복을 지어 드려야, 그 고(苦)가 풀려 난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⑦ 금강경 독송 정진과 참회정진, 천도재 정성드림, 미륵존여래불 정진으로 해결 못할 난제는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좋은 인연 맺어 보십시오!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신기운천도 전문 도량
금강경독송 수행 전문도량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고주와의 이외에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⑲ 차 마시는 환경

'꽃 앞에서 飮茶' 오래된 논쟁거리

싱그러운 연둣빛, 환한 향기와 감미롭고 빈틈없는 차 맛은 눈과 코, 혀로 느끼는 미묘한 차의 세계이다. 그러기에 옛사람들은 '차향이 코끝을 두드린다'고 하였다. 이보다 심신으로 퍼지는 명쾌한 기세를 느끼는 것이 차를 즐기는 가치이다.

차를 마시면, 맑고 따뜻한 다탕(茶湯)이 목젖을 타고 넘어가면서 환하고 시원한 기세가 온몸으로 퍼져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어 머리와 목덜미, 등,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불평했던 마음과 몸이 편안해지고 얼굴과 등에서 촉촉하게 땀이 난다. 부드럽고 얇은 실크로 온몸을 감싸는 듯, 포근하고도 경쾌해진다. 이처럼 차를 마신 후의 변화를 노동(盧仝)은 〈칠완다가(七碗茶歌)〉에서 "(차를 마시니)신선과 통하며, 겨드랑이에서 맑은 바람이 스물 스물 이는 듯하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심신을 안정 시켜주는 차는 어떤 환경에서 마시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한 견해는 시대와 나라, 사람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겠지만, 명대 전예형(田藝衡 1524~?)의 〈자천소품(煮泉小品)〉을 참고할 만하다. 그 내용은 살펴보자.

당나라 사람은 꽃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 것을 (차를 마시는)정취를 경감시키는 연유라 여겼다. 왕개보의 시에 금곡원의 아름다운 꽃 앞에서 함부로 차를 다리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마음을 꽃에 두고, 차에 둔 것이 아니다. 나는 금곡원 꽃을 언급한 앞의 글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한 잔의 차를 들고 산에 핀 꽃을 보면서 차를 마신다면, 마땅히 차를 마시는 운치에 도움이 될 것이니 어찌 고아주(좋은 술)를 구하겠는가.(唐人以對花啜茶爲殺風景故 王介甫詩云金谷千花莫漫煎 其意在花非在茶也 余意以爲金谷花前信 不宜矣 若把一甌對山花啜之 當更助風景 又何必羔兒酒也)

윗글에 의하면, 당나라 문인들은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차를 마시면, 차를 즐기는 아취가 줄어든다고 여겼다. 이는 송나라 문인들도 같은 견해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 글에 인용된 왕개보는 북송대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시문에도 능했던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을 말한다. 왕개보는 그의 자(字)이다. 반산(半山)이라는 호를 썼다. 그런데 왕안석은 서진 때 대 부호였던 석숭(石崇, 249~300)의 별장, 금곡원에 핀 아름다운 꽃을 언급하였다. 금곡원은 서진 때 최고의 부자였던 석숭의 호화스런 집이다. 관직을 이용하여 향신료 무역을 독점, 막대한 부를 쌓았던 그는 낙양 서쪽에 금곡원을 지어 당대의 명사들을 초대하여 풍류를 즐겼다. 이 무렵 금곡원은 천하의 문장가와 권력자들이 모여드는 사교의 장이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시를 지어 자신의 문재



초의소장품 흑색 다관.

당송代 문인들 차에만 집중
"풍경 · 꽃은 차에 방해" 주장
명대엔 꽃과 어우러짐 강조

를 뽐냈으며 만약 시를 짓지 못하면, 벌주로 세 말의 술을 마셔야 했다고 전한다. 금곡주수(金谷酒數)라는 말은 이로부터 연원되었다. 그러므로 왕안석이 말한 금곡천화(金谷千花)란 석숭의 별장을 장식했던 기화요초를 말하는 것으로, 이 금곡원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아름다웠는지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당대와 송대 문인들이 차를 즐길 때 아름다운 꽃이나 풍경에 마음을 빼앗기면 차에 집중할 수 없다고 여겼다. 이는 금곡원의 아름다운 꽃 앞에서 차를 함부로 다리지 말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그들은 차 한 잔에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니 이를 통해 당송 때에 문인들이 차를 대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차를 대하는 마음은 명대에 이르러 전대와는 다른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전예형의 글에서 확인된다. 전예형은 어떤 인물인가.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여러 지역을 주유하는 과정에서 견문을 넓혔다.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지만 합격하지 못한 전력도 보인다. 그의 나이 오십에 처음으로 '휘주휴저교유(徽州休宁教谕)'에 제수되었다가 만년에 전당(钱塘)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생을 마쳤다. 그의 삶은 소박한 문인의 전형을 보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가 꽃을 마주하고 차를 마시는 정취는 오히려 차를 즐기는 아취에 도움을 준다고 본 것이리라. 그러므로 당송대의 문인들이 차에 집중하려는 태도를 드러낸 반면 명대에는 차와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에서 차를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그의 〈자천소품〉에서는 "차는 아름다운 사람과 같다(茶如佳人)"라고 한 당대 육우의 견해를 매우 오묘한 식견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산림에 사는 사람에게는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此論最妙 但恐不宜山林間耳)는 뜻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특히 당송 때에 유행했던 고형 단차나 편차는 연에 갈기 때문에 차의 진미를 손상 시킨다(茶之團者片者 皆出於碾鎧之末 旣損眞味)라고 하였다.

당송 때에 유행했던 고형차는 제다 과정이나 가루를 만드는 공정에서 차의 진미를 손상시킬 수 있는 단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이다. 아무튼 명대 문인 중에는 당송 때에 차보다 명대에 생산된 차가 더욱 좋다는 견해를 보인다. 전예형의 〈자천소품〉에 "다시 기름때를 더하니 가품은 아니다. 모두 명대의 차와 같지 못하다(復加油垢, 卽非佳品, 總不若今之芽茶也)"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바로 명대 문인들은 차의 순수성, 즉 천연성이 보존된 차를 좋은 차로 인식했다(盖天然者自勝耳)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잎차는 몇 번 우리는 것이 합리적일까. 이는 명대 허차서(許次紓)의 〈다소(茶疏)〉에서 "한 호(壺)에 차는 두 순배 차는 마실 만하다. 첫 번째 따른 차는 싱그럽고 맛이 좋으며, 두 번째 잔은 달고 순후하다. 세 번째 잔은 차 맛이 없다고 생각한다.(一壺之茶但堪再巡 初巡鮮美 再巡甘醇 三巡則意味盡矣)"라고 한 것이 눈에 띈다. 이와 유사한 방법은 바로 대흥사 응송 박영희 스님의 일탕법이다. 그는 평생 한 번만 차를 우려내는 탕법을 고수했는데, 이는 차의 진기(珍氣)만을 얻으려는 시도에서 고안된 탕법으로 대흥사에서 연원된 다풍이라 하겠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㊳

1. 불교를 인도 전역으로 급속하게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쇼카왕의 업적이 아닌 것은?

① 정법에 입각한 통치를 강조하였다.
② 제4차 결집을 통하여 삼장 즉 대장경을 완성하였다.
③ 사람들을 위하여 길거리에 가로수와 우물을 건립하였다.
④ 불교를 전하는 전법사를 인도 전역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파송하였다.
⑤ 부처님의 사리를 재분배 하여 인도 전역에 8만4천의 불탑을 건립하였다.

해설 : 아쇼카왕은 기원전 3세기 최초로 인도를 통일한 마우리야의 왕으로 정복전쟁기간 동안 벌어진 여러 참상에 불교로 귀의를 하고, 정복지의 여러 종교와 민족을 공정한 법으로서 다스리고자 한 왕이다. 그는 정법에 입각한 통치를 강조하였고, 인도전역에 여러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로수와 우물 등의 건립)를 증장했으며, 불교적으로 볼 때, 불교를 자신의 통치지역 및 교류하는 여러 국가들에 전파하려 전법사를 파송하였고, 부처님의 사리탑을 재정비하고 재분배하여 인도 전역에 8만 4천의 불탑을 건립하였다. 아쇼카 왕 당시에 결집이 있었다는 사실은 남방 상좌부만의 주장으로 다른 불교사서에서 교차검증되지 않는 내용이다.

2. 불기(佛紀)의 기준이 되는 것은?

① 부처님의 탄생 ② 부처님의 출가 ③ 부처님의 성도
④ 부처님의 설법 ⑤ 부처님의 열반

해설 : 불기의 기준은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신 때를 기준으로 한다.

3.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스스로에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라는 말씀을 한 시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싯달타가 태어나서 ②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③ 싯달타가 수행을 시작하면서 ④ 싯달타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⑤ 농경제에서 약육강식의 참상을 본 후

해설 : 자등명 법등명으로 유명한 부처님의 열반유훈이시다. 태어나실 때 하신 말씀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탄생게이시며, 수행을 시작하거나 깨달음을 얻으시고 하신 말씀 등은 여러 경전에서 한결같지는 않다. 농경제에서 약육강식의 참상을 보신 것은 아직 출가 이전 태자이실 때로 나무 아래서 선정에 드시는 일을 행하셨다.

4.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게 되는 마지막 여행길을 떠나시기 전에 비구들을 불러 모아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쇠퇴하지 않는 일곱 가지의 법을 말씀하셨다. 다음 중에서 일곱 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자주 모여 올바른 뜻을 논의해야 한다.
② 법을 받들고 금기를 알며 제도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
③ 바른 생각을 잘 지켜 간직하고 효도와 공경을 으뜸으로 해야 한다.
④ 남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며 명예와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해설 : 공동체가 쇠퇴하지 않는 일곱 가지 법은 소승열반경에 따르면 밧지족이 실천하고 있는 바로서 첫째 정기적으로 자주 모인다, 둘째 화합하여 모이고, 해산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셋째 공인(합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공인 된 것은 깨뜨리지 않으며 준수한다, 넷째 연장자를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한다, 다섯째, 남의 처자(재산)을 강제로 가져오지 않는다, 여섯째, 탑묘(전통)를 존경하고 봉납을 철회하지 않는다, 일곱째, 아라한(불교의 성자)들을 법답게 보호함이다. ⑤의 경우 아랫사람은 윗사람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은 없다.

5.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면?

아난다여, 잘 들어라. (a)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b)을 등불로 삼고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마라. 내가 열반에 든 뒤. 내 가르침대로 사는 수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나의 제자요, 제일가는 제자가 될 것이다.

① a : 신 - b : 법 ② a : 부처님 - b : 스님 ③ a : 법 - b : 부처님
④ a : 자기 자신 - b : 법 ⑤ a : 자기 자신 - b : 부처님

해설 : 부처님의 열반유훈으로 위의 문제와 동일한 지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부처님의 법을 등불로 삼으라 하셨다. 그럼으로 a-'자기 자신', b-'법'이다.

정답 : 1. ⑤ 2. ⑤ 3. ⑤ 4. ⑤ 5. ④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영혼의 세계 빙의
◉ 전생 빙의 퇴마 ◉
전생을 알아야 실마리가 풀린다
본인들 입으로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 말하게 됩니다

신비의 약손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임신이 안되는 분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상담 가능 천광암 H.P 010-8673-4426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⑰ 마하연 보살의 '과채두부면'

▶한줄 요약
먼저 배와 파인애플을 믹서에 갈아준 뒤, 물을 일절 섞지 않은 100% 과즙에 된장과 고추장을 섞는다. 그리고 각종 채소와 직접 만든 과일 청, 그리고 튀기거나 삶지 않은 순수한 두부면을 더하면 완성.



과일즙 장에 두부면…순도 100% 산사 보양식

전라남도 순천, 섬진강 변에 자리한 구례구역.

이 조붓한 기차역은 이방인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깊고 어두운 터널로 빨려 들어가 인파에 밀려 마주해야 하는 도시의 그것과는 다른.

플랫폼에 발을 딛는 순간 환히 펼쳐진 하늘이 지붕을 대신하고, 맑고 달큰한 공기가 입안 가득 맛으로 느껴지는 순간. 저 멀리 백운산에서부터 이어진 산맥들이 일렁대는 풍경은 이곳이 잠시 스쳐 가야 할 곳임을 잊고 한참을 서성이게 하는 것이다.

이제는 하릴없어진 옛 선로를 지나 역의 문을 나서면, 구례구역과 정면으로 펼쳐진 담박한 다리 하나와 마주한다. 바로 섬진강을 사이로 나누어진 순천과 구례를 잇는 구례교다.

이제 저 다리를 건너 다시 달려야 할 때. 오늘의 승소가 있는 곳, 구례 화엄사의 공양간을 향해 떠날 시간이다.



산사의 부엌

'세 가지가 크고 세 가지가 아름다운 땅'이라는 삼대삼미(三大三美)의 고장으로 알려진 구례. 삼대는 지리산과 섬진강, 풍요로운 들녘을, 삼미는 아름다운 풍광, 넘치는 먹거리, 넉넉한 인심을 뜻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품에서, 또 이 전부를 품에 안고 살아온 고찰, 화엄사가 있다.

백제 성왕 22년, 연기 조사가 창건한 이 천년의 산사를 누군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작품이라 했던가. 산세를 거스르지 않고 안으로 스며든 도량은 저 산문 밖에선 감히 그 위용을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일주문에서 금강문, 천왕문을 차례로 지나 마침내 중심 관문인 보제루를 넘었을 때, 이 대가람의 진면목을 마주하는 것이다.

'화엄의 세상'.

철저한 반전의 전경 속에 펼쳐지는 화엄사는 이 땅의 불교 역사가 쓴 서사시다. 지리산을 내려다보는 대웅전과 각황전의 웅대한 아름다움, 그 안에 자리한 모든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보물, 나무 한 그루까지. 어느 하나 빼거나, 덜어낼 수 없는 서사의 일부로 제 자리를 지키고 섰다.

하지만 그 길고 긴 서사의 어디에도 쉬이 드러나지 않는 곳, 그러나 이 대가람의 역사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있다. 수행자에게는 도업을 이룰 약으로, 누군가에게는 허기를 달랠 고마운 한 끼를 짓는 산사의 부엌, 바로 공양간이다.

수행자의 러닝메이트

수행자의 삶과 호흡을 함께 하며 가장 이른 시간 불을 켜고, 또 그렇게 마무리되는 공양간. 그 세계의 시간은 여느 세상과는 다르게 흐른다. 화엄사 공양간의 수장, 마하연 보살(본명 이경진)의 지난 40년 세월은 그렇게 '공양간의 시간'에 맞추어 흐른 셈이다.

"무조건 소화가 잘되어야 해요."

공양주의 전설, 공양간의 재야고수 등 숱한 별명을 가진 마하연 보살. 그런 그에게 '공양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묻자 명쾌한 답이 돌아온다.

최근 사찰음식은 건강한 식단, 맛있는 채식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에게 공양이란 수행을 돕는 간절한 그 무엇. 그렇기에 수행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최대한 거두는 것이 최우선의 원칙이다.

하지만 그 단순한 철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소화를 힘들게 하는 밀가루, 인공의 감미료 등 이 시대의 가장 흔한 식재료를 제외하기 위해 곱절의 수고를 더해야 하기 때문.

"장을 담글 때도 밀가루 대신 연근을 넣어 발효를 돕고, 숙성도를 유지해요. 설탕 대신 과일, 채소를 갈아 넣으면 색도 곱고, 은은한 단맛이 나지요." 흔히 사찰에서 자주 먹는 절임반찬도 화엄사에서는 쉬이 볼 수 없다. 염분이 많으면 소화가 어렵고, 혈압을 높여 좌선에 방해가 되는 이유다.



40년 세월 화엄사 공양간을 지켜온 마하연 보살.

"한번은 어떤 스님께서 그러셔요. 화엄사 안거철은 마하연 보살과 스님들의 싸움이다. 상차림을 보면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웃음)."

최장거리 육상선수를 뜻하는 마라토너에게는 길고 힘든 코스를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러닝메이트가 있다. 마라토너와 함께 달리며 동시에 자신 스스로 훌륭한 선수이기도 한 러닝메이트. 어쩌면 마하연 보살은 공양간을 달리는 이 땅 뭇 수행자의 러닝메이트인지도 모른다.

마하연 보살의 과채두부면

양념장 고추장/된장 각 100g, 배/사과 각 500g, 파인애플 250g, 매실액 2분의 1컵

재료 파프리카, 깻잎 3장, 사과, 오이 약간. 레몬즙 TS, 오미자 발효액, 깻가루 한 큰술.

만드는 법
1. 배, 사과, 파인애플을 함께 갈아 즙을 거른다.
2. 걸러낸 과즙에 분량의 된장, 고추장을 넣어 잘 섞어준다.
3. 2에 매실액과 레몬즙을 넣은 뒤 오미자 발효액을 입맛에 맞게 더해준다.
4. 파프리카, 사과, 오이 등을 먹기 좋은 작은 크기로 썰어 넣는다.
5. 잘 섞은 국물에 두부면을 넣고, 깻잎을 잘게 채 썰어 고명으로 올린다.
6. 마지막으로 깻가루를 잘 뿌려주면 완성.

순도 백 퍼센트의 응원

"메밀국수나 잔치국수는 워낙에 좋아하시지요. 하지만 일반 국수는 자주 먹으면 장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밀가루면 대신 드실 수 있는 것을 찾으니 두부면이 있더군요."

마하연 보살이 전하는 승소는 바로 '과채두부면'. 오직 과일과 채소, 두부면으로 이루어진 마하연 보살만의 특별 레시피다.

"사찰에서 재를 많이 지내니까 과일이 많이 생겨요. 주어진 재료로 스님들께 어떤 것을 만들어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여 만들었는데, 아주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먼저 배와 파인애플을 믹서에 갈아준 뒤, 물을 일절 섞지 않은 100% 과즙에 된장과 고추장을 섞는다. 그리고 각종 채소와 직접 만든 과일 청, 그리고 튀기거나 삶지 않은 순수한 두부면을 더하면 완성.

과일즙에 된장과 고추장이라니? 너무나 생경한 조합에 그 맛이 잘 그려지지 않는데 일단 크게 한입 맛을 보자 절로 웃음이 새어 나온다. 상큼한 과일 주스에 우리네 장류가 이토록 어울릴 수가! 다채로운 과즙에 된장의 짭짤함, 구수함이 더해진 대단한 별미였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린 뒤나, 겨울철 비타민이 부족할 때까지 어느 계절에 먹어도 좋은 메뉴예요. 식욕이 없는 때에 입맛을 돋우기도 좋구요." 특히 두부면은 먹은 뒤에 속이 편안하고, 담백한 맛과 영양 성분이 풍부해 좋다고. 소면의 매끄러운 식감 대신 두부면의 빡빡한 질감이 과즙과 더 잘 어울리는 이유도 있다.

과즙의 당분과 비타민, 발효 식품인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면이 만드는 순도 100% 맛.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산사의 보양식이다.

순수의 밥상으로

'가장 자신이 있는 음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어나면 하늘부터 본다'는 마하연 보살의 대답. 우리에게 주어지는 식재료도, 인간도 모두 자연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에 계절과 그날의 날씨, 습도. 그 모든 자연의 변수에 따라 그날의 식단을 정한다는 것. 그런 이유로 화엄사에서 진행되는 마하연 보살의 사찰음식 강좌 '산사의 밥상'은 미리 만들어진 교재가 없다. 한번 만들어 두고두고 쓰는 교재 대신, 그 즈음의 자연환경과 어울릴 만한 메뉴를 선정해 매번 새롭게 전하기 때문. 벌써 10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그 방식은 유효하다.

"언제부터인가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 뚝배기, 뒷밭에서 깻잎 송송 뜯어 먹던 그 맛이 떠올라요. 어떤 화려한 밥상보다도 가장 순수하고, 그리운 풍경이지요. 음식이란 결국 그리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제가 돌아가야 할 풍경, 그 안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소박한 밥상을 다시 꺼내보고 싶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리기 위해 평생이 걸렸다는 피카소처럼, 수백 수천의 레시피를 그려낸 마하연 보살의 그것도 끝내 순수를 향해 간다.

'공양'이라는 경구 아래 익고, 또 익어 가는 그에게 자연은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작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대행 스님

모두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니 근본 자리에 그냥 놓으라

(지난 호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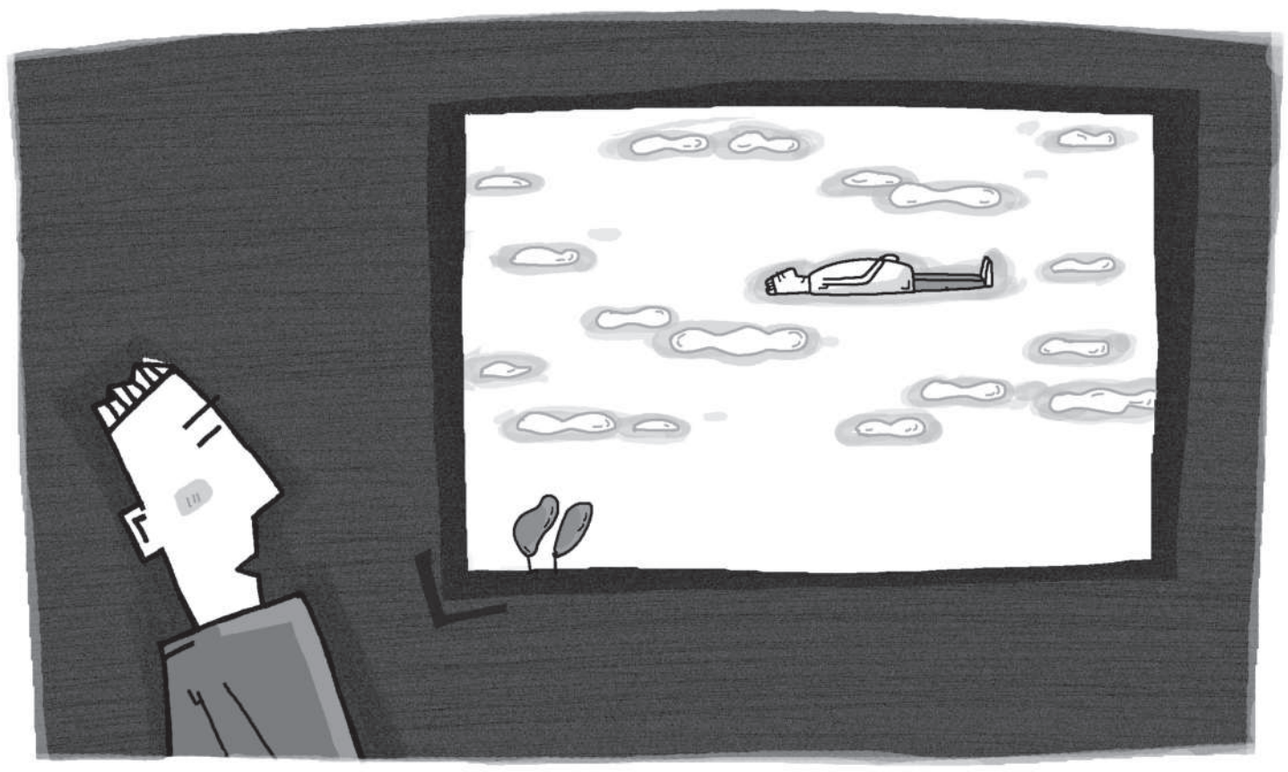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도 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가 있나, 왜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고가 닥치나, 이런 액이 닥치나 이러시죠?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할 이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 왜? 부부가 만나서 임신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은 수십억 마리의 생명이 한데 합쳐집니다. 그건 왜 합쳐지느냐? 악의 인연도 만나고 선의 인연도 만나고 그래서 그 인연들 따라서 모습 모습을 바꿔 가면서 같이 인연이 된 겁니다. 좋은 인연으로만 인연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서 그렇게 모두가 한데 합쳐졌는데 그대로 놔줄 수가 있나요? 그래 가지고선 서로 내가 제일 대장이 된다, 대표인이 된다 하고선 싸우다 싸우다 하나가 대표가 된다면,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 하나가 대표가 된다면, 인과로서 만난 인연들이 악의 인연, 유전의 인연, 또는 업보의 인연, 그 인연들이 모두 한데 합치면서 그 모습은 다 없어집니다. '흥! 너 가는데 내가 못 가?' 하고 붙어 돌아가는 거죠.

붙어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 나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 모습이 생겨서 자라는 대로 그것도 커 가고 있죠. 점점 모습이 갖춰지죠. 세포의 모든 생명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선의 인연을 만나면 참 흥미롭고 좋은 때가 있고, 거기에서 악의 인연을 만나고 유전의 인연을 만나고 업보의 인연을 만나고 병고의 인연을 만났으면 고만 병이 들고 말죠. 그러한 요소 요소가 돌아가면서 생긴다 이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참, 하늘을 쳐다보고 웃었는가 하면 땅을 내려다보고 울어야 하는 이런 피맺힌 사연들을 어찌,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되 어찌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놔라. 이게 공해서 돌아가니까 거기다 놔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놓으라면 놓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놓는 게 뭐냐. 왜 어떤 스님은 방하착을 하라 그러고, 어떤 스님은 놓으라 그러느냐. 이것은 첫째, 진실히 자기 자성, 자체 불성을 믿어야 하고, 둘째는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셋째는 그대로 믿고 활용을 하고 밀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전통신기도 눌러야 통신이 되죠? 불을 켜려 해도 스위치를 올려야 켜지지요? 가설이 돼서 불이 켜질 수 있는 건데도 자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불을 켤 때는 켜고 끌 때는 끄고, 자유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자비하니까, 부처님은 자비하기 때문에 스위치를 올릴 것도 없고 내릴 것도 없다.' 이런다면은 여러분의 몸은 어떡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떡하며 세상 돌아가는 거를 어떻게 똑바로 관해 봅니까? 똑바로 관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도 그렇고, 세계를 똑바로 보지 못해서 우리 국내를 살릴 수도 없고 발전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 하나 처단 못 하고 내 가정 하나 처단 못 한대서야 어찌 귀중한, 아주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이름의 법칙을, 어떻게 부처님 법이라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이 부처님 법은 너무도 신비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은 체가 없어서 뛰어넘으려면 시공도 없는 것이 찰나찰나 돌아가니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를,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 그 자체를 뛰어넘어라 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나라에 이러한 도리를 증득한 분이 있다면 그 나라를 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습으로 서로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 데를 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거를 아는 자는 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도 가끔 있었죠. 공부하는 인간이 살다 살다가 어떻게 참, 독사지옥으로 떨어져서 큰 뱀이 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사람을 해치지 않고 일편단심 공부를 했더랍니다. 공부를 하는 도중에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군인들이 주둔을 해 가지고 거길 그냥 싹 모두 깨트려 버리고 쳐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뚱이가 동강동강 났죠. 즉, 그로 인해 그 동네가 망했다는 얘깁니다. 그 동네가 산산조각이 난 것은, 자손들이 전부 미치고 병들고, 다 흩어지고 죽고 그러니까 그냥 망한 거죠. 그만큼 이거는 미신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미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면 당하고 알면 대처를 한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공부한다고, 좌선만 참선이라 생각하고 앉았으면 만법을 활용할 수 있고, 만법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실상적으로 생활이 참선이고 그대로 생활이 삼매라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육신은 망가지죠. 약탕관을 들고 다녀야죠.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약해지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분이 와서 "저는 암인데요, 꼭 살려 주십시오. 집이라도 팔아서 시주를 할 테니 살려 주십시오." 내 가슴은 철렁했죠. 왜냐하면 애들은 여럿이고 오두막집이라도 팔면은 저거 저…, 저렇게 모르나, 이런 답답한 느낌을 어떤 때는 많이 느낍니다. 그 사람이 그나마 있는 오두막집을 팔아서 고생을 한다면 내 마음은 좋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과거 생으로서부터 받은 업보라면 그건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해. 그러나 사는 길이 있긴 있죠. 진실히 믿고, 어려워도 진실히 믿고 거기다가 "죽든 살든 네 탓이다." 하고선 딱 놓으면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난 그럭해선 요구를 안 해요, 항상 그런 말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서도 돈은 쥐고 있어야 된다. 암이니까, 그거 죽을 거니까 아무 때 죽어도 죽을 거니까 돈은 있어야 자식들 하고 산다고 하면서 돈은 꽉 쥡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자는 변호사가 무료로 대변을 해 줄 수도 있고, 판사나 검사가 참작해서 해 주지만 돈이 많으면서도 돈을 내놓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내고 보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서류를 해서 근거가 아니라면 상신을 할 수가 없죠. 뭘로 어떻게 근거를 잡아서 법정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 가집니다. 부처님 법에는 시주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또는 꼭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 따라서, 그것도 자유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속으로 난 자식이 금방 죽는 거하고, 남의 자식이 금방 죽는 거하고 둘을 놓고 본다면 어떤 것이 귀중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실래요? 그거를 냉철하게 알고 본다면 본래 산 게 없기 때문에, 본래 죽을 게 없기 때문에, 무슨 그게 죽었다 해서 맘이 아프고 저게 죽었다 해서 맘이 아프고, 맘이 안 아프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입에 붙은 밥풀같이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가식이죠. 진실입니다.

그러되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서 마음은 같이 돌아가고 하는 도리를 배우지마

☞ A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죽든 살든네 탓이다’ 하고 딱 놓는 것이 사는 길이다

☞ A19면에서 계속

는 몸은 각각 있으니 어디까지나 사람이 사랑하면서 또는 화목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가정이 다 화목하게 지낸다면 얼마나 복이 들어오며 얼마나 공덕을 이루겠습니까? 그렇게 할 줄 안다면 한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세계를 관해서 볼 수도 있고, 우주를 탐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 하나가 여러분의 분신을 수만 개를 만들 수도 있고, 들이고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분 앞에 자꾸 전달을 해도 여러분이 실천 한 번 해 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것을 한 번도 실험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칼싸움을, 무술을 잘하던 사람은, 칼로 항상 맞아 보기도 하고 때려 보기도 한 사람은 강도가 들어와도 눈도 안 깜짝거리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도 당해 보지도 않은 사람은 칼을 들고 들어오면 부르르르 떱니다.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즉 말하자면 번연히 이것이 떡그릇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번 떡그릇에 엎드러져 보는 것도, 그것도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자리를 스스로서 믿고 물러서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제작할 때 주인공을 딱 찍어 놓죠. 찍어 놓으면 그 주인공은 영화가 다 끝나도록, 소설을 다 보도록 죽을 둥 살 둥 하면서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찍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게끔 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스럽게 주인공으로서 딱 모든 걸 관해 봐서 나에 관한 건이라든가, 자식에 관한 건이라든가, 국가에 관한 건이라든가, 이 세상을 관해서 보려면 세계를 똑바로 봐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데 우주적으로도 다른 혹성의 세계를 관찰해야죠.

그렇게 관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츰차츰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봐서 딱 찍어 놓는다면 그대로 법이에요. 그런데 내 몸도 그렇고 죽느냐 사느냐도 자기 마음대로지 구태여 그것을, 그러니까 소설의 주인공으로 하나 점찍어 놓으면 되듯이, 영화 속에서 다 죽어도 그 주인공 하나만은 살 수 있도록 찍어 놓는다면 여러분이 왜 걱정 근심을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는 극치적인 삶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이며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자에 명주옷 입고 무명옷 입었다고 해서 전자의 명주와 똑같아야 하고 전자의 명주를 입어야 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발전을 하려면, 즉 명주도 지금 실크로 만들어서, 실크만 만들어서도 아니 됩니다. 고상하게 색채를 다 내서 또 꽃을 만들어서 다 조화를 이루어서 딱 상점에 내놔야 잘 팔리겠죠. 이름은 바꾸어졌으나 그 근본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할 텐데 지금 가르치는 것이 명주, 무명 고대로 그냥 가르치고 있으니, 실크가 벌써 나왔는데 명주 가르치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오죽이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부처님 법을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더 숭상하고 있는 판국인데 우리 국내에서 부처님 법을 삼백 년, 오륙백 년 뒤떨어지게끔 해서 쓰겠습니까? 앞장서도 지금 서럽다고 할 판국에 그래 뒤떨어져서, 한 오륙백 년 뒤떨어져 가지고서는 그때에 가서 “아이구, 부처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저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복으로써 비는 것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스님네들도 그냥 경을 가르쳐 주는 강원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스님네들도 앞으로는 명주, 그 한 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근본은 똑같으니 실크로 만들어 보자. 실크로 나왔으니 실크라는 이름이 바로 명주라는 걸, 양면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겁니다. 실크에는 세상 돌아가는 대로 지금 모든 국민이 원하고 찾는 대로 꽃 모양을 놔서 세상에 내놔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무슨 계획하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공부를, 공부 아닌 공부를 하시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본래 스스로서 청정하고, 스스로서 체계가 서 있고, 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율도 없고 질서도 없고 청정함도 없는 게 진리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부처라는 이름도 부수고 넘어가야 될 판국이죠.

이 커피잔이 만약에 부처의 이름이라면 커피잔을 부수고 들어간다 하는 건 뭘 뜻하느냐. 내가 이 커피잔에 물 들어 있는 걸 갖다가 마셔 버리면은 그냥 나하고 둘이 아니니까 이 커피잔의 이름을 말할 거는 없죠. 둘로 나누어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항상 나요, 바로 내가 급하면 커피잔을 들고 물도 떠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로 비유했지만 잘들 새겨들으세요.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이 일을 하려고 나가 보니까 아, 새들이 모여서 지저귀고 있거든요. 이 소리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중국 어디에서 그랬대요. 들은 얘기이기도 하고 보기도 한 얘깁니다. 현실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까마귀는 무의 세계의 영령들의 소식을 전해 주고, 까치는 지금 현실에 사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준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전해 주는 거는 “아이구! 또 까마귀가 울어 댔으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 그랬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당신네 집에 오늘 저녁에 강도가 들어서 죽을 테니까 피하라고 피하라고 막 가르쳐 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고는, 강도를 당해서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아이구, 그 까마귀가 와서 짖더니 이렇게 흉한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왜 까마귀 탓을 합니까? 일러 줘도 못 알아듣는 자기 탓을 하지.

그리고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 준다고 그랬는데 좋은 소식뿐이 아닙니다. 일가친척 사기꾼이 오는데 까치가 까악까악 짖었다 이거야. 일가친척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둑질 아닌 도둑질을 해 간다 이겁니다. 그거는 또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니 모든 이치가 다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거 마저 해야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려니까 아, 새들이 모여서 막 재잘대고 그러거든요. 잘 들어보니까 지금 어느 나라의 그 창고에 금이 있는데 그걸 도둑질을 해 내갈 텐데, 이 국고가 비면은 큰일 날 텐데 야단이라고 아, 이러면서 지지고 볶거든요. 그 사람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거 큰 야단이 났거든요. 자기가 얘기해 봤던들 믿어 주지도 않을 거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하면서 단숨에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아, 들어가질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겠다고 해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조심하십시오. 이 국고가 빌 테니까 철저히 지키라고 하십시오.” 이랬더니 이 미친놈 보라고, “이 미친놈! 이놈아, 이 미친놈아! 네가 와서 그러는 걸 내가 가서 얘기하면 나도 미친놈으로 모가지 달아나가.” 그러니까 나 말 못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이 지나니까 정말 도둑을 맞았거든. 국고의 금덩어리가 그냥 다 나가 버리고 말았죠. 그거를 나라에서 찾느라고 온통 뒤집고 야단들을 했는데 그때의 그 생각이 문득 났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일러 준 게.

그러니깐 장군한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얘길 하니까 장군이 뭘 생각했느냐 하면, 그거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그놈이 그렇게 잘 들으니 내가 저걸 이용을 해서 ‘새가 뭐라고 그러는가, 어디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알아서 내가 좀 더 나라에 이름도 올릴 겸, 돈도 벌 겸 해서 그 사람을 찾았어요. 아, 찾아서는 떡 “너, 아침마다 나가서 새소리를 들어라, 뭐라고 그러나.” 그렇게 시켜서 가서 들어 보니까는 “얘, 고놈 나쁜 놈인데 얼마 안 있으면 모가지가 달아나갈 거다.” 그러거든요. 허허허. 아, 새들이 그러고 하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럭했다 하면은 큰일 날 테니까. 쭈물쭈물하니깐 그냥 막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릇도 못 하겠다고 해서 몹쓸 고생을 하고 자기 부모까지 다 잃고 관가에 끌려가서 자기 가족도 몹시 매를 맞고 그래서 스스로서 그냥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을 잘못한다거나…, 물론 꼭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은 값있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말이란 건 잘 가려서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집에 키우는 돼지들이 말을 하기를 “아, 저 집은 소를 팔아 왔는데 그 소 판 돈을 지금 가지고 있어. 저렇게 돈이 있는데도 가난한 척하고 있잖아?” 하고선 말을 하거든요. 돼지들이 꿀꿀꿀꿀 해도요, 그 가정일들을 다 알거든요. 돼지밥을 갖다 주는데 꿀꿀꿀꿀 하곤 돼지가 돼지물을 먹으면서 아, 서로 고개를 이러면서 하거든요. 소를 팔아 왔는데도 우리 밥은 물만 준다 이거죠, 물만 준다. 하하하.

그래서 그 소릴 들은 사람이 하도 우스워서 껄껄대고 웃다가 옆 사람이 “넌 미친놈처럼 왜 웃니?” 그러니까 무의식중에 그 소리가 나온 겁니다, 무의식중에. “아, 글쎄, 돼지들이 말이야, 밥을 먹으면서 이 집이 소 판 돈이 있는데도 먹을 걸 이렇게 안 주고 그냥 뜨물에다가 만날 술지게미만 줘 가지고선 우리들을 취하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든다.” 이러더라고 껄껄대고 웃었단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불쑥 나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을 다 잃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현실에도 저 까마귀나 까치처럼 사생의 말 못 하는 것들도 그 뜻을 모두 듣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참, 오백 나한을 만든 자체도, 소로 변장을 하고 나와서 그렇게 도를 닦고 있다가 다시금 보살로서 등장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적 떼들 오백 명을 부처님 앞에 귀의하게 만들어 놓고 그랬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다 잘 아시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여러분은 제가 쓸모 있는 말이든 쓸모없는 말이든, 쓸모없는 말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하치않은 말이라도 좀 더 믿으신다면 이 ‘컵’이라는 질서 있는 이름을 말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목마르면 물 마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기를 수 있는 인연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9월 18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놓는 다는 건
첫째, 진실히 자기 자성, 자체 불성을 믿어야 하고
둘째,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셋째, 그대로 믿고 활용하고 밀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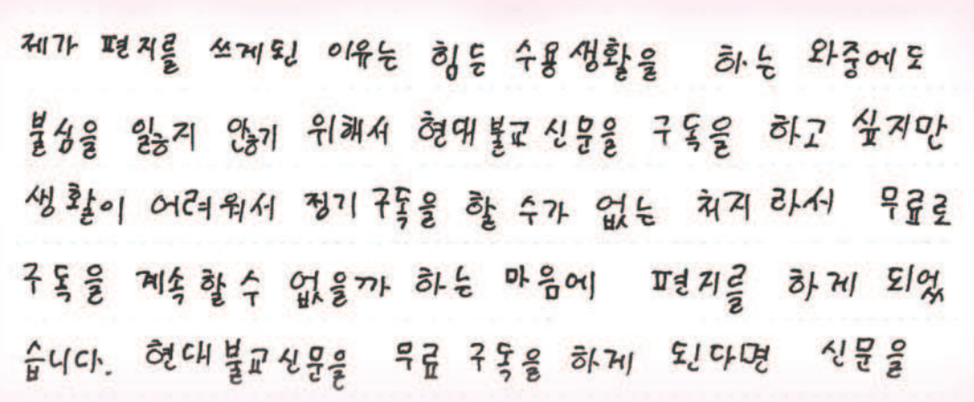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50(농협, 예금주 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⑲ 내가 바뀌는 공부는 부처님생명을 회복하는 일

내 마음 바뀔 때 운명도 변한다

우리는 종종 '운명'이라는 단어 속에 스스로를 가둬 두고 지배받으며 사는 때가 있다. 자신의 한계나 상황을 운명이라 여기며, 그것이 이미 정해진 길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 말은 우리 삶 속에서 은연중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무언가를 바꾸려는 의지마저도 약하게 만들어서, 내 삶의 열쇠를 남에게 던져놓고 앞날이 어찌 될지를 묻기도 한다. 과거는 지금 내가 받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앞날은 지금 내가 심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말이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지는 법이므로 부처님께서는 점을 치지 말라 하셨다.

부처님 가르침은 언제나 인과에 밝게 하시고 연기를 잊지 않게 하신다. 이렇듯 운명론이 아닌 불교는 우리에게 늘 안심감을 준다. 삶의 열쇠는 남이 쥐고 있는 게 아니니 밖에서 찾지 말라고 주셨던 소중한 법문을 공부하며 법우님들과 나눴던 법담을 공유해 본다. 매일 아침 온라인(줌)에서 모여 공부하는 〈금강경법문〉 354쪽의 '운명 전환의 원리'에 대한 법담이다.

"불교는 내가 바뀌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행개조를 합니다. 중생인 줄 알았는데 지금 부처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곧 내 업을 바꾸어 갑니다. 중생업으로부터 보살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바라밀입니다. 금강경을 읽음으로써 내가 바뀌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를 읽고 현석(가명) 님께서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다. 본래 부처님생명이다. 나라는 건 따로 없다'는 법문을 들어오다가 '나를 바꾸라'는 말씀을 들으면, 자칫 법문을 잘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아상을 강화할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없는데 나를 바꾸라는 얘기가 뭔지, 그럼 바꿀 내가 또 있다는 건지 혼동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라며 법담을 열어주셨다.

부처님 공부를 해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에 이렇게 말씀드렸다. "법문을 듣고 나를 비추어 보며 닦여가는 문사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요. 항상 동사라는 걸 잊지 마세요. 법회에서 나의 참생명이 부처님생명임을 들어서 믿고 정진 모시며 사는 '문사수'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참회'가 아닐까 해요. 법문이 관념적이지 않고 삶에서 드러나 숨 쉬게 하는 건 참회예요. 본문에 나오는 '얼른 이 기회에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바로 참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회는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소참]으로만 그치지 않고 참생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참생명 회복이 내가 바뀌는 것
금강경, 문제 해결 지혜 생겨나

다짐과 선언이 들어가야 진정한 참회[대참]라고 배웠습니다. 부처님생명으로 살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얼른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게 바로 부처님생명으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바뀐다는 의미는 부처님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지, 나라는 아상이 강화되는 게 아니죠. 나의 참생명이 부처님생명이라는 믿음이 빠져 있고 참회가 빠져 있으면 말장난밖에 안 되고 관념적이 될 수 있겠죠."

법우님들에게 '나'가 남는 한 결국 윤회라는 법문도 전해드렸다. "지금 주체를 바꾼다는 하더라도 끊임없이 또 '나'가 남습니다. 내가 남은 상태에서 또 나를 바꾼다는 건 '좋은 윤회'하는 거라고 대표법사이신 여여 법사님께서 항상 짚어주십니다. 그래 봐야 결국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을 늘 감사히 새기는데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내가 바뀌어 간다는 의미는, 있지도 않은 가짜 나가 더 좋은 가짜 나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본래 없는 나를 있다고 착각하는 그 망상이 걷어져서 부처님생명 자리로 회복되는 걸 내가 바뀐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끊임없는 가짜 나의 연속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고 말했다.

선희(가명) 님도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며칠 전에 거친 숫돌에 칼이 갈리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지혜롭게 만든다는 지혜검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356쪽, 시계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원리에 대한 말씀에서도, 반대로 도는 톱니바퀴가 상대에게 힘을 준다고 하시면서, '직장을 나가든, 회사를 경영하든, 식구끼리 살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내게 거슬리는 사람이 바로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신 부분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때 '전생에 무슨 원수를 지어서 저 사람을 만났을까?'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니 그럴 땐 얼른 금강경을 읽으라고 하시는 한탑 스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금강경을 읽는 사람의 공덕이 매우 큰데, 금강경을 읽으니까 별안간에 어디서 복이 산더미처럼 굴러 들어온다는 게 아닙니다. 금강경을 읽으면 금강반야의 지혜가 드러나고, 문제의 연속인 인생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됩니다. 또한 지혜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이 세상이 본래부터 불국토였고, 본래부터 나는 극락정토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새삼스럽게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무아미타불!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㉕ 안면마비

안면마비, 골든타임이 생명

병명에 있어서 안면마비만큼 많은 이름을 가진 질환도 드뭅니다. 안면마비, 안면신경마비, 벨 마비, 구안와사 등. 안면마비와 안면신경마비는 안면근에 마비가 왔는데 그것이 안면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붙인 이름입니다. 벨 마비는 특별한 원인 없이 나타나는 특발성 안면신경마비를 스코틀랜드 외과의사인 찰스 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구안와사는 말 그대로 입과 눈이 한쪽으로 돌아간 증상으로 생긴 이름입니다. 한의사들이 어떤 이름으로 진단하든 모두 안면마비의 또 다른 이름이라 보면 됩니다.

안면마비의 전조 증상은 안면신경의 손상 정도에 따라 모든 증상이 나타나거나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곤이 심하고, 한쪽 머리가 아프거나 귀 뒤 통증이 지속되다가 점차 한쪽 이마 주름이 없어집니다. 눈이 감겨지지 않아 안구가 따갑고,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휘파람을 불면 입이 건강한 쪽(건측)으로 당겨 돌아가고 인중선이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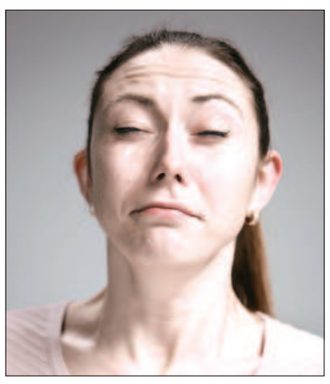
안면마비를 분류하면 발병 원인에 따라 외상성 안면마비와 비외상성 안면마비, 신경의 손상 부위에 따라 중추성 안면마비와 말초성 안면마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상성 안면마비는 외상과 수술 등으로 안면신경이 손상돼 발생한 것입니다. 비외상성 안면마비는 바이러스 감염, 급·만성 중이염, 내이염, 추체염 및 귀와 관계된 대상포진, 벨 마비, 청신경 및 안면신경 종양, 원인불명 등으로 발병합니다.

중추성 안면마비는 중풍, 뇌종양, 뇌염 등 뇌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마비를 말하며 같은 쪽 편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 이마 근육은 마비되지 않고 얼굴의 아래쪽 반만 마비가 일어나며 미각이나 청각은 장애 받지 않고 근육의 변성 반응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안면마비라 하면 앞이마근육을 포함한 얼굴 전체에 마비가 오고, 팔다리에 마비가 없는 말초성(뇌 바깥의 안면신경) 안면신경마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신경의 손상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발생 후 1주 정도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때는 치료를 해도 악화합니다. 그럼에도 적시에 치료해야 악화하는



발병 '72시간' 내 치료 받아야
골든타임 지키면 8~90% 완치

증상을 멈추고, 치료 시간을 줄이고, 후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골든타임을 초기 72시간(3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보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완치율을 높이는 하나의 척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진단 방법은 먼저 얼굴과 전신에 나타난 임상 증상 등을 보고 △질병의 유발 동기 △발병일 △가족력 △발생 횟수 △좌우발현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를 1차 판단합니다. 2차로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 분명한 감별을 위한 경우는 머리 CT 혹은 MRI 검사를 하고, 신경섬유의 병리학적 차단과 일시적 전도장애 구별을 위해 근전도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병의 원인, 신경 손상 위치, 상태, 심한 정도, 유전 관련 여부 및 환자의 기타 상태 등을 판단합니다.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와 비보존적 치료(수술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수술을 제외한 모든 치료를 말합니다. 즉 한방에서는 침구치료, 부항, 매선, 한약, 광선, 첩부, 향기치료 및 보조적인 운동치료 등이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약물 치료로 증상에 따라 스테로이드, 항바이러스제, 소염진통제를 선택해 보통 급성기에 약 7~10일간 사용합니다. 그밖에도 혈관확장제, 비타민제 등을 사용합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성상신경절 차단술이나 오래도록 낫지 않는 진구성 마비에 성형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대부분 보존적 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예후는 초기 증상의 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처음부터 마비가 심각한 경우는 완전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운동기능이 회복되기 전에 미각이 먼저 회복되는데, 미각이 1주일 내 회복되면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운동기능이 5~7일째에 어느 정도나마 조기에 회복되면 가장 좋은 징후입니다. 80%의 환자가 수 주 내 또는 수개월 내에 회복되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에서는 눈을 감을 때 입 주위가 움직여지는 '동시 움직임 현상', 안면근육을 움직일 때 눈물을 흘리는 '악어 눈물 현상', 뺨에 바람을 넣을 때 '입술은 병이 온 쪽(환측)으로 당겨지는 현상' 등 안면마비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난치에 속합니다.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으면 80~90% 정도는 회복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잘하면 회복이 가능하므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경호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침구과





AI와 붓다 2.0
본 월 09:30 재 월 21:30 / 화 15:30



꽃보다 출가
본 화 09:30 재 화 21:30 / 수 16:30



한국의 세계유산, 그 숨결을 찾아
본 화 12:00 재 화 22:30 / 토 16:00



자현스님의 열반과 깨달음
본 수 07:30 재 수 20:30 / 차주 월 13:00



마음 여행을 위한 GPS 명상
본 수 13:00 재 수 23:15 / 일 14:00



뜰 앞의 잣나무
본 목 12:00 재 목 22:30



법장스님의 투게더
본 금 07:30 재 금 16:00 / 일 23:15



박문호 박사의 빅히스토리
본 금 12:00 재 금 23:15 / 일 13:00



문광스님의 한국학 에세이
본 화 07:30 재 화 19:30 / 토 12: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전법 일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참여하며 '지금 존재하는 이유' 화두 들다

군에서 전법활동 한지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첫 근무지인 경기도 연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광주, 경북 영천, 그리고 지금 세종을 거치면서 많은 도시를 다니며 활동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각 지역과 부대마다 특성이 있어 적응하고 정들만 하면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군승의 운명인 듯하다. 그래도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하고 전법활동을 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사찰에 가면 처음에는 경계하시지만, 대부분의 스님들께서 "젊은 스님이 와서 젊은 장병들 전법해주는데 많이 고마워하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주신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찰 살림에도 장병들을 위한 간식 공양도 흔쾌히 내어주신다. 스님들의 자비행이 있기에 오늘도 전법활동을 할 수 있다.

지금 소임 맡고 있는 32사단에서는 대둔산 지역 짜개봉 일대의 유해발굴작전이 한창 진행 중이다. 첫 소임지였던 5사단 지역에서 유해발굴하기 전 개토식과 영결식에 참석하여 종교행사만 집전을 했었다. 이곳은 달랐다. 유해발굴작전하기 전 개토식 종교행사 집전은 물론이고,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었다. 처음에 사단 전투참모단 간부들도 참석해야한다는 말을 듣고서 의아해 했다. '전투요원도 아니고, 유해발굴관련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굳이 해야하는건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녀와서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을 느꼈다. 유해발굴작전을 하기 위해 사단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대둔산 수락계곡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1시간 10여 분 정도 가파른 산에 오르니 짜개봉 지역에 다다랐다. 작전에 투입되기 전 유해발굴 팀장의 소개와 함께 시작하였다. 이 지역은 6.25 전쟁 당시 적의 대침투작전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었다. 당시 국군은 9사단 주축으로 대둔산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충남도 전투경찰대 및 의용대화 함께 토벌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군과 경찰, 의용대, 지역주민 등 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한다. 74년 전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많은 선배전우의 희생을 기리고, 차디찬 땅속에 잠든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유해발굴 작전에 참가하였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위로는 깨달음(보리)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교학과 학업에 매진하고 수행에 전념하였고, 현재는 군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법하며 장병들의 지친 마음을 신앙의 힘으로 돌보고 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둔산 짜개봉 일대 선배전우들의 유해발굴작전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화두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가장 낮은 자세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며 회향하는 구도자가 되기를 서원하며 연재를 마치고자 한다.



수종 스님
육군 32사단 호국대원사 주지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⑨ 항상성의 개념

생명 지속의 항상성, '업'의 다른 이름

유별난 여름의 무더운 날씨가 지나면 서늘한 바람이 불고, 겨울이 되면 추위가 유난을 떨 것이다.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 사이를 오가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비에 속한다. 환경에 대한 적응력인 항상성(恒常性, Homeostasis)이 생명현상을 가능하게 한다. 개체 자신의 상태를 최적화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개체적 생명을 넘어서 지구적 차원에서도 이 항상성은 추론된다.

내년에도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리니, 소란스런 봄바람의 수고로움은 끝내 멈추지 않으리.(明年更有新條在 惱亂春風卒未休, 〈선문염송〉, H76, 165a12)

계절의 일정한 순환은 기지개를 켜며 체온을 높이고 활동하다가 활동을 그치고 잠을 자는 동물의 낮과 밤에 따르는 체온의 변화와 일정하게 대비가 된다. 이렇게 항상성 개념은 지구 환경으로 확대되어 적용되기도 한다. 지구를 뭇 생명의 어머니로 바라보는 가이아(Gaia) 이론의 배경이기도 하다. 지구를 생명 유기체로 인식하도록 작동하는 항상성 개념은 현상계를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체온조절 기능은 물론 섭식에 따른 혈당조절, 무더운 여름과 겨울의 찬바람에 이르기까지 생명과 환경을 볼 수 있게 한다.

항상성이 생명과학의 이론이라면, 물리학에서는 관성(慣性, Inertia)의 법칙이 있다. 관성은 물체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한다. 자기의 속성을 유지하려는 동력에 해당하는 자성(自性)이야말로 관성력의 핵심이다. 항상성과 관성은 업(業, karma) 개념에 의하여 보충 설명될 수 있다. 범어의 동사원형 kṛ는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고'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처럼 무언가를 끌고 다니는 형상이다. kṛ는 문장에서 kar로 활용되며, 명사로 전환될 때 karma로 변형된다.

業 개념은 항상성과 관성과 비견될 때 비로소 선명해진다

업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의 하중을 책임지는 상속성을 의미한다. 〈종경록〉은 업력을 관(慣)과 연결하여 마음(心)으로 일관(貫)하는 항상성과 그 지속의 관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호로 풀이하고 있다. '관성의 습기는 되풀이 행하여 숙달된 기운으로 인하여 수면이라는 잠재의식에 따르는 것이며 집착의 씨앗'(慣習, 習氣隨眠, 卽執種子)이라고! 이처럼 업 개념은 항상성과 관성과 비견될 때 선명해진다. 사람의 마음자리를 곧장 가리키는 직지인심의 선적 경지는 현대의 생명과학이나 물리학의 입장으로 디플레이션된 것이다.

생명의 지속을 위한 항상성, 물질 현상을 유지하는 관성, 시간의 발자취를 영속하는 까르마로서의 업, 이들은 동일한 현상계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다른 이름들이다. 부처와 도는 얼마나 다른가? 이에 대하여 마조 선사는 '도란 손을 펼치는 것과 같고, 부처는 주먹을 쥐는 것'(佛與道相去多少 馬祖答云 道如展手 佛似握拳)이라 답한다. 이런 점에서 각 이름의 기표(記票)적 차이를 불식하고 그 매끈거리는 표면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면, 의미 그 자체인 기의(記意)에 도달할 수 있다.

붓다의 깨달음은 부처님 당체(當體)를 지시하는 법신불이기도 하고, 깨달음으로 대체 표현되는 도의 당체는 진리 그 자체이다. 이제 가을이 무르익는 시간이다. 〈선문염송〉은 가을 달빛의 서늘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한 길(一丈)을 설명하는 것은 한 치(一寸)를 행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이 가운데 뜻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달빛이 서늘함을 알리라. (說得一丈 不如行得一寸 會得箇中意 方知月色寒, H76, 173c11-12)

세상 시끄러운 말들에 귀 기울이다가 물들었다면 귀를 씻어야 한다. 창밖을 비추는 달빛에 마음을 헹구어야 하기 때문이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반려견 선명상축제, 반려인 포교의 시작

청명한 가을날 '반려견 선명상축제'가 열리는 남양주 봉선사로 향했다. 경내를 거니는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의 표정이 밝고 또 맑았다. 가을볕을 즐기며 명상의 시간을 갖고, 연지를 산책하고, 요가 테라피를 하며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봉선사는 이번 반려견 선명상축제에 대해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선명상을 중심으로 반려견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 과거에는 단순히 집을 지키는 가축이었던 개가 오늘날에는 가족 구성원이 돼 우리 삶 속에 '반려견'으로 자리잡았다. 봉선사가 이날 진행한 '반려견 선명상축제'도 불교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시작이었을 것이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는 교구장 호산 스님의 의지가 컸다. 호산 스님은 봉선사 교구장으로 취임하며 십여 년 넘게 함께한 반려견 '쿠니'도 데리고 와 봉선사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날 축제에 동참한 반려인들은 "불교계가 동물을 소중한 생명체,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반려인 가구가 새로운 불교의 포교 계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펫케어' 분야는 반려견 천도뿐 아니라 템플스테이 같이 사찰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불교의 문턱을 낮추는 하나의 통로이다. 또 '펫로스' 경험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며 심신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반려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열반경〉의 '일체중생 실유불성'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는 말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반려견들이 단순히 '가축'이 아닌 '반려견'이 된 것을 보면 우리가 각기 가진 '불성'이 공명(共鳴)한 결과가 아닐까?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찰나 실수로 부서진 어깨뼈와
무너져버린 고향의 가족

네팔노동자 바하두르씨, 가족 생계 위해 농장 · 공장일 등
수술 후 월세방 더부살이…남은 건 병원비와 빚 7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고통을 마주하는 지혜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정사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사르코'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로 평화롭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력자살 기계다. 이 장치를 개발한 사업체인 '더 라스트 리조트(The Last Resort)'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마지막 선택지라는 뜻인데, 이는 불치병이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준다.

삶의 어려움이 마치 게임에서 너무 어려운 난이도를 만났을 때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리셋 버튼이 없으며, 게임처럼 쉽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삶과 죽음을 단순한 시작과 끝으로 보지 않고 윤회의 과정으로 바라본다. 고통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찾고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도록 가르친다. 따라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불교적 가르침에서 볼 때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또한 불교는 생명을 개인의 소유로 보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한 나머지, 자신의 생명마저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생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주의 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무의 잎사귀가 나무 전체의 일부이듯,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개인에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끝낼 권리가 없다고 가르친다. 생명은 타인과 자연, 그리고 우주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교, 생명의 개인 소유 불인정
죽음이라는 고통도 성장의 과정
고통서 얻는 지혜, 진정한 해답

조력자살의 또 다른 딜레마는, 과연 그것이 고통을 진정으로 없앨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불교적 관점에서 고통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그 고통을 통해 배우지 못하면 다시금 고통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마치 시험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그 시험을 봐야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며, 그 안에서 배우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 속에서 어떻게 깨달음을 찾고 성장하느냐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불교는 고통을 회피하는 대신,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라고 가르친다.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로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고통은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사막에서 마라톤을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사막의 고통과 어려움은 쉽게 피할 수 없으며, 끝까지 달려야만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다. 이와 같이 불교는 고통 속에서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결론적으로 사르코와 같은 조력자살 기계는 현대 사회에서 생명과 죽음, 그리고 고통에 대해 많은 고민을 던진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삶은 고통과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며, 그 고통을 통해 얻는 지혜와 깨달음이 진정한 해답이라는 것이다.

부석사 관음상 100일 친견법회 열린다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지난해 10월 26일 대법원은 부석사의 관음상 반환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민법상 "시효취득"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조계종을 비롯하여 서산시의회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왜구 약탈로 인한 점유의 개연성을 상당히 인정하고 점유 시효를 인정한 것은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그로부터 1년 여가 경과 했다.

그러나 여전히 관세음보살은 일본으로 '환부'되지 않고 대전시 소재 국립문화유산연구소 수장고에 있다. 2012년 이래 12년째이다. 그 사이 '환부' 이전과 이후를 위한 몇 가지 모색과 접근이 있었다.

첫째는 관음상은 '대마도의 불상'이 아니라 '부석사의 관음상'이라는 점을 재판과정에 확정했다는 점이다. 1330년 2월 32명의 서주의 민초들의 염원으로 조성한 관음상은 원시 소유자로서 부석사는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정했다. 이는 1973년 나카사키현의 문화재로 지정할 때도 '고려국 서주 부석사'를 명시했고 그런 이유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했기에 지정했다는 점에서 불변이다.

일부 언론은 여전히 '대마도의 불상'이라 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을 비틀고 있다는 점에서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올 초 부석사, 친견법회 요청에
日관음사 전 주지 조건부 승낙
650년만에 본 자리서 법회 열려

둘째는 대마도 반입의 경로가 왜구 약탈로 기인했다는 점을 1심 재판부터 대법원까지 인정했다. 이로 인해 환부 후 무인사찰이 아닌 대마도 박물관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국제박물관협회(ICOM)의 윤리강령에 있는 합법적 소유권 입증 책임과 출처지와의 교류협력은 물론 반환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셋째는 부석사의 동일성, 연속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서일본 지역에 비정상적으로 고려의 불상, 불화, 범종이 집중되어있는 배경이 왜구 약탈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은 한일역사학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사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국보·중요미술품 113건 중에 고려의 유산이 75건에 이른다는 사실로 보아도 고려와 왜구와의 상관성을 밝혀야 한다.

2015년 부석사는 "단 하루라도 빨리 부석사에 봉안할 수 있도록" 정부에 청원했다. 국회의원, 문화예술계 인사, 종교계, 동포사회, 지역 사회 등 약 3만 5000명이 동참한 청원서명부는 한국 정부, 국회 등에 전달되었다. 올해 부석사는 대통령실에 부석사 봉안 후 100일 친견 법회를 요청했고, 관음사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최근 일본과 한국 언론이 친견 법회 가능성을 보도했고. 9월 26일 관음사 전 주지가 조건부 승낙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법회가 성사되면 2015년 신라여래불상이 '장물 환부'라는 초라한 이운이 아닌 여법한 봉안 법회가 650여 년 만에 본래 자리에서 열릴 수 있다. 법회 기간, '환부' 후에 대해 무성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社 說

'하루 5분 선명상' 생활화 운동 펼치자

9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일순 '고요'가 찾아왔다. 5분간. 그 짧은 순간 광화문 광장의 3만 5000여 대중은 선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조하고 그 진폭을 차분히 가라앉혔다. 불교도대법회 국제선명상대회 하이라이트 순간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 시대에 향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간화선을 비롯한 여러 선명상 연구·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양성·시스템 구축 △선명상 센터 설립·전국 100여개 선원 및 사찰 템플스테이서 선명상 활성화 △세계 확산 위한 선명상 문화적 흐름 창조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스님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인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실천인 '하루 5분 선명상'을 제안했다. '하루 5분 선명상'의 실행을 위해 △선명상 길라잡이 △선명상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체계적인 실천법을 제공할 것도 약속했다.

불교와 명상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실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어로 재해석한 〈초역 부처의 말〉이 9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20위권에 올랐다. 지난 7월에는 2030 세대 내 판매량이 전월 대비 20.9% 상승했다고 한다.

'하루 5분 선명상'은 국민 행복을 위한 출발점이다. 종교에도 나이에도 성별에도 걸림이 없는 운동이 될 수 있다. 진우 스님의 제안대로 하루 5분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자.

불교문화유산 전담 정부 부서 필요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는 특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불교중앙박물관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공동주최한 '불교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그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 시행 10주년을 맞아 다량소장처의 변화와 성과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기조발제를 통해 국가유산청에 불교문화유산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불교유산은 그 질과 양에 있어 한국 문화를 대표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 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아직도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한 스님은 "현재 지정문화유산 중 불교문화유산은 35%에 이른다. 중요도가 높은 국보와 보물의 경우는 55% 이상이 불교문화유산"임을 재차 강조했다.

기실 국가유산 보유 사찰의 지원은 원형 보존에 한정돼 있어, 활용과 전승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렇기에 "국가유산의 고귀한 유산적 가치가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향유돼 국민 삶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정책이 변화 돼야 한다"는 주경 스님의 주장은 타당하다. 나아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불교유산 보존·전승을 위해 국가유산청에 불교문화유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10월 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10월 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0월 9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KBB

한국불교방송



KBB한국불교방송은 다름니다.

주식회사 KBB 한국불교방송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포교방송이라는 기본에 충실하며 과거, 현재, 미래와 세계 각국의 불교를 다루며 대중포교와 생활포교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과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좋은 파장"을 널리 퍼트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뉴스는 물론 교계의 소식을 함께 전함으로서 보다 대중성을 갖추고 사회공익사업을 병행함으로서 불타의 법음 전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B한국불교방송 | 문의 053-1670-2012 | www.kbbtv.co.kr




KBB한국불교만의 최신 카메라 장비


4K 화질 카메라로 최상의 영상을 만듭니다


KBB한국불교만의 최신 카메라 장비


4K 화질 카메라로 최상의 영상을 만듭니다



KBB한국불교방송만의 프로그램 소개

저희 주식회사 한국불교방송은 방송 및 미디어 제작 회사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주식회사로써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포교방송이라는 기본에 충실하며, 세계각국의 불교를 다루며 대중포교와 생활포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 큰스님들의 초청법문과 찾아가서 듣는 법문,설법
- 불자들과 함께하는 법회, 행사
- 사찰소개 및 홍보
- 한국불교 문화재 소개
- 불교명언
- 불교궁금증
- 특집
- 독경 ,예불, 염불
- 기타 관공서, 기업, 학교, 가계, 홍보 영상 제작



KBB한국불교방송의 촬영 제작 영상 소개

법문/법회 종단/행사



법문/법회 종단/행사



특집/공연 기획프로그램



KBB한국불교방송은 불교를 우선으로 하지만 그외 다른 촬영과 편집도 겸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대학원 홍보



커피 광고



구룡포시장 홍보



현풍도깨비시장 홍보



관공서



대구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



그외 촬영 영상



KBB한국불교방송 활동 이력

- 법무법인 로하스 홍보영상
- 노벨리스 코리아 직무 홍보영상
- 최준의 라디오 사연 영상
- 금파 콜트럭 기업 홍보영상
- 가수 요요미 스팟
- 가수 진성 스팟
- 달서별빛캠핑장 이용수칙 영상
- BAT 안전 교육영상
- 달서구청 희망달서 홍보영상
- 대구 특구 10주년 포럼 영상
- KBS 진수섬찬 영상
- MBC 어린왕자원정대 영상
- TBC 고향별곡 영상
- 청주 CJB 아름다운 충북 영상



KBB한국불교방송

T. 053)1670-2012 / F. 053)753-1087
대구 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543번지 예림빌딩 606호

KBB 한국불교방송 홈페이지 www.kbbtv.co.kr
유튜브 좋아요 무료 www youtube com/@koreabbtv
(주)에스민스튜디오 TEL : 010 - 2822 - 2233
KBB 모바일앱 더 빨리, 더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며, 불교 행사와 불자님들의 소식을 공유합니다.

2024 불교도 대법회

현대불교 특집

조계종 미래본부 공동기획



우리 함께 '하루 5분' 마음 여행 떠납시다

여러분께 아주 쉬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쉽지만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인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실천입니다.
바로, '하루 5분 선명상' 입니다.

매순간 '5초 우선멈춤 선명상'을 하십시오.
매일 수시로 '5분 무시로 선명상'을 하십시오.
어려움을 느낄 때는 '지나가리라 쉘패스 선명상'을 하십시오.
지나친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는 '방하착, 놓음 선명상'을 하십시오.
모든 일은 나에게서 나온다는 '그림자 선명상'을 하십시오.
지나친 쾌락이나 고통에 휘둘릴 때, '고락사 삼수야 가라 선명상'을 하십시요.
점이 연결되어 선이 되듯이, '바로 지금 이순간(Right now at this momet) 화두 선명상'으로 마음을 깨치십시요.

여러분, 우리함께 '하루 5분'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시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 해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선명상 발표' 중

사진=공동취재단

2024 불교도 대법회

국민오계 수계법회 · 승보공양법회



조계종은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4 국제선명상대회 불교도대법회' 일환으로 '국민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인례사스님이 연비의식을 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조계종 총무원은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승보공양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대표 공양단이 승보에게 공양을 올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민 오계' 가득찬 광화문 장엄한 법석이 펼쳐졌다

국민오계 수계법회

3만여 불자 운집…첫 순서로 수계법회
나와 사회 상생공동체 '국민오계' 약속
진우 스님 "계 지킴, 고통 벗어나는 길"

특별취재팀=신중일 · 노덕현 · 임은호 · 김가령 · 김민재 기자

"생명존중과 상생의 가치를 믿고 나와 우리 사회를 위한 '국민오계'를 약속합니다."

초가을 서울 광화문광장을 가득채운 3만 5000여 불자들이 국민오계를 받은 공덕을 온 법계 모든 중생들에게 골고루 베풀어 마음평화와 국민행복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은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4 국제선명상대회 불교도대법회'를 봉행했다. 봉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성화 스님의 개회선언 후, 첫 순서로 '국민오계 수계법회'가 열렸다. 이번 국민오계 수계법회는 불자들이 지켜야 할 오계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해 공동체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수계법사로,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와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를 증명으로 한 수계법회는 도량결계(대종 5타), 개식, 거향찬, 청성, 청사, 개도, 참회 연비, 귀의, 선계상, 발원, 계첩 수여,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은 장궤합장과 큰 절 등 전통의식으로 진행되는 수계법회의 여법함과 장엄함을 위해 무대 앞 중앙 600석은 좌식으로 준비했다.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등 계층별과 신도회, 각급 기관 및 단체, 외국인 노동자 등 부분별로 600여 명을 사전 선발했다.

국민오계는 생명존중과 상생의 가치를 믿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좋은 습관을 들여 나와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한 약속으로 마련됐다. △불살생계(不殺生戒)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자 △불투도계(不偸盜戒)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나눔을 생활화 하자 △불사음계(不邪婬戒) 신의를 지키며 심신을 맑게 하자 △불망어계(不妄語戒) 나와 남을 속이지 말자 △불음주계(不飮酒戒) 내 정신과 몸에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자 등 다섯가지 덕목이다.

진우 스님은 법어에서 국민오계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설했다.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더라도 원칙에 어긋남이 없다는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를 강조한 스님은 "선명상을 통해 마음을 깨친 이는 행동자체가 보살행이 되며 자비행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자연스럽게 육바라밀행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지계라고 말했다.

이어 "계는 그릇과도 같다"고 말한 진우 스님은 "그릇이 깨져 있거나 금이 가 있으면 물을 부을 수도 없을 뿐 더러 새거나 오염될 수밖에 없다"면서 "계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의 도탄에서 벗어나게 하는 최고의 행동,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공개된 오계는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지켜나가자는 국민오계"라고 설명하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계를 지켜나갈 때, 온 국민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밝고 맑은 사회가 될 것이며 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 세계 최고의 국민, 최강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수계법사스님들이 연비를 위해 팔을 걷어 붙인 3만 여 불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연비를 해줘, 감동을 선사했다. 200여 법사스님들은 좌식한 대중들에게는 전통 향연비를, 3만 5000여 대중들에게는 삼보륜 모양의 도장을 정성껏 찍어줬다.

계첩은 수계제자 대표로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김영석 포교사단장,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주현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이 받았다. 청소년 대표로는 유승원 학생이, 어린이 대표로는 송다정 어린이가 계첩을 받았다.

의식을 마친 수계대중들은 무대 단상 위 증명단의 스님들을 향해 합장하고 석가모니불 정근을 이어갔다. 이후 발원문을 통해 나 자신의 마음 평안과 모두의 평화를 위해 다함께 국민오계를 잘 받들어 지킬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모든 만물의 실상을 바로 보고 약자의 고통을 보듬으며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겠다"면서 "신뢰와 존중, 존경과 공경의 사회를 이루어 공동체의 평화를 이끌고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들의 서원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서원했다.

3만 5천여 불자대중 승보께 공양 올리다

승보공양법회

서로 공경하는 인간관계 회복 발원
佛法僧 삼보께 지극한 공양 올려
"상호 존중 상생공동체 만들겠다"

특별취재팀=신중일 · 노덕현 · 임은호 · 김가령 · 김민재 기자

"원컨대 향기로운 이 공양물들 끝없는 시방법계에 두루하여서 바다처럼 다함없는 삼보님 전에 빠짐없이 공양하여지이다."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을 빼곡이 들어선 3만5000여 대중이 승보에게 공양을 올렸다. 공양을 올린 대중은 우리 사회가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 스님)은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승보공양법회를 봉행했다.

2024 불교도대법회의 첫 번째 법석인 '국민오계 수계법회'에 이어 두 번째 법석으로 마련된 이날 승보공양법회는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인간관계를 회복해 우리 사회가 더불어 상생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법회는 정원주 제28대 중앙신도회장 당선인의 인사로 시작됐다. 정원주 회장은 "'승보공양'은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온 불교의 오랜 전통이며 우리 불자들의 필수 덕목"이라며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증오와 무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의 인연은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한 의식행위"라고 승보공양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승보공양법회를 계기로 내 자신을 비워 이웃을 소중히 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상생공동체를 염원하는 우리의 발원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불자들이 더욱 더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법계를 깨끗이 하는 '정법계진언'을 염송한 뒤 본격적인 승보공양이 이뤄졌다.

이날 승보에게 올린 공양물은 스님들이 출가하고, 수행하며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흙으로 곱게 빚어 만든 화발우와 수행자의 상징인 가사를 준비됐다.

공양단은 어린이 불자를 대표해 성동훈·최이준·오승현·배민설 어린이가, 청소년을 대표하여 김동훈·송인웅·정애린·차유진 학생이, 대학생불자를 대표하여 민준기·양승구·정현정·신지현 학생이 참여했다. 청년불자를 대표하여 한상훈·박효원·조서희·박영미 씨가, 신도를 대표하여 이승현 조계사 신도 총회장과 박영환·박소윤·홍순분 씨가 참석했다.

또한 정원주 중앙신도회장 당선인과 정충래·김상규 부회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정승윤 공무원불자연합회장,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대표도 승보에게 공양을 올렸다.

"삼보님은 큰 자비로 공양 받으사, 저희들의 선근을 늘려주시고, 진리가 이 세간에 머물게 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갚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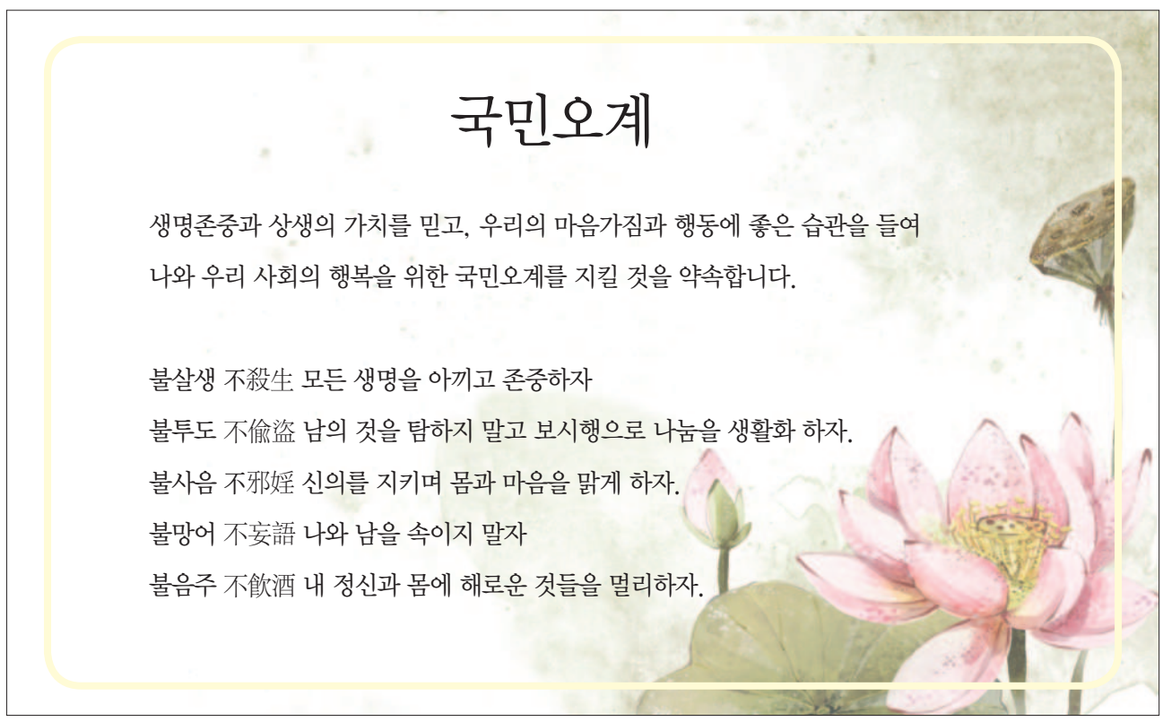
공양을 받은 승가는 승보를 올린 대중들을 축복하는 축원을 전했다.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는 〈축복경〉 중 일부를 낭독하며 대중들을 축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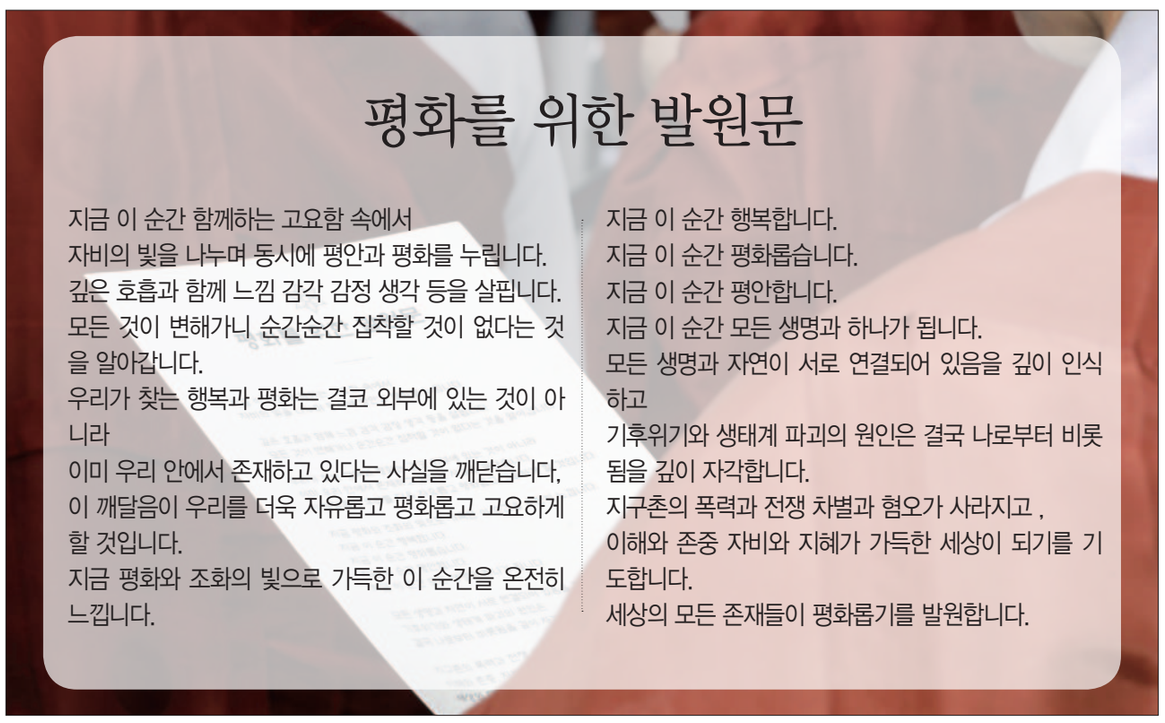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나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축복입니다. 이 길을 따르면 어디서든 실패하지 아니하고 번영하리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축복입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 올린 공양의 공덕으로 세상이 평안하기를 기원했다.

주경 스님은 "오늘 공양 올린 불자들의 공덕으로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하며, 나라가 평화롭고 국민들의 삶이 넉넉하고 편안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는 우리 사회가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공동체를 기원하며 "서로 존중합니다. 서로 존경합니다. 서로 공경합니다"를 합송하면서 마무리됐다.





2024 불교도 대법회

국제선명상대회



조계종은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4 국제선명상대회'를 개최했다. 3만 5000여 불자들 선명상을 경험하며 마음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향한 간절한 바람을 마음깊이 되새겼다. 사진=공동취재단

'5분 선명상' 한국불교 명상 진면목 세계에 알리다

9월 28일 광화문광장서 '2024 국제선명상대회' 개최

특별취재팀=신중일 · 노덕현 · 임은호 · 김가령 · 김민재 기자

'2024 국제선명상대회'에 참석한 수만명 불자들이 선명상을 경험하며 서울 한복판 광화문광장을 환희롭게 장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하루 5분 명상'을 선보이며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길을 안내했다. 참석 대중들은 마음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향한 간절한 바람을 온 우주 생명들과 함께 마음 깊이 되새겼다.

불교도대법회의 하이라이트인 '2024 국제선명상대회'가 9월 28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예정된 시간이 가까워 오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들이 광화문에 마련된 자리 뿐 아니라 서울 시청까지 거리를 가득 메우며 장관을 연출했다. 불자들뿐 아니라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역시 걸음을 멈추고 광화문 앞에 설치된 무대에 시선을 집중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직접 단상에 올라 선명상에 대한 PT를 진행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OECD 자살율 1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불명예 별칭을 얻은 이곳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까요?"

먼저 질문을 던진 진우 스님은 "이제는 산업혁명을 넘어 정신혁명의 시대로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발전과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마음의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면서 "정신혁명의 시대, 우리가 마음 평안을 찾아가는 그 길은 선명상이다. 한국불교 정통 수행인 간화선을 바탕으로 선명상을 열어갈 것"을 말했다.

진우 스님은 이 자리에서 선명상 시대를 향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간화선을 비롯한 여러 선명상 연구·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양성·시스템 구축 △선명상 센터 설립·전국 100여개 선원 및 사찰 템플스테이서 선명상 활성화 △세계 확산 위한 선명상 문화적 흐름 창조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인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실천인 '하루 5분 선명상'을 제안했다. '하루 5분 선명상'의 실행을 위해 △선명상 길라잡이 △선명상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체계적인 실천법을 제공할 것도 약속했다.

다양한 선명상 방법도 공개됐다. 매순간 '5초 우선멈춤 선명상', 매일 수시로 '5분 무시로 선명상', 어려움을 느낄 때 '지나가리라 쉘패스 선명상', 지나친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는 '방하착, 놓음 선명상', 모든 일은 나에게서 나온다는 '그림자 선명상', 지나친 쾌락이나 고통에 휘둘릴 때 '고락사 삼수야 가라 선명상', 점이 연결돼 선이 되듯이 '바로 지금 이순간(Right noe at this moment) 화두 선명상'으로 마음을 깨칠 것을 당부했다.


세계 명상지도자들과 함께한 선명상 실참.


대중들은 발원문을 통해 자비 가득한 세상을 염원했다.


외국인들도 다수 참여, 선명상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 불자 3만 5천명 운집…장관 연출
> 진우 스님 5분 선명상 선포하며
> 마음 · 세계평화 한마음으로 기원
> 광화문 일대 고요 물들어 '눈길'

이어 '하루 5분' 마음의 여행을 떠나볼 것을 제안했다. 진우 스님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그 해답은 내 언제나 내 안에 있다"면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여정을 떠나보자"고 말했다.

선명상의 마음가짐과 자세, 호흡을 안내하는 준비 영상 이후 선명상 실참이 이어졌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일수 스님, 금강 스님, 불산 스님을 비롯해 로시 조안 할리팩스, 툽텐 진파, 차드 멩 탄, 팝루 스님, 직메 린포체가 함께 무대에 올라 마음 평안에 이르는 여정을 시작했다.

"가능한 몸은 평안하게 하고, 손은 무릎에 편안하게 올려 놓고 눈을 감습니다. 화두가 있는 분은 화두를 들어도 좋습니다."

선명상 침묵 영상이 송출되며 광화문 일대가 고요로 물들었다. 마음의 평온을 찾은 동참자들도 선한 에너지가 주변을 휘감았다.

명상 후 3만 5000여 동참 대중 모두가 한 목소리로 '세상을 향한 평화의 기도'를 낭독하며 국제선명상대회의 막이 내렸다. 동참 대중은 발원문에서 "모든 생명과 자연이 서로 연결돼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의 원인은 결국 나로부터 비롯됨을 깊이 자각하겠다"면서 "지구촌의 폭력과 전쟁,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이해와 존중, 자비와 지혜가 가득한 세상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참석대중들은 연꽃 스티커를 가슴 한쪽에 붙이고 마음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의 불안과 고통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었고, OECD 자살률 1위라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환경 파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술 발전과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마음의 고통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산업혁명을 넘어, 정신혁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그 길은 선명상입니다. 한국불교 정통의 수행인 간화선을 바탕으로 선명상을 열어 가겠습니다.
첫째, 간화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명상 연구와 함께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지도자를 양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명상이 사회 저변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선명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명상센터를 설립하고, 전국 100여 개 선원과 사찰의 템플스테이를 통해서도 선명상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넷째, 선명상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명상의 문화적 흐름을 창조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쉽지만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인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실천입니다.
바로, '하루 5분 선명상'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선명상 길라잡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선명상 실천법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명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선명상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순간 '5초 우선멈춤 선명상'을 하십시오.
매일 수시로 '5분 무시로 선명상'을 하십시오. 어려움을 느낄 때는 '지나가리라~ 쉘패스 선명상'을 하십시오. 지나친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는 '방하착, 놓음 선명상'을 하십시오. 모든 일은 나에게서 나온다는 '그림자 선명상'을 하십시오. 지나친 쾌락이나 고통에 휘둘릴 때, '고락사 삼수야 가라 선명상'을 하십시오. 점이 연결되어 선이 되듯이 '바로 지금 이순간(Right now at this momet) 화두 선명상'으로 마음을 깨치십시요.
네 번째, 이 밖에 선명상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108 선명상 등 선명상 실천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우리함께 '하루 5분'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시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 해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여정을 떠나보십시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발표 전문–

2024 불교도대법회 화보

사진=본지 특별취재팀 · 공동취재단 · 조계종 홍보국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여정을 떠나보십시오.”

‘2024 불교도대법회 국제선명상대회’에 참석한 수만명 불자들이 선명상을 경험하며 서울 한복판 광화문광장을 환희롭게 장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하루 5분 명상’을 선보이며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길을 안내했다.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불교도대법회에서는 △국민오계 수계법회 △승보공양법회 △국제선명상대회가 봉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들이 광화문에 마련된 자리 뿐 아니라 서울시청까지 거리를 가득 메우며 장관을 연출했다. 3만 5000여 대중들은 5분 선명상을 실천하며 ‘고요’로 광화문광장을 장엄했다. 불교도대법회의 면면을 화보로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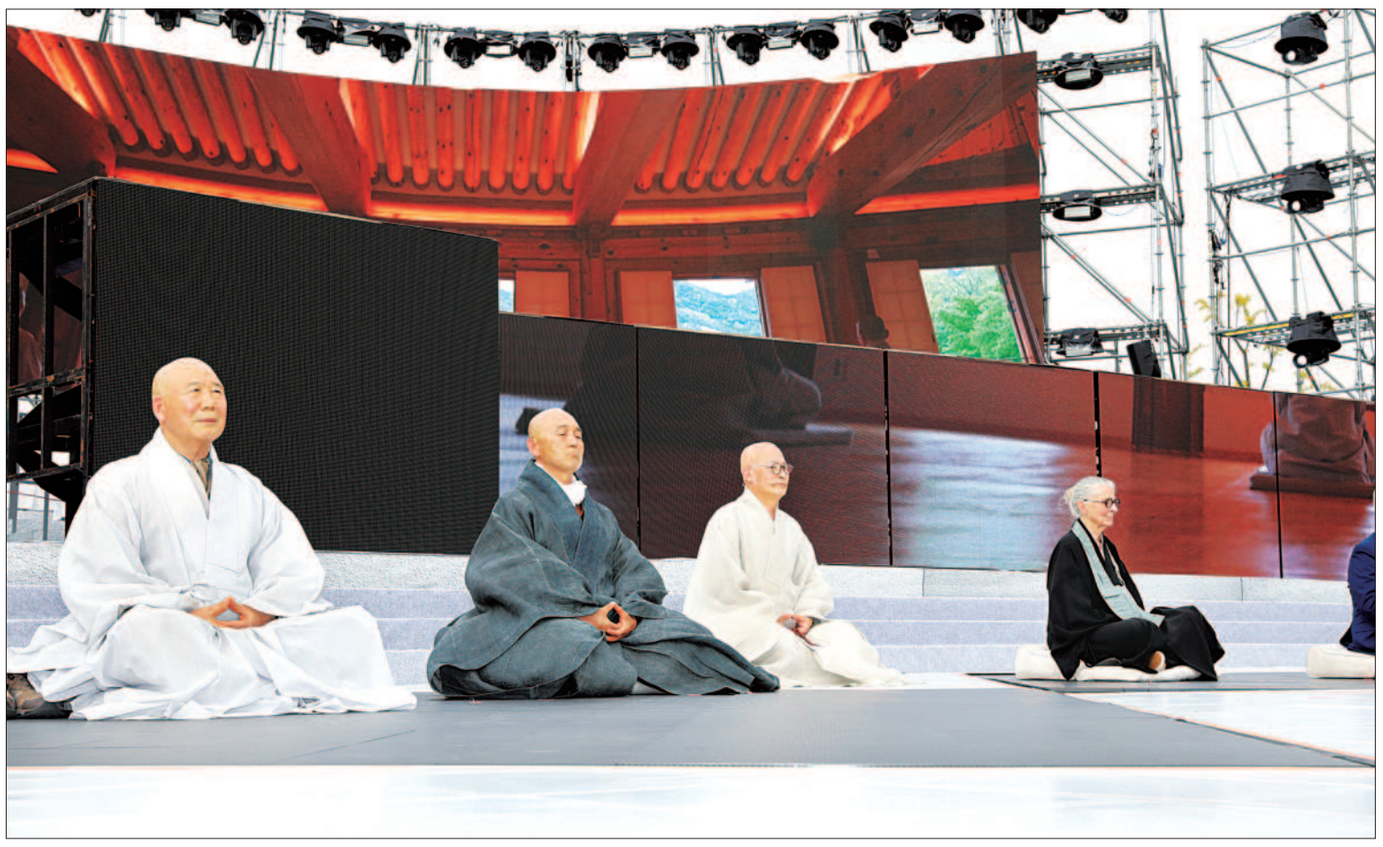
〈편집자 주〉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제선명상대회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3만 5000여 대중이 5분 선명상을 하고 있다.

“이제 마음의 여정을 떠납시다”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오계 수계법회에서 재가 대중이 장궤합장을 하고 오계를 수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만여 대중 '고요한 환희'에 빠지다

















2024불교도대법회 참여 대중 인터뷰

유정현 전 대불련 회장



"상반기 수계식을 놓쳤습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에 오늘 사부대중이 동참한 수계식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수계는 '불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스스로에게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현운(69, 서울 국제선센터)



"불법승 삼보(三寶)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3번째 수계식이지만 매번 새롭고 불심이 더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계식으로 가족과 나라가 잘되고 모든 이들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용선(23, 국방부 국무지원단)



"국군 대표로 수계식에 나오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계를 받으면서 해이해졌던 계율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안전하고 보람차게 군생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승현(11세, 서울 서래초)



"평소에 어린이법회에도 참여하며 불교 행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승보공양 대표 어린이로 선정돼 매우 떨리고 기대됐습니다. 이번 수계법회와 승보공양을 계기로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불자로 성장하겠습니다."

김하진(12세, 서울 평래초)



"서유기의 삼장법사와 부처님을 보고 스님과 불교의식에 푹 빠져들었는데, 스님들께 감사하며 공양물을 올리는 승보공양은 존경심을 표하고 신실한 불자가 되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교 행사가 많이 열리길 바라며 전국민이 불교의 매력에 푹 빠져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사회의 안정을 일구길 바랍니다."

임병배(30, 정신과 간호사)



"평소 뇌의학에 기반한 마음 명상을 꾸준히 실참해 왔습니다. 2030세대 사이에서 명상을 향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대중성을 갖춘 선명상이 젊은 층을 겨냥한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에반 캠벨(Evan Campbell, 주한미군)



"미국은 명상을 비롯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기회가 부족한데,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선명상 프로그램이 보급된다면 꼭 실천하겠습니다."

“반려견과 ‘선명상’에 푹 빠졌어요”

봉선사, 9월 30일 반려견 선명상 축제
호산 스님 함께 경내 걸으며 마음챙김
도그요가 · 간식만들기 · 전문가 강연
“소중한 생명체로서 인식 고취 기여”

남양주 봉선사=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봉선사(교구장 호산 스님)는 9월 30일 경내에서 ‘반려견과 함께 하는 선명상 축제’를 개최했다. 사진은 교구장 호산 스님과 대중들이 반려견과 함께 걷기 명상하는 모습.

반려견과 함께 힐링하는 색다른 마음챙김 프로젝트가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교구장 호산 스님)에서 진행됐다.

봉선사는 9월 30일 경내에서 ‘반려견과 함께 하는 선명상 축제’를 개최했다. 반려견 선명상 축제는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불교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해야한다는 생각으로 기획됐다.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선명상을 통해 진정한 마음챙김의 가치를 되새겨보고, 반려견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구장 호산 스님은 10여 년 넘게 ‘쿠니’와 함께 하고 있는 반려인이기도 하다. 호산 스님은 개막식에서 “쿠니는 어느덧 신도들에게 봉선사서 함께 거주하는 반려견이 됐고, 방문객들에게는 봉선사를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하는 마스코트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불성이 있다는 〈열반경〉 ‘일체중생실유불성’을 언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반려견들이 단순히 가축이 아닌 반려견이 된 것을 보면 우리가 각기 가진 불성이 공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인 가구는 새로운 불교의 포교 계층이라고 강조했다. 호산 스님은 “펫케어 분야는 반려견 천도뿐 아니라 템플스테이 같이 사찰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의 문턱을 낮추고 포교로 확대해 반려인들이 마음 편하게 절에 방문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라면서 “이번 선명상 축제를 통해 반려견이 단순한 동물이 아닌 소중한 생명체로서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취하고 건강한 반려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막식에 함께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축사에서 “반려견 선명상 축제는 생명은 소중하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불성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행사”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고 김병주 국회의원은 “15년 간 ‘아찌’와 함께하는 반려인으로서, 반려동물들을 위한 제도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걷기 명상에 앞서, 호산 스님을 지도법사로 한 선명상 시간이 진행됐다. 동참자들은 반려견과 함께 들숨과 날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봉선사 경내와 연지를 천천히 걸으며 마음챙김 걷기 명상도 했다.

축제 동참자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기를 발원했다. 이들은 발원문을 통해 “모든 생명과 자연이 서로 연결돼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의 원인은 결국 나로부터 비롯됨을 깊이 자각한다”면서 “지구촌의 폭력과 전쟁,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이해와 존중, 자비와 지혜가 가득한 세상이 되길 기도한다”고 서원했다.

반려견 전문가 초청 강연도 열렸다. 배철현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교수 ‘인간중심에서 생명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는 개와 인간의 유구한 역사적 생명문화를 살펴보는 한편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반려견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웅종 이삭애견훈련소 대표가 진행한 ‘책임감 있는 보호자, 매너 있는 시민견’ 시간에서는 똑똑한 보호자가 만드는 반려견의 매너, 반려견의 행동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교육법을 공유하고 반려견의 행복한 습관을 만들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다.

전국, 선명상으로 물들다

선명상 대중화와 국민 마음 평안을 발원하는 ‘2024 국제선명상대회’의 법향(法香)이 전국에 퍼졌다.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부산, 전주 등 지역 곳곳에서 해외명사 초청 강연, 108배, 명상 실참 등이 이어졌다. 화려하게 펼쳐진 선명상의 향연에 본지도 동참 · 취재했다. 〈편집자주〉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이사장 주석 스님)이 9월 27일 송정해수욕장 일원에서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명상대회 부산전야제 쿠무다 선 명상 · 108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사부대중이 108배 정진하는 모습.


직메 린포체


툽텐 진파


로시 조안 할리팩스


차드 멩 탄

9월 27~30일 ‘전국 선명상 축제’
서울 · 부산 · 전주 등 곳곳서 펼쳐져
자비 · 죽음 · 자아 · 평안 주제로 진행

서울, 자비의 가르침 퍼지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자비’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담화 원명 스님)와 서울 강남 봉은사(원명 스님)는 9월 29일 경내에서 각각 해외명상가 툴쿠 직메 린포체(Tulku Jigme Rinpoche), 툽텐 진파(Thupten Jinpa)를 초청했다.

미국 ‘평화와교육팔모센터’ 설립자인 직메 린포체는 티베트 불교 마음 수행인 ‘로종’을 통해 지혜와 자비를 증득하고 무명에서 벗어날 것을 설했다. 직메 린포체는 “〈입보리행론〉에서는 평범한 사람은 자신을 염려한다고 했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타인을 생각한다”면서 “모든 행복은 타인을 생각하는 데에서 나온다. 다른 존재를 잘 보살피는 것이 나 자신을 잘 보살피는 것이다. 로종은 이와 같은 자비심을 일구는 수행”이라고 설했다.

툽텐 진파 ‘마인드&라이프’ 의장은 공감에서 우러나온 자비심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툽텐 진파 박사에 따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연의 ‘공감능력’을 갖고 타인의 고통과 슬픔, 기쁨 등을 이해한다. 그는 불교의 ‘자비심’은 인간의 ‘공감능력’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흡을 고요하게 하는 명상을 매일 실참한다면 도전적인 상황을 직면해도 감정적이거나 괴롭지 않을 수 있다”며 “자비와 지혜의 가치를 인지하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자비심을 견지해 고통이 소멸된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 ‘죽음’과 ‘나’를 되돌아보다

미국 우파야 선 센터 주지이자 ‘죽음과 함께 하는 삶’ 프로젝트의 창시자인 로시 조안 할리팩스(Roshi Joan Halifax)는 9월 30일 부산 범어사를 찾아 ‘죽음 명상’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할리팩스 선사는 특강에서 “고통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며,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스스로를 잘 유지하기 위해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고통의 진실에 우리가 어떤 중간에 끼어드는 것 없이 온전히 반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호스피스 전문 병원 정토마을 자재병원 이사장 능행 스님이 나섰다. 스님은 불자들이 평소 죽음에 대한 준비와 배움이 부족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할리팩스 선사는 “스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런 교육을 하셨던 거 같다. 죽음에 대해서 가족뿐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 병원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교육이 필요하다”며 “스님께서 이런 다리가 되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개인·가족의 삶뿐만 아니라 의료계 문화, 한국의 문화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선명상과 108배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이사장 주석 스님)은 9월 27일 송정해수욕장 일원에서 ‘국제선명상대회 부산전야제 쿠무다 선명상·108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쿠무다 선명상·108배 경진대회는 국제선명상대회의 개막을 알리는 전야제로 미래세대와 다양한 계층에게 선명상 체험의 장을 선사했다.

전주, 평안의 선명상 콘서트

구글 엔지니어 출신 명상가 차드 멩 탄은 전주를 찾아 ‘선명상’으로 대중들을 행복과 평안을 선사했다.

조계종 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가 9월 29일 전주 서고사(주지 혜안 스님) 세계평화명상센터 교육관에서 구글 엔지니어 출신 명상가 ‘차드 멩 탄’을 초청해 선명상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2024 국제선명상대회’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선명상으로 평안과 행복의 길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콘서트는 첼리스트 정호 스님을 비롯한 클래식 앙상블 ‘쪽빛바다’의 명상음악공연에 이어 차드 멩 탄의 ‘명상 수행과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 강연, 유정은 마음바라보기 대표가 진행하는 실참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차드 멩 탄은 강단에 올라 “명상의 첫 단계는 처음 명상을 시작하는 자기 정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들여다볼 힘이 있어야 한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상을 통해 집중했을 때 이미 그곳에 축복과 행복이 있었다”며 “행복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며 대중들에게 선명상의 효과를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선명상 MZ 사로잡다

선명상, 군장병 응원하는 마음훈련

미래본부 9월 29일 호국연무사서
곽정은 작가 강연·고민상담 진행
뉴진 스님, 디제잉 공연 ‘인기만점’



“장병 여러분이 지금 겪은 경험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마음 훈련을 복무 기간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성원 스님)가 9월 29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삶’ 주제로 명상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선명상’을 제안하는 ‘2024 국제선명상대회’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연애상담 전문가’에서 ‘대중 명상가’로 탈바꿈한 곽정은 작가의 강연과 고민 상담과 뉴진 스님의 디제잉 공연으로 이뤄졌다.

곽 작가는 삶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3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첫 번째는 ‘지나친 경쟁’이다. 한국 사회에 태어난 이상 많은 부분을 경쟁으로 할애해야 한다. 두 번째는 ‘비합리적 신념’이다. 비합리적 신념은 심리학 용어로 자신의 견해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탐진치 삼독심(三毒心)이다. 곽 작가는 “탐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그에 따라 화나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도 함께 커진다”며 “이 세 가지 마음이 나를 망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곽 작가는 해결책으로 감정을 기록하는 ‘탐진치 일기’, 명상으로 자신을 돌보는 ‘자애명상’을 제시했다. 그는 “여러분이 감정이나 생각 등 현재 경험하는 것을 스스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며 “복무 기간 동안 꼭 한번 생각해 보고 나를 보살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민재 기자, 유재상 충청지사장

“선명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됐어요”

‘JustBe! 홍대선원 선명상 WEEK’
9월 29일 경내서 체험의 장 열려



“안개 속에서 길을 찾듯이, 천천히 동작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찾아보세요.”

서울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이 9월 29일 경내 일원에서 ‘JustBe! 홍대선원 선명상 WEEK’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4 국제선명상대회’의 일환으로 열렸다. 홍대선원은 선태극권, 드로잉(그림) 명상으로 ‘선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정진희(고경) 가이드의 ‘드로잉(그림) 명상’ 프로그램은 1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정 가이드는 “우리는 항상 손을 사용하면서 한 번도 ‘손’ 자체에 집중해 본 적이 없다”며 “오늘은 행위 주체인 손을 관찰하고 그려보면서 온전히 내면에 몰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드로잉 명상은 외국인에게도 특별한 시간이 됐다. 한국에 ‘쉼’을 찾으러 온 애른스트 월프(32, 독일, 그래픽 디자이너) 씨는 “드로잉 명상을 통해 내면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그동안 요가를 해봤지만 기억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드로잉 명상은 귀국해도 계속 생각날 것 같다”고 말했다.

20년 동안 태극권을 수련한 법증 스님의 ‘선태극권’ 프로그램이 5층 법당에서 이어졌다. 법증 스님에 따르면, 몸의 경직된 힘을 내려놓는 태극권의 ‘방송(放鬆)’과 마음의 분별심을 내려놓는 선불교의 ‘방하착(放下着)’이 통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태극권은 결국 선(禪), 즉 마음을 깨닫기 위한 방편이다. 몸의 힘을 내려놓고 동작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차드 멩 탄, ‘리더’ 되는 선명상 강연

9월 30일 대전 보문고서



“명상으로 집중력, 자기 진단, 자비심을 키운다면 여러분은 세계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구글 엔지니어 출신이며 마음챙김 명상가인 차드 멩 탄이 9월 30일 대전 보문고(교장 권상철)를 찾아 ‘뇌를 깨우는 15초의 기적, 명상’을 주제로 선명상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2024 국제선명상대회’의 일환으로 미래세대 동량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강연자로 나선 차드 멩 탄은 “나도 여러분 나이 때는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다”며 “하지만 한 비구니스님을 만났고, 명상 수행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불교와 명상은 행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성공’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며 3가지 명상법을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첫 번째는 ‘집중력 훈련’ 명상이다. 차드 멩 탄에 따르면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마음도 훈련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몇 번의 호흡으로 ‘전두엽 피질’을 강화하면 집중력이 향상돼, 명료함과 차분함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알아차림을 통해 나를 살피는 ‘자기진단’ 명상이다. 차드 멩 탄은 “감정은 몸에서 느끼는 것”이라며 “몸에 집중하게 되면 감정을 살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자신에 대한 진단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자비심(친절과 연민)’ 명상이 제시됐다. 차드 멩 탄은 명상의 최고 비밀은 “누군가를 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며 “친절과 연민을 상대에게 베풀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것이 길게 볼 때 여러분이 성공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 유재상 충청지사장

진우 스님 "'UN 세계 명상의 날' 지정 추진"

선명상 국제 컨퍼런스-대담

세계명상가들 명상 관련 대담 나눠
전국에 '선명상 센터' 건립 예고도
"선명상 세계화" 위한 도움 요청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2024 선명상국제대회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진우 스님은 'UN 세계명상의 날' 지정을 제안했다.

'2024 국제선명상대회' 일환으로 개최된 '선명상 국제 컨퍼런스'가 10월 1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평온, 이 시대의 도전을 품는 명상'을 주제로 대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진우 스님과 세계명상가들이 현시대 인류가 직면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대담은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의 질문에 명상가들이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대담의 시작에서 미산 스님은 진우 스님에게 "마음 안정과 평화를 위한 선명상을 전 세계에 어떻게 전파할 것인지"를 물었다.

진우 스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개개인의 욕심 상충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전쟁, 불평등, 자살 등의 과오가 그로 인한 것"이라며 "선명상 전파를 통해 작금의 시대를 사는 인류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는 동시에 마음을 알아차려 평정을 이루는 정신문화를 이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스님은 "알아차림으로 평정을 이루는 선명상을 전 세계인이 실참하도록 UN에 '세계 명상의 날'을 제안하고 미국 예일대의 미래세대들에게 선명상의 가치에 대해 강의할 것"이라며 "명상과학의 선구자 존 카밧진과도 대담을 나눠 불이중도적 마음챙김, 명상의 가치와 확산 방법에 대해 답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는 전국 곳곳에 선명상을 연구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선명상 센터'를 건립해 선명상 실참소이자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명상센터로 거듭나고자 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K-선명상 세계화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로시 조안 할리팩스는 미산 스님이 "불안한 현실에 휩쓸리지 않고 개인이 중심을 잡을 방법"을 묻자, 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는 "현 시대의 시스템과 조직은 구조적인 폭력으로 윤리적 고통을 만들어 낸다. 여기서 청년들은 대상화와 소외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기쁨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명상을 함께 하는 등 공동체 소속감을 느낄 기회를 많이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툽텐 진파 '마인드&라이프' 의장에게도 질문이 이어졌다. 미산 스님은 "국가 간 갈등의 장애물과 극복 방향은 무엇인지" 물었다. 툽텐 진파는 "세대를 거듭하며 쌓인 갈등은 서로의 보편적 인간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 각자의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야말로 안전한 사회"라며 "어떤 해결책도 근본 해결책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상대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비'를 통해 받아들임을 훈련하면 힘 있는 갈등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음챙김 수행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웨이크업(Wake Up)'운동을 이끄는 팝루 스님은 본인의 경험담을 나눴다. 스님은 "언제나 청년들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 청년들과 만날 때 내가 먼저 '나도 힘들었다'고 애기해 마음을 연다"며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마음챙김을 가르치면 훨씬 빠르게 영감을 얻고 스스로를 되돌아볼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공유하는 경험이 자연스러워진다면 비이원적인 공동체 마인드를 키울 수 있다"고 일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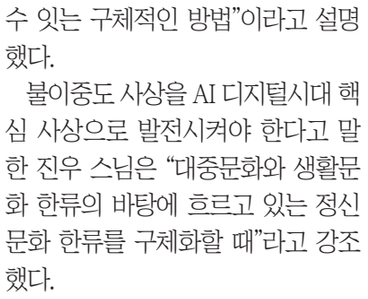
이어 미산 스님은 직메 린포체에게 디지털 시대 우울증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조언을 요청했다. 직메 린포체는 "옛날과 달리 요즘은 SNS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표현하는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며 "매 순간 내 앞에 닥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반복해서 질문한다면 외부로 인한 우울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성장할 초석이 된다"고 조언했다.

미산 스님은 최근 새로운 저서 〈불교를 알면 삶이 자유롭다〉를 발간한 차드 멩 탄에게 "일반적인 명상을 불교와 연관지어 저술한 이유"에 관해 질문했다.

차드 멩 탄은 "명상은 마음을 챙김으로써 고통에서 해방되는 방법인데, 고통 해방을 논하며 부처님과 불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불교는 아주 오래된 종교임에도 그 교리가 현재까지 이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종교이기에 명상과 함께 저서의 주축으로 삼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명상으로 세계 정신문화 변화 이끌 것"

진우 스님, 컨퍼런스 기조 강연
'불이중도의 지혜' 주제로 진행
일상 실천 선명상 방안 제시도


진우 스님이 '불이중도의 지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 선명상 전통은 세계 정신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중도 가르침을 AI 디지털 시대 핵심 사상으로 발전시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선명상과 자비 실천을 통해 개인의 내면 평화를 찾고 나아가 사회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0월 1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2024 국제선명상대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서 '불이중도의 지혜:디지털 시대의 선명상과 자비 실천'을 주제로 우리의 전통적 지혜 불이중도가 현대 디지털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선명상과 자비 실천으로 어떻게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설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혼란스러운 시기,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 나아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라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선명상의 핵심을 "우리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한 스님은 "참된 본성은 연기-무자성-공임을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순간순간 성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기적 현상에 대한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자비 실천으로 이어진다"며 "보살도의 실천과 사회적 참여불교가 우리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다. 모든 존재와 연결돼 있다는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5대 종정을 역임한 서옹 스님의 '참사람 수행'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괴로운 감정이 일어날 때 '우선 멈춤-방하착' '무시로 명상' '자비명상'의 실천을 통해 개인의 내적 평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내적 평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화엄십지경〉에 항상 기본필수 수행법으로 돼 있는 4가지 무량한 마음 훈련과 4가지 섭수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비를 실현할 수 잇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불이중도 사상을 AI 디지털시대 핵심 사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 진우 스님은 "대중문화와 생활문화 한류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정신문화 한류를 구체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정신문화의 뿌리와 바탕을 탐색해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 사상을 선명상을 통해 불이중도로 정립해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인류의 정신 문명사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명상전문가 5인이 말하는 명상·알아차림·자비


(왼쪽부터)신경철 대한명상의학회 부회장, 팝루 스님, 차드 멩 탄, 직메 린포체, 툽텐 진파 등은 '선명상 국제 컨퍼런스'에서 명상, 알아차림, 자비를 주제로 발제 발표했다.

10월 1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린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에서는 명상과 알아차림, 자비를 주제로 한 다양한 발제가 이어졌다.

신경철 대한명상의학회 부회장은 발제 '선명상의 나아갈 길'에서 현대인에게 명상이 필요한 이유와 명상의 효과, 그리고 명상의 나아갈 길에 대해 설명했다.

신경철 부회장은 뇌 연상 연구를 통해 명상 효과를 매개하는 뇌 네트워크가 밝혀지기 시작한 명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의료계가 정신 건강을 위해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명상을 환자의 재발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구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제도적 노력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일반 대중을 위해 불교계에 행해야 할 바람도 전했다. 신 부회장은 "일반 대중을 위한 종교적 접근은 건강추구와 더 나은 삶을 위한 세속화된 명상의 목적을 더해 '나는 누구인가'의 본질의 화두를 더 많이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인드풀니스 벨 편집장 **팝루 스님**은 '불이의 알아차림, 치유를 가져오는 내면의 힘' 발제를 통해 불이의 알아차림은 복잡하지 않다고 밝혔다. 팝루 스님은 "불이의 알아차림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고, 우리가 바로 그들임을 볼 수 있게 도와주며 거기에는 분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팝루 스님은 "자비와 함께 우리는 서로의 희망과 필요를 이해하고 우리 각자가 본래 선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서 "불이의 알아차림, 즉 모든 분별이 끊어진 지혜 덕분에 우리는 폭력을 행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갖도록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차드 멩 탄**은 발제 '오래된 지혜와 경쟁사회의 명상'에서 수행이 기쁨과 자유, 희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할 때 생기는 마음가짐에 대해 발표했다.

팝루 스님 · 차드 멩 탄 등 명상전문가
'평온, 이 시대 도전 품은 명상' 발제해

희망은 나에게도, 세상에도 있다고 강조한 차드 멩 탄은 "기쁨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그 외의 것은 모두 보너스"라면서 "내면의 기쁨은 자유로 이어지며, 자유에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차드 멩 탄은 "더 많은 기쁨에 다가갈 수 있으면 더 어려운 상황도 직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회복탄력성의 증가를 가져온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챙김과 자애는 유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평화와교육팔모센터 설립자 **직메 린포체**는 '내면의 빛:불안과 우울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명상의 기술' 발제에서 명상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머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은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 필수"라고 강조한 직메 린포체는 "매일 아침, 그날 하루 동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친절하겠다는 적절한 동기를 설정한 뒤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되돌아 봐야한다"며 "파괴적인 감정에 굴복했을 때, 그것을 합리화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바로잡고 친절의 원칙과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음의 과학은 단지 동양이나 서양, 승려나 재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할 주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직메 린포체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 마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서 "마음의 가장 놀라운 자질 가운데 하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때,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수 있는 방법이다.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되 지역적으로 행동하라"고 조언했다.

마지막 발제자 마인드&라이프 의장 **툽텐 진파**는 '자비를 품다:다정한 사회를 위한 통찰'에서 삶에서 자비가 적극적인 힘이 되게 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했다.

"어떻게 하면 삶에서 자비가 적극적인 힘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진 툽텐 진파는 첫 번째로 자비의 가치와 이로움을 생각하는 것을 들었다. 성찰은 매일 자신의 삶을 관찰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야 자비의 역할과 힘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툽텐 진파는 "자비의 가치에 대한 깊은 확신이 생겼다면 의식적으로 자비를 삶에서 능동적인 힘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일반적인 태도를 굳건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매일 아침 자신의 삶,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자비를 일상의 삶에 가져오겠다는 의도를 새롭게 다져 볼 것 △일상에서 가능한 한 아침에 일으킨 위도와 계속 연결돼 있는지 살펴볼 것 △가끔 시간이 나면 자애와 자비 명상을 정식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보살 자비는 우리의 본래 터전"

로시 조안 할리팩스 기조강연
'보살의 힘' 주제로 발표 진행
내면 고요함 · 자비실천 연결돼


조시 로안 할리팩스는 '참여 불교와 보살의 이상'을 주제로 강연했다.

우파야 선센터 설립자이자 사회운동가 로시 조안 할리팩스가 보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보기만 한다면, 느끼기만 한다면, 깊고 용감하게 식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보살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시 조안 할리팩스는 10월 1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린 '2024국제선명상대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안의 고요, 밖의 실천:사회 참여 불교와 보살의 이상'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그는 보살의 힘에 대해 다섯가지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서로 연결된 정직과 보살핌의 공동체를 일구는 것이다. 그는 "이 힘은 포용과 친밀감, 상호존재, 도덕적 품성에 관한 것"이라며 "틱낫한 스님이 말씀한 미래에 오실 부처님은 공동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보살의 힘은 보편적 자비의 실현이다. 이것은 고통의 진실에 대한 자발적으로 막힘없이, 응답하는 것이다. 세 번째 보살의 힘은 쉬운 상황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며, 네 번째 보살의 힘은 혁명적인 기쁨이다. 마지막은 상상력으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난 마음의 너그러움이다.

그는 "보살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활짝 열려 어떤 견해에도 갇히지 않고 기꺼이 깨지며 서로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온전히 하나의 전체로서 바라보는, 그리고 포용적인 자아와 가능성으로 가득한 세계를 그려볼 수 있는 상상력을 갖는 것"이라며 "급진적인 열림 가운데 나오는 괴로움의 진리를 꿰뚫어 보고도 달아나지 않으며 괴로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해방이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할 수 있는 용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시 조안 할리팩스는 "보살의 자비는 우리의 본래 터전"이라며 "우리가 보고 느끼기만 한다면, 우리가 깊고 용감하게 식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보살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보살의 태도에 대해 그는 "이 순간에 완전히 깃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느끼는 친밀감, 진정성, 깊은 상호연결, 용기, 그리고 두려움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한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과 근본적인 진정성에 관한 것으로, 내면의 지혜의 고요함과 외적인 자비의 실천이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경험과 서로 연결돼 있음을 구현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로시 조안 할리팩스는 "우리가 진정성과 용기,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만나길 바란다"면서 "우리도 자신과 세상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응답과 실현하고 비전을 삶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KOMSCO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반세기 동안 축적된 장인정신과 특수 압인제품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귀금속에서 일반 소재까지 고유하고 예술성이 뛰어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년고찰 시리즈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현신으로부터 전해 받아 온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곳으로 통도사 창건의 근본정신이 깃든 금강계단은
대웅전과 함께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금(Au999)
중량 Weight	31.3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은(Au999)
중량 Weight	31.1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취급 유의사항 | 소재 특성상 공기, 수분,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변색 혹은 레드스팟(붉은 점)이 생길 수 있으니 메달을 캡슐에서 꺼내지 마시고 밀폐상태를 유지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념메달은 육안검사를 통해 모두 품질이 보증된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